

삼국사기·삼국유사로 본 기상·천문·지진기록

三國史記·三國遺事로 본 氣象·天文·地震記錄

Meteorological Records from Ancient Korea including Astronomical and Seismological Records  
from 《SAMGU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숫대'  
하늘 세계와 마을을 이어주는 전령인 오리나 기러기를 올린 나무장대



## 차례

책머리에

일러두기

《삼국사기》·《삼국유사》의 이해

《삼국사기》의 기상·천문·지진기록

〈본기〉 ..... 20

〈잡지〉·〈열전〉 ..... 109

《삼국유사》의 기상·천문·지진기록 ..... 116

주요 기록 횟수 - 시대·현상별 ..... 121

영토의 시대별 변화 ..... 124

연호와 역대 왕의 재위 기간 ..... 128

도량형 ..... 131

용어해설 ..... 132



‘겨울 연지의 노을’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고평리 혼신지, 2011년 기상사진전 입선작)



## 책머리에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선조는 하늘을 우러르며 자연 현상을 관측해 왔습니다. 고대부터 하늘과 땅의 변화, 그리고 태양과 별의 변화를 세밀히 관측한 우리 조상들은 그 현상에 대해 꼼꼼히 기록해 왔고, 긴 역사의 환난 속에서 때로는 목숨을 걸며 이를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 기록에 매료되는 이유는 글자마다, 행간마다 그분들의 혼과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록집은 자연과학도와 역사학도가 합심한 첫 번째 성과물입니다. 자연과학과 역사학의 지식을 한데 모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담긴 10세기 이전의 자연 현상 기록을 연구하고 이를 중국의 기록과 비교하였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에는 설명과 사진을 보태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이웃 나라들은 이러한 기록집을 이십여 년 전에 이미 발간한 것을 보면, 우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기상, 천문, 지진으로 구분하니 각각 424건, 218건, 97건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기상기록에는 가뭄의 횟수가, 천문기록에는 일식의 횟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삼국유사》는 기상기록 8건, 천문기록 5건, 지진기록 2건 밖에는 안되지만,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쌓았다는 기록은 우리나라가 이미 7세기에 동양 최고(最古)의 천문관측대를 건립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초안부터 꼼꼼하게 감수해 주신 나일성 님(연세대 명예교수: 천문학), 박성래 님(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과학사), 조희구 님(연세대 명예교수: 기상학)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신 김상원 님(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박찬홍 교수님(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창범 교수님(고등과학원), 안영숙 박사님(한국천문연구원), 오용해 과장님(기상청 지진감시과), 정용석 님(한국상고회), 진성규 교수님(중앙대 역사학과)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기록집이 자연 현상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연구자들의 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될 한국 기상기록집 시리즈도 기대해 주십시오.

2011년 9월  
기상청장 조석준





'목타는 대지'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2009년 기상사진전 입선작)









'태백산의 설화'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2008년 기상사진전 입선작)









‘울릉도 저동항 무지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2010년 기상사진전 입선작)



‘鳴沙山 울다’  
(중국 간쑤성 둔황시, 2011년 기상사진전 장려상)

## 일러두기

- 본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상, 천문, 지진 및 기타 기상 관련 기사를 선별한 것이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기상 기록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 《삼국사기》〈본기〉는 서기(西紀) 연대를 기준으로 재배열하였고, 《삼국사기》의 〈잡지〉·〈열전〉은 연대 기록이 자세하지 않아 기록된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삼국유사》는 설화적 기사를 가능한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 《삼국사기》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역주 삼국사기》(1997)를, 《삼국유사》는 이회문화사의 《역주 삼국유사》(2003)를 기본서로 하였다.
- 역주(譯註)는 기본서를 따르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어려운 문장은 운문(潤文)하였다. 그리고 필요시 새로운 주석을 추가하였다.
- 본문의 양력은 《한국연력대전》 상·하(한보식, 2001, 2002), 《삼국시대 연력표》(한국천문연구원, 2002)를 따랐다. 이때 연속인 달의 양력은 붙여 기입하였고, 비연속적인 것은 쌍반점(:)으로 구분하였다.



‘여름이야기(뇌전)’  
(대전광역시 동구 식장산, 2009년 기상사진전 입선작)

예 음력 3월과 4월 → 양 4.18.~6.15.

음력 3월과 8월 → 양 4.21.~5.19.; 9.16.~10.14.

- 문장이 길어 중간부분을 생략할 때는 원문에 ‘(中略)’으로 표시하였다.
- 《삼국사기》〈본기〉 중에 왕의 연대 기사에 앞서, 왕의 가계와 즉위 과정 등을 서술한 부분을 ‘내력부분’이라 하였으며, 연대가 불명확한 기상관련 자료가 나올 경우에 즉위년에 포함시켰다.

예 ‘벌휴왕은 바람과 구름을 점쳤다.’ 기사는 특정 연도가 없어 즉위년인 184년에 수록하였다.

- 기상관련 기사가 중간에 있는 경우 앞 달에 포함시켰다.

예 봄 2월에 조공하였다. 크게 가물었다. 5월에 조공하였다. → 2월에 크게 가물었다.

- 나라의 수도는 왕도(王都), 경사(京師), 경도(京都), 경성(京城) 등으로 표현된다. 본문에서는 수도 변천에 유의하여 현재 지명을 넣었다.

- 출전은 각 〈본기〉의 첫 글자만 적었다.

예 신라본기1 → 신1, 고구려본기1 → 고1, 백제본기1 → 백1

## 《삼국사기》·《삼국유사》의 이해

### 《삼국사기(三國史記)》

1) 김부식(金富弼, 1075년~1151년)은 신라 왕실의 후예로 경주세력을 대표했다. 1096년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원(예문관) 직한림을 20여 년 지냈다. 인종(재위 1122년~1146년) 즉위 후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자겸을 비판하였고, 이자겸의 난이 실패로 끝난 뒤 실권을 잡았다. 1135년에는 신진세력인 묘청(妙淸)이 서경 천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키자 평서원수(平西元帥)로 임명되어 직접 난을 진압하였다. 인종 20년(1142년) 관직에서 은퇴하였으나, 임금의 명에 따라 1145년에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2) 이자겸(李資謙, ?~1126년)은 고려의 권신으로 본관은 경원(慶源: 仁州)이다. 왕실의 외척이라는 가문을 배경으로 과거가 아닌 음서(蔭紱)로 관직에 올라 예종(1079년~1122년) 때 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았다. 1122년에 외손인 어린 인종을 왕위에 올렸으나, 1126년 인종 독살 시도 등 권력을 남용하였다. 결국 평양 출신 정치세력에 물리게 되자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유배지에서 죽었다.

3) 묘청(妙淸, ?~1135년)은 고려 중기의 승려로 왕실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이자겸의 난이 끝난 후 공을 세운 평양세력과 귀족 관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자 평양 출신의 묘청은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평양 천도를 주장하면서 1135년에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은 김부식 등 개경의 유신 세력에게 진압되었고, 묘청은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다.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23년(1145년)에 김부식(金富弼)<sup>1)</sup>이 왕명을 받들어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이다. 김부식은 국왕에게 올린 《진삼국사기표(進三國史記表)》에서, “지식인들이 유교경전과 중국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하며, 당시 남아 있는 기록들이 얼마 되지 않아 교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편찬한다.”고 아뢰고 있다. 시대적으로는 고려 중엽에 들어서면서 건국초기에 비해 문화·사회·사상적으로 큰 발전이 있었고, 이자겸<sup>2)</sup>의 난과 묘청<sup>3)</sup>의 난을 진압한 당시 정치세력의 변화가 《삼국사기》 편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인용한 자료는 크게 국내·외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자료로는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고려 초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삼국사(舊三國史)》를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고, 여기에 《삼한고기(三韓古記)》·《해동고기(海東古記)》 등의 고기류(古記類), 김유신 비문과 아도화상비문 등의 금석문류, 김대문이 지은 《계림잡전(鷄林雜傳)》 등의 문헌들과 고문서 등이 이용되었다. 국외 자료로는 《한서(漢書)》·《후한서(後漢書)》·《당서(唐書)》·《자치통감(資治通鑑)》 등 40여 종의 중국 자료가 이용되었다(田中俊明, 1982).<sup>4)</sup>

《삼국사기》는 〈본기(本紀)〉 28권, 〈연표(年表)〉 3권, 〈지(志)〉 9권, 〈열전(列傳)〉 10권으로 구성된 총 50권의 기전체(紀傳體) 역사서이다. 〈본기〉는 왕의 치적을 중심으로 왕조 변천을 연대순으로 서술한 것으로, 〈고구려본기〉 10권, 〈백제본기〉 6권, 〈신라본기〉 12권(통일신라 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기〉의 내용을 보면 정치 관련 기사가 약 38%, 천재지변 기사가



약 28%이며, 나머지는 전쟁(16%)과 외교(18%) 기사가 차지하고 있다. <연표>는 삼국 왕들의 재위기간과 연호의 변화를 표로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지>는 문물과 제도에 관해 항목별로 연혁과 변천을 기록한 것으로 《삼국사기》에서는 <잡지(雜志)>라 하였다. 내용을 보면 제사(祭祀)·악(樂)·색복(色服)·직관(職官)·지리(地理) 등이 있으며, 이 중 지리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열전>은 임금을 제외한 사람들의 전기를 적은 것으로, <김유신(金庾信) 열전>이 3권을 차지하며, 나머지 68인의 <열전><sup>5)</sup>이 7권에 실려 있다.

《삼국사기》의 판본(版本)은 고려본과 조선본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려 시대의 초간본은 12세기 중엽에 간행되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2차 판각은 13세기 중·후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암본(誠庵本)이 남아 있으나 일부만 전해진다. 《삼국사기》는 조선 태조 3년(1394년)에 3차 판각이 있었지만 남아 있지 않다. 4차 판각은 조선 중종 7년(1512년)에 있었으며, 흔히 중종임신본(中宗壬申本), 정덕임신본(正德壬申本) 또는 정덕본으로 통칭되고 있다. 이 목판본은 여러 종이 전해지고 있으며, 완본으로는 《옥산서원본(玉山書院本)》과 조병순(趙炳舜) 소장본이 있다.

《삼국사기》는 삼국의 건국과 영토 확장, 정치적·법제적 발전 과정, 신라에 의한 통일 과정과 그 이후를 설명해 주고 있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관찬사서(官撰史書)이다. 비록 신라 중심의 서술, 김부식의 유교사관, 자료에 대한 수집노력 부족 등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삼국의 원전 자료가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

### ⊗ 《삼국사기》 초기 기사의 신빙성 문제

《삼국사기》 초기 기사의 신빙성 문제에 관해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긍정론, 부정론, 수정론으로 나눌 수 있다.

긍정론은 《삼국사기》 초기 기사들이 삼국 당시의 사료들을 근거로 작성되었다고 여겨지므로 그 사료적인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고고학계의 연구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1971년 7월,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송산에 있는 백제 고분 제5호 석실분과 제6호 전축분의 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로 작업을 하던 중

4)《삼국사기》에 인용된 중국 측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진서(晉書)》, 《진서제기(晉書載記)》, 《남제서(南齊書)》, 《제서(齊書)》, 《책부원구(冊府元龜)》, 《양서(梁書)》, 《위서(魏書)》, 《수서(隋書)》, 《남사(南史)》, 《남북사(南北史)》, 《북사(北史)》,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통전(通典)》, 《자치통감(資治通鑑)》,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 《팔지지(括地志)》, 《금조(今操)》, 《풍속통(風俗通)》, 《석명(釋名)》, 《송옥유적부(宋玉有笛賦)》, 《유공권소설(柳權權小說)》, 《서(書)》, 《시(詩)》, 《예기(禮記)》, 《주례(周禮)》, 《맹자(孟子)》, 《역(易)》, 《신라국기(新羅國記)》 등이다. 이외 가언충(賈言忠), 송기(宋祁) 등의 인명으로도 인용된 경우가 있다.

5)열전의 등장인물은 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김유신 열전에서 김암을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따라 계산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김유신을 포함하여 개인 기록을 갖고 있는 인물이 69인이라는 견해는 신형식(1981, 《삼국사기 연구》, 일조각)의 입장이다. 《삼국사기》 열전에서 개인의 전기를 가진 사람은 다음의 51인이다. 김유신(권41~권43), 을지문덕, 거질부, 거도, 이사부, 김인문, 김양, 흑치상지, 장보고, 사다함(이상 권44), 을파소, 김후직, 녹진, 밀우, 유유, 명림답부, 석우로, 박제상, 귀산, 온달(이상 권45), 강수, 최치원, 설총(이상 권46), 해론, 소나, 취도, 눌최, 설계두, 김영운, 관창, 김흠운, 열기, 비령자, 죽죽, 필부, 계백(이상 권47), 향덕, 성각, 실해, 물계자, 백결선생, 검군, 김생, 솔거, 효녀지은, 설씨녀, 도미(이상 권48), 창조리, 개소문(이상 권49), 궁예, 견훤(이상 권50).

무령왕릉이 발견되었다. 무덤에서는 2,906점에 이르는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왕과 왕비의 장례를 지낼 때 묘소로 쓸 땅을 땅의 신에게서 사들인다는 매지권(지석) 2매도 포함되어 있었다. 왕의 지석 앞면에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무령왕)은 62세인 계묘년(523년) 5월 7일에 봉어하시어 을사년(525년) 8월 12일에 대묘에 모시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 이 기록은 “(무령왕이 523년) 여름 5월에 돌아가셨다.”는 《삼국사기》〈백제본기〉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백제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이 본격적으로 발굴되었는데, 이 성은 빠르면 기원 전후에서 늦어도 기원후 3세기 즈음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백제가 초기부터 한반도 중부지역을 지배하였다는 《삼국사기》〈백제본기〉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부정론은 일제강점기에 쓰다소우키치(津田左右吉) 등 일본 연구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들은 3세기에 편찬된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三國志)》〈한전(韓傳)〉에 근거하여 《삼국사기》 초기 기사를 부정하고 있다. 《삼국지》〈한전〉은 삼한(三韓)의 풍속과 역사 관련 기록에서 백제를 마한(馬韓)에 소속된 작은 나라이며, 신라 역시 진한(辰韓)에 속하는 작은 나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백제와 신라가 기원 전후부터 이미 강력한 나라로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삼국사기》 초기 기사와 상충된다.

수정론은 《삼국사기》 초기 기사의 일부만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인다. 즉 집필 당시 전승된 자료를 따른 것이므로 부정할 수만은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사를 사실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나름대로 연대를 조정하거나, 같은 왕 때의 기록이라도 어떤 기사는 인정하고 다른 기사는 불신하며, 다른 왕 때의 기록으로 보려는 분해론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은 일반적인 시각은 수정론이다. 하지만 어느 시기부터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혹은 특정 기사를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 《삼국사기》 일식(日蝕, 日食) 기사의 신빙성 문제

《삼국사기》의 일식 기사는 총 66건에 이른다. 이것이 중국의 일식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식을 비롯한 삼국시대의 천체 관측기록은 중국의 기록을 옮겨 적었다는 주장이 있다. 초기의 연구로 이이지마 타다오(飯島忠夫, 1925)의 견해를 들 수 있다. 그는 “(삼국사기의) 일식기사는 편찬 당시, 나중에 속임수가 폭로된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 기록을 옮겨 첨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삼국시대에 독자적인 천체 관측이 이루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초기의 연구로 김용운(1977년)과 박성래(1977년)의 연구가 있다. 김용운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중국 역사서의 일식 기록을 《삼국사기》로 옮겨 왔다면 삼국의 기록 모두 일식이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국의 공통적인 일식 기록은 2개 뿐이다. 즉, 후대(고려) 역사가의 조작이 아닌 삼국 고유의 기록이 《삼국사기》에 실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첨해왕 10년(256년) 10월의 일식 기록처럼 중국에 없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의 일식 기사는 독자적인 기록일 뿐 아니라, 이는 통일신라에서 독자적인 일식 관측을 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성래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중국의 일식 기록을 단지 부정확한 삼국의 기록을 바로잡는데 활용했을 뿐이라고 하였다.

한편, 천문학자 박창범은 기록의 독자성을 증명하기 위해 삼국의 최적 일식 관측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백제의 일식 기록에 따른 최적 관측 장소는 발해만 유역, 고구려는 만주와 몽골 지역임을 밝혔다. 신라는 201년에는 양자강 유역, 787년 이후는 한반도 남부가 최적 관측지라 하였다. 결론적으로 삼국의 일식 기록은 각각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관측하여 나온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즉 중국 사서의 기록을 무작위로 차용했다면 삼국의 최적 일식 관측지들이 서로 지역적 차이를 보일 수 없음을 증명하였다.

1) 일연(一然, 1206년~1289년)은 고려의 승려로 경상도 경주 장산군(지금의 경산시) 출신이다. 14세 때 출가하여 1227년에 승과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1259년에 대선사(大禪師)가 되었다. 충렬왕의 명에 따라 1277년부터 1281년까지 경상도 청도 운문사(雲門寺)에서 살면서 고려 불교의 선풍(禪風)을 크게 일으켰는데, 이때 《삼국유사》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1289년 7월 왕에게 올리는 글을 남기고 입적했다.

##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1274년~1308년) 때인 13세기 말에 승려 일연(一然)<sup>1)</sup>과 그의 제자들이 편찬하였다. 이 책은 불교사관(佛敎史觀), 비합리주의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 기록의 신빙성이 부정되기도 하였으나, 유교적 합리주의의 면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사 뿐 아니라 한국 고대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역사서이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나 《해동고승전》과 같은 역사서에 빠져되거나 숨겨졌던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고려 무신정변(1170년~1270년) 이후의 혼란한 사회를 극복하고 정신적 기준을 찾기 위한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본과 연구자에 따라 체재 분류에 이견은 있지만 《삼국유사》는 대체로 5권 9편목으로 분류한다. 9편목에서 왕력(王歷)은 일종의 연표(年表)이며, 기이(紀異)는 고조선으로부터 후삼국까지의 역사를 간단히 다룬 것이다. 흥법(興法)은 삼국의 불교 수용, 탑상(塔像)은 탑과 불상, 의해(義解)는 신라 승려들의 전기를 수록하고 있다. 신주(神呪)는 신라의 밀교, 감통(感通)은 신앙의 신령함, 피은(避隱)은 세상을 벗어난 인물, 효선(孝善)은 효도와 불교 선행에 대해 다루고 있다. 크게 보면 왕력과 기이편은 국가나 국왕 중심으로 편찬된 역사서의 성격이 강하고, 나머지 7편은 대부분 불교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삼국유사》의 판본은 임신본(壬申本)과 고판본(古板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신본은 정덕본(正德本)으로도 부르며 조선 중종 7년 임신년(1512년)에 이계복(李繼福) 등이 경주부(慶州府)에서 판각한 목판본이다. 고판본은 임신본 이전의 판본으로 석남본, 범어사 소장본 등이 있으며,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판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삼국유사》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 임신본과 일본의 덴리대학(天理大學) 소장 임신본이다.

《삼국유사》는 불교 뿐 아니라 고조선사, 가야사 등을 수록하고 있어, 《삼국사기》에서 제외된 많은 부분을 메워주고 있다. 그리고 풍백(風伯)과 같은 기상의 신, 혜성 출현, 이른 눈(早雪)과 같은 기상 역사에서 다루어야 할 소중한 기록들도 전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인구 외, 2003, 《역주 삼국유사》Ⅴ, 이회문화사.
- 공주대학교 백제문제연구소, 1991, 《무령왕릉의 연구현황과 제문제》.
- 김용운·김용국, 1977, 《한국수학사》, 과학과 인간사.
- 김일권, 2008,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사계절.
-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리용태, 1960, 《조선 기상학사 연구》, 과학원 출판사.
- 박성래, 2000, 〈한국 전근대 역사와 시간〉, 《역사비평》 50.
- 박창범, 1999, 《동아시아 일식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창범, 2002,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김영사.
- 신종원, 2004, 《삼국유사 새로 읽기(1)-기이편》, 일지사.
- 신형식, 1981, 《삼국사기 연구》, 일조각.
- 안상현, 2005,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별자리》, 현암사.
- 이강래, 1996, 《삼국사기 전거론》, 민족사.
- 이기백·이기동, 1982, 《한국사강좌 I-고대편》, 일조각.
- 이병도, 1996, 《삼국사기》(개정판), 을유문화사.
- 이종욱, 2000, 〈한국고대의 부와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17.
- 정구복, 1997, 〈삼국사기 해제〉, 《역주 삼국사기》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병삼 외, 1994,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작과비평사.
- 정용석, 2004, 《고구려 신라 백제가 중국 대륙을 지배했다》, 책이있는마을.
- 최범호, 2005, 〈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기록의 불신론 비판〉, 《대동사학》 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 北京天文台, 1988, 《中国古代天象记录总集》, 江苏科学技术出版社.
- 国家地震局震害防御司, 1995, 《中国历史强震目录》, 地震出版社.
- 张德二, 2004, 《中国三千年气象记录总集》第一卷, 凤凰出版社 江苏教育出版社.
- Lee, E.H, Ahn, Y.S, Yang, H.J and Chen, K.Y, 2004,  
〈The Sunspot and Auroral Activity Cycle Derived from Korea Historical  
Records of the 11th-18th Century〉, 《Solar Physics》 224.
- Park Seong-Rae, 1977, 〈Portentography i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46.
- 田中俊明, 1982, 〈三國史記中國史書引用記事の再檢討〉, 《朝鮮學報》 104.
- 飯島忠夫, 1925, 〈三國史記の日蝕記事について〉, 《東洋學報》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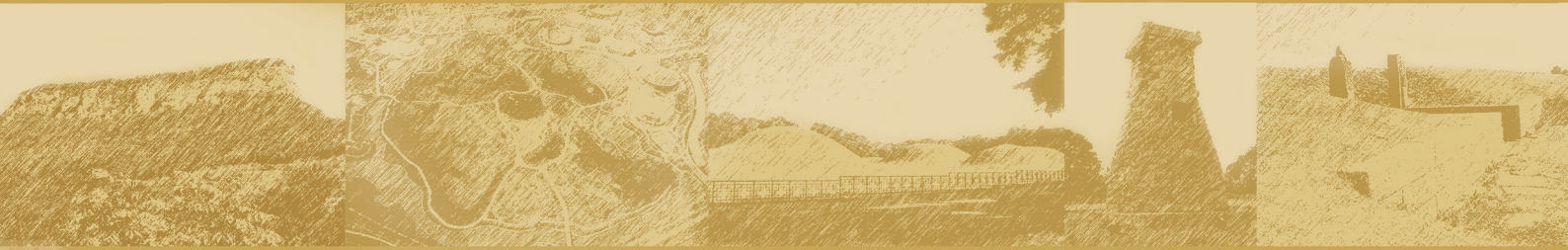
## 참고사이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 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http://astro.kasi.re.kr>





# 기상·천문·지진 기록



《삼국사기》  
〈본기〉  
〈잡지〉·〈열전〉

《삼국유사》

주요 기록 횟수 - 시대·현상별

## 《삼국사기》〈본기〉

1) 음력 정월을 시작으로 3개월 단위로 사계절을 구분했다. 즉, 봄은 음력 1월에서 3월, 여름은 4월에서 6월, 가을은 7월에서 9월, 겨울은 10월에서 12월이다.

2) 본 기사는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에서도 확인된다. 즉 “(한 선제) 오봉(五鳳) 4년 4월 신축 초하루 일식이 있었는데 필수(畢宿)의 19도 위치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한서》권27, 〈오행지〉 7下). ‘일식’은 박창범(2002, 《하늘에 새긴 우리역사》, 김영사)을 따르나 그 외 천문현상은 중국기록과 비교하여 기록하였다.

3) ‘4월 초하루 신축’을 양력으로 변환한 것이다. 이하의 양력(율리우스력) 표기는 《삼국시대 연력표》(한국천문연구원, 2002)를 따랐다. 한국 고대 역일 자료의 부족으로 음력의 양력 변환에 한계가 있지만 기상관련 자료 이해를 위해 양력을 본문에 추가하였다.

4) 원문은 패성(字星)이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서운관지(書雲觀志)》에 따르면 패성은 광망이 사방으로 나오는 별이며, 혜성(彗星)은 한쪽으로 치우쳐 나오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패성과 혜성을 구분하지 않았다.

5) 동양의 별자리와 서양의 별자리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거의 없다. 서방(西方) 구수(奎宿)에 속하는 왕량(王良) 역시 서양의 카시오페아 별자리 일부에 해당하는데, W 모양의 카시오페아는 동양에서 왕량, 책, 각도 별자리로 나뉜다. 중국의 《한서》〈선제기〉8에도 확인된다.

6) 고대 동양에서는 달의 위치를 기준으로 별자리를 28개로 나누어 28수(宿)라 하였다. 본문의 삼(參)은 28수 중 서방7사에 속하는 별자리 영역인 삼수(參宿)를 말하는지, 아니면 7개의 별로 구성된 삼(參)이라는 별자리의 이름인지 명확하지 않다. 기준별은 오리온자리 제타(ζ) 별이다.

7) 2007년에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경작층이 발견되어 당시 기후와 농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4층 매물논에서 나온 식물규산체 분석을 통해 벼의 존재를 확인하였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경주 서악동 256번지유적》).

### BC 54년

여름<sup>1)</sup> 4월 초하루 신축에 일식(日食)이 있었다.<sup>2)</sup>

夏四月 辛丑朔 日有食之 (혁거세거서간 4년 / 양 5.9.<sup>3)</sup> / 신1)

### BC 49년

봄 3월에 혜성<sup>4)</sup>이 왕량(王良)<sup>5)</sup> 별자리에 나타났다.

春三月 有星孛于王良 (혁거세거서간 9년 / 양 4.14.~5.12. / 신1)

### BC 44년

여름 4월에 혜성이 삼(參)<sup>6)</sup> 별자리에 나타났다.

夏四月 有星孛于參 (혁거세거서간 14년 / 양 5.18.~6.16. / 신1)

### BC 41년

(왕이)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하여 토지의 이로움을 다 얻도록 하였다.<sup>7)</sup>

勸督農桑 以盡地利 (혁거세거서간 17년 / 신1)

### BC 35년

가을 7월에 상서로운 구름<sup>8)</sup>이 골령<sup>9)</sup> 남쪽에 나타났는데 그 빛깔이 푸르고 붉었다.

秋七月 慶雲見鵲嶺南 其色青赤 (동명성왕 3년 / 양 8.6.~9.3. / 고1)



고구려의 첫 돌을지 오녀산성(중국 요녕성 환인)



## BC 34년

여름 4월에 구름과 안개<sup>10)</sup>가 사방에서 발생하여 사람들은 7일 동안이나 빛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夏四月 雲霧四起 人不辨色七日 (동명성왕 4년/ 양 4.28.~5.27./ 고1)

여름 6월 그믐 임신에 일식이 있었다.<sup>11)</sup>

夏六月 壬申晦 日有食之 (혁거세거서간 24년/ 양 8.23./ 신1)

## BC 28년

여름 4월 그믐 기해에 일식이 있었다.<sup>12)</sup>

夏四月 己亥晦 日有食之 (혁거세거서간 30년/ 양 6.19./ 신1)

## BC 26년

가을 8월 그믐 을묘에 일식이 있었다.<sup>13)</sup>

秋八月 乙卯晦 日有食之 (혁거세거서간 32년/ 양 10.23./ 신1)

## BC 16년

겨울 10월에 천둥<sup>14)</sup>이 쳤고 복숭아와 자두(오얏)가 꽃을 피웠다.<sup>15)</sup>

冬十月 雷 桃李華 (온조왕 3년/ 양 11.2.~11.30./ 백1)



백제의 수도 한성의 몽촌토성(서울 송파구)

8)《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구름' 기록이다. 채운(彩雲)은 빛의 파동이 구름 속 물방울에 굴절되면서 구름이 여러 빛깔로 물들어 보이는 현상이다. 주로 녹색이나 복숭아 색으로 나타나며 형태는 일정하지 않다.

9)동명성왕(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수도로 삼은 졸본(卒本) 부근으로 추정된다. <광개토왕릉비>에 졸본은 흘본(忽本)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중국의 요녕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 북쪽에 있는 오녀산성(五女山城) 일대로 추정된다. 이후 유리(명)왕 22년(AD 3년)에 국내성(國內城)으로 수도를 옮겼다.

10)《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안개' 기록이다.

11)일식은 음력 초하루에만 일어나는 현상이나 《삼국사기》에는 그믐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종종 있다. 이것은 당시 사용된 삭망월(朔望月)의 길이가 현재의 값보다 조금 길었기 때문이다(현정준, 1979, <한국의 고대 일식기록에 관하여>, 《동방학지》 22). 중국의 《한서》 <오행지>27 '건소(建昭) 5년 6월 임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2)중국의 《한서》 <오행지>27 '하평(河平) 원년 4월 기해'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3)중국의 《한서》 <오행지>27 '하평(河平) 3년 8월 을묘'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4)《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천둥' 기록이다.

15)백제 초기의 수도는 위례성(慰禮城)이다. 위례성의 위치는 대체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廣州) 일원으로 보고 있다. 사료에서 특별히 지명을 언급하지 않는 한, 475년 공주 천도 이전 백제의 기사는 현재의 서울에서 관측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6) 중국의 《한서》〈오행지〉27 '영시(永始) 2년 2월 을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7)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가뭄 기록'이다.

18) 중국의 《한서》〈오행지〉27 '영시(永始) 4년 7월 신미'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9) 심성(心星)은 28수 중 5번째 별자리 영역인 심수(心宿) 혹은 심수에 있는 심(心) 별자리를 가리킨다. 중국의 《한서》〈천문지〉6에서도 확인된다.

20) 부여의 임금으로, 금와왕(金蛙王)의 맏아들이다. 22년(고구려 대무신왕 5년)에 고구려의 공격으로 죽었다.

21)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대설 기록'이다.

22) 하고는 28수 중 9번째 영역인 우수(牛宿)에 속하며 3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 《한서》〈에제기〉 '건평(建平) 3년(BC 4년) 3월 을유' 기사에 혜성이 하고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실려 있다.

23) 《삼국시대 연력표》에 기유(己酉)일이 없어 2월 전기간을 표기했다.

24) 중국의 《한서》〈오행지〉27 '원수(元壽) 원년 정월 신축'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25)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 보이는 낙랑은 중국의 군현이라는 주장, 진한(辰韓)의 범위가 축소된 것이라고 보거나, 옥저에 위치한 소국의 하나라는 주장 등 여러 이견이 있다.

26) 강원도 춘천(春川) 혹은 경기도 양주(楊州) 지역으로 추정된다.

### BC 15년

봄 2월 그믐 을유에 일식이 있었다.<sup>16)</sup>

春二月 乙酉晦 日有食之 (혁거세거서간 43년/ 양 3.29./ 신1)

봄과 여름에 가뭄이<sup>17)</sup> 기근이 들고 역병이 돌았다.

春夏 旱 饑疫 (온조왕 4년/ 백1)

### BC 13년

가을 7월 그믐 신미에 일식이 있었다.<sup>18)</sup>

秋七月 辛未晦 日有食之 (온조왕 4년/ 양 8.30./ 백1)

### BC 7년

봄 정월에 형혹(火星)이 심성(心星)<sup>19)</sup>을 지켰다.

春正月 熒惑守心星 (유리명왕 13년/ 양 1.31.~3.1./ 고1)

### BC 6년

겨울 11월에 대소(帶素)<sup>20)</sup>가 군사 5만으로 침략하여 왔으나 큰 눈<sup>21)</sup>이 내려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어 군사를 되돌렸다.

冬十一月 帶素以兵五萬來侵 大雪 人多凍死 乃去 (유리명왕 14년/ 양 12.11.~1.9./ 고1)

### BC 4년

봄 2월 기유에 혜성이 하고(河鼓)<sup>22)</sup> 별자리에 나타났다.

春二月 己酉 星孛于河鼓 (혁거세거서간 54년/ 양 2.26.~3.27.<sup>23)</sup>/ 신1)

### BC 2년

봄 정월 초하루 신축에 일식이 있었다.<sup>24)</sup>

春正月 辛丑朔 日有食之 (혁거세거서간 56년/ 양 2.5./ 신1)

### BC 1년

11월에 왕이 낙랑<sup>25)</sup>의 우두산성(牛頭山城)을 습격하려고 구곡(臼谷)<sup>26)</sup>에 이르렀으나 큰 눈을 만나 곧 돌아왔다.

十一月 王欲襲樂浪牛頭山城 至臼谷 遇大雪 乃還 (온조왕 18년/ 양 12.15.~1.13./ 백1)





신라 시조 혁거세의 무덤이 있는 오릉(경주 탑동)

## 2년

가을 8월에 지진이 났다.<sup>27)</sup>

秋八月 地震 (유리명왕 21년/ 양 8.27.~9.25./ 고1)

가을 9월 그믐 무신에 일식이 있었다.<sup>28)</sup>

秋九月 戊申晦 日有食之 (혁거세거서간 59년/ 양 11.23./ 신1)

## 3년

가을 9월에 두 마리의 용이 금성(金城)<sup>29)</sup>의 우물에 나타났다.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으며, 금성 남문에 벼락이 쳤다.<sup>30)</sup>

秋九月 二龍見於金城井中 暴雷雨 震城南門

(혁거세거서간 60년/ 양 10.15.~11.12./ 신1)

## 6년

겨울 10월 초하루 병진에 일식이 있었다.<sup>31)</sup>

冬十月 丙辰朔 日有食之 (남해차차웅<sup>32)</sup> 3년/ 양 11.10./ 신1)

## 7년

봄 2월에 왕궁의 우물물이 갑자기 넘쳤고, 한성(漢城)<sup>33)</sup>의 민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몸은 둘이었다. 일자(日者)<sup>34)</sup>가 말하였다.

“우물물이 갑자기 넘친 것은 대왕이 흥할 징조요, 소가 머리 하나에 몸이

27)《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지진 기록이다.

28)중국의 《한서》〈오행지〉27 ‘원시(元始) 2년 9월 무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29)혁거세 21년(BC 37년), 신라 왕도(王都: 국가의 수도, 현재의 경주)에 쌓은 왕성이다.

30)전통시대에 뇌우, 벼락, 일식, 햇무리와 같은 자연현상은 왕이나 국가의 흥망과 관련해 해석되기도 했다. 즉 자연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늘과 인간세계가 같은 범주에서 교감한다는 천인감응(天人感應) 내지 천인합일(天人合一)적인 사고를 반영하였다. 다음해인 4년 3월에 혁거세거서간이 죽는다는 기사로 미루어 볼 때, 본 기사는 왕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31)중국의 《한서》〈왕망전〉99 ‘거섭(居攝) 원년 10월 병진’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32)차차웅(次次雄)은 최고 정치 지도자를 부르는 용어이다. 거서간(居西干)과 이사금(尼師今), 마립간(麻立干) 역시 최고 정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마립간 이후에는 중국식 표현인 왕(王)으로 바뀌었다.

33)백제의 수도인 위례성(慰禮城)이 있던 지역 혹은 위례성과 같은 말로 이해된다.

34)백제에 일관부(日官部)가 있던 것을 고려하면, 일자(日者)는 천문(天文)의 변화와 자연의 재이(災異)를 관찰하고 그 의미를 점치는 일관(日官)으로도 불리웠던 것으로 이해된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 차대왕 4년에도 보인다.

돌인 것은 대왕이 이웃 나라를 병합할 징조입니다.” 왕이 듣고 기뻐하여, 진한과 마한을 병탄할 생각을 하였다.

春二月 王宮井水暴溢 漢城人家馬生牛 一首二身 日者日 井水暴溢者 大王勃興之兆也 牛一首二身者 大王并鄰國之應也 王聞之喜 遂有并吞辰馬之心 (온조왕 25년/ 양 3.8.~4.6./ 백1)

## 10년

여름 4월에 서리<sup>35)</sup>가 내려 보리를 해쳤다.

夏四月 隕霜害麥 (온조왕 28년/ 양 4.3.~5.2.<sup>36)</sup>/ 백1)

## 11년

봄과 여름이 가물었다.

春夏 旱 (남해차차웅 8년/ 신1)

## 13년

여름 4월에 우박<sup>37)</sup>이 내렸다. 5월에 지진이 났다. 6월에 또 지진이 났다.

夏四月 雹 五月 地震 六月 又震 (온조왕 31년/ 양 3.31.~6.26./ 백1)

## 14년

낙랑은 나라 안이 비었을 것이라 생각하여 아주 급하게 (신라의) 금성을 공격하였다. 밤에 유성이 적진에 떨어지자 (낙랑의) 무리들이 두려워하여 물러갔다.

樂浪謂內虛 來攻金城甚急 夜有流星 墜於賊營 衆懼而退

(남해 차차웅 11년/ 신1)

## 15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백성이 굶주려 서로 잡아먹고<sup>38)</sup> 도적이 크게 일어났다.

春夏 大旱 民饑相食 盜賊大起 (온조왕 33년/ 백1)

## 16년

가을 7월 그믐 무자에 일식이 있었다.<sup>39)</sup>

秋七月 戊子晦 日有食之 (남해차차웅 13년/ 양 8.21./ 신1)

35)《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서리' 기록이다.

36)양음력의 차이가 전 시대와 다른 것은 왕망(王莽)이 전한(前漢)을 멸망시키고 신(新, 9년~25년)을 건국하여 새로운 역법을 반포한 것과 관련 있다. 《삼국시대 연력표》(한국천문연구원, 2002)는 8년~22년 1월의 위치가 바뀐 왕망의 역법을 반영하였다.

37)《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우박(雹)' 기록이다.

38)“백성들이 굶주려 서로 잡아먹을 정도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39)중국의 《한서》〈왕망전〉99 '천봉(天鳳) 3년 7월 무자'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 18년

경성(경주)에 가뭄이 들었다. 가을 7월에 황해(蝗害)<sup>40</sup>로 백성들이 굶주려 창고를 열어 구제하였다.

京城旱 秋七月 蝗 民饑 發倉廩救之 (남해차차웅 15년/ 양 7.2.~7.30./ 신1)

## 19년

봄 정월에 경도(집안)<sup>41</sup>에 지진이 일어났다.<sup>42</sup>

春正月 京都震 (대무신왕 2년/ 양 18.12.27.~19.1.24./ 고2)

봄 3월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달걀만 하여 참새 같이 작은 새(鳥雀)들이 맞아 죽었다. 여름 4월에 가뭄었는데 6월에 이르러서야 비가 왔다. 한수(漢水)<sup>43</sup>의 동북쪽 부락에 기근이 들어 고구려로 도망 간 자가 천여 집이나 되었다.

春三月 雹大如雞子 鳥雀遇者死 夏四月 旱 至六月乃雨 漢水東北部落饑 荒 亡入高句麗者一千餘戶 (온조왕 37년/ 양 3.25.~7.20./ 백1)

## 20년

3월에 사자를 보내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하였다.

三月 發使勸農桑 (온조왕 38년/ 양 3.14.~4.11./ 백1)

## 22년

역병이 크게 번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겨울 11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sup>44</sup>

大疫 人多死 冬十一月 無氷 (남해차차웅 19년/ 양 11.13.~12.12./ 신1)

(대무신)왕은 군량이 다하여 군사들이 굶주리므로 두려워서 어찌 할 바를 모르다가 하늘을 향하여 영험을 빌었다. 갑자기 큰 안개가 피어나더니, 7일 동안이나 바로 앞에서도 사람을 분간할 수 없었다.<sup>45</sup>

王以糧盡士饑 憂懼不知所爲 乃乞靈於天 忽大霧 咫尺不辨人物七日 (대무신왕 5년/ 고2)

## 23년

가을에 태백(금성)<sup>46</sup>이 태미원(太微垣)<sup>47</sup> 안에 들어갔다.

秋 太白入太微 (남해차차웅 20년/ 신1)

40)황(蝗)은 어의상 메뚜기의 일종인 황충(蝗蟲)을 말하며 우리말로는 '누리'이다. 하지만 기록이 간략하여 황(蝗)이 황충(蝗蟲)이 아닌 수도해충(水稻害蟲)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히 어떤 해충인지 판명하기는 힘들다(백은하, 1976,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황해자료>, <규장각> 1). 이에 따라 황(蝗)을 번역에서 그대로 두었다.

41)현재 중국의 길림성 집안현 일대에 고구려 시대 초·중기의 도성 유적이 있다. 고구려의 수도인 국내성이 있었던 지역이다.

42)같은 해 중국에도 같은 기사가 있다. "신망 천봉 6년, 2월 (고구려 대무신왕 2년 정월) 경도(당시 고구려 수도 국내성)에 지진이 나서 크게 죄인을 사면해 주었다(新莽天風六年 二月(高句麗大武神王二年正月) 京都大震 大赦)." (国家地震局震害防御司, 1995, 《中国历史强震目录》, 地震出版社).

43)현재 서울을 지나는 한강이다.

44)《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무빙(無氷)' 기록이다.

45)부여의 남쪽(구체적인 지명은 나와 있지 않음)으로 원정 나간 대무신왕이 부여 군대에 게 곤란을 겪는 장면이다.

46)태백(太白)은 금성을 말한다. 금성이 저녁에 보이면 태백성이라 했고, 새벽에 보이면 계명성(啓明星)이라 했다.

47)태미원(太微垣)은 3원(三垣)의 하나이다. 원(垣)은 울타리를 의미한다. 3원은 중국 황하 유역에서 흔히 보이는 천구 북극 근처의 별자리 영역을 자미원(紫微垣), 태미원(太微垣), 천시원(天市垣) 셋으로 나눈 데에서 유래했다. 태미원은 28수 중 25~28번째인 성(星)·장(張)·익(翼)·진(軫) 이북의 구역으로, 조정에 비유되며 서양의 처녀자리, 큰곰자리, 사자자리 일부를 포함한다(정범진 외, 1996, 《사마천 사기》 2, 까치).

## 24년

가을 9월에 황해(蝗害)가 있었다.

秋九月 蝗 (남해자차옹 21년/ 양 10.22.~11.19./ 신1)

## 25년

9월에 기러기 100여 마리가 왕궁에 모였다. 일자(日者)가 말하기를 “기러기는 백성의 상징입니다. 장차 먼 데 있는 사람이 투항해 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九月 鴻雁百餘集王宮 日者曰 鴻雁民之象也 將有遠人來投者乎

(온조왕 43년/ 양 10.11.~11.9./ 백1)

## 27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어 풀과 나무가 바삭 말라버렸다. 겨울 10월에 지진이 일어나 백성들의 집이 기울어지고 무너졌다.

春夏 大旱 草木焦枯 冬十月 地震 傾倒人屋 (온조왕 45년/ 양 11.18.~12.17./ 백1)

## 31년

겨울 11월에 천둥이 쳤으나 눈은 내리지 않았다.<sup>48)</sup>

冬十一月 有雷 無雪 (대무신왕 14년/ 양 12.4.~1.1./ 고2)

## 32년

왕이 6부를 정하고 나서 이를 반씩 둘로 나누어 왕의 두 딸에게 각각 부(部) 안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리를 나누어 편을 짜게 했다. 가을 7월 16일부터 매일 아침 일찍 큰 부의 뜰에 모여서 길쌈을 하여 밤 10시경에 그쳤다.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로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진 편은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긴 편에게 대접하였다. 이때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하였는데 이것을 가배(嘉俳)<sup>49)</sup>라 하였다.

王既定六部 中分爲二 使王女二人 各率部內女子 分朋造黨 自秋七月 旣望 每日早集大部之庭績麻 乙夜而罷 至八月十五日 考其功之多少 負者置酒食 以謝勝者 於是 歌舞百皆作 謂之嘉俳 (유리이사금 9년/ 양 9.9.~10.8./ 신1)

48)《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무설(無雪)' 기록이다.

49)추석(한가위)의 기원이 되는 기사이다. 추석은 즈음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 사람들이 여름옷에서 가을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는데 이를 추석빔이라 했다. 길쌈놀이를 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3년

2월에 나라 남쪽의 주군(州郡)에 영을 내려 처음으로 논(稻田)을 만들게 하였다.

二月 下令國南州郡 始作稻田 (다루왕 6년/ 양 3.20.~4.18./ 백1)

### 34년

여름 4월 동방에 붉은 기운이 있었다.<sup>50)</sup>

夏四月 東方有赤氣 (다루왕 7년/ 양 5.7.~6.5./ 백1)

경도(경주)에 땅이 갈라져(地裂)<sup>51)</sup> 샘물이 솟았다. 여름 6월에 큰물<sup>52)</sup>(大水)이 났다.

京都 地裂泉湧 夏六月 大水 (유리이사금 11년/ 양 7.6.~8.3./ 신1)

### 37년

11월에 지진이 났는데 소리가 천둥과 같았다.

十一月 地震聲如雷 (다루왕 10년/ 양 11.27.~12.25./ 백1)

### 38년

가을에 곡식이 잘 익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금지하였다.<sup>53)</sup>

秋 穀不成 禁百姓私釀酒 (다루왕 11년/ 백1)

### 41년

봄 3월에 경도(집안)에 우박이 내렸다. 가을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이 죽었다. 8월에 매화<sup>54)</sup>가 피었다.

春三月 京都雨雹 秋七月 隕霜殺穀 八月 梅花發

(대무신왕 24년/ 양 4.20.~5.19.; 8.16.~10.13./ 고2)

### 45년

여름 5월 나라 동쪽<sup>55)</sup>에 큰물<sup>56)</sup>이 나서 백성들이 굶주리자 창고를 열어 구제(진휼)하였다.

夏五月 國東大水 民饑 發倉賑給 (민중왕 2년/ 양 6.4.~7.3./ 고2)

50)《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오로라' 기록이다. 양흥진 등(양흥진, 박창범, 박명구, 1998, <고려시대의 흑점과 오로라 기록에 보이는 태양활동주기>, 《천문학논총》13)에 의하면 오로라는 기(氣), 침(祲), 운(雲) 등으로 기록되어, BC 35년의 기록을 최초로 보아 오로라 기록을 12건으로 뽑았으나, 본고에서는 이 중 운(雲), 성(星) 등을 제외하여 7건이라 하였다.

51)땅이 갈라지는 현상은 지진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1966년 10월 15일부터 경상북도 군위군에 지열현상이 나타났는데, 당시 조사단은 일종의 산사태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산등허리의 지반이 암반에 얽혀 균형을 유지해 오다가 서로의 중량에 못 이겨 셀층이 미끄러져 지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동아일보 1966년 10월 20일 기사).

52)《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큰물(大水)' 기록이다. '홍수'의 뜻으로 재해와 관련되며, '홍수'란 용어는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었다.

53)이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주금(酒禁) 기록이다. 일반적으로 술을 빚을 때 곡식이 많이 사용됨으로 개인적으로 술 빚는 것을 금지하였다.

54)매화나무(매실나무)의 꽃은 남한에서 이른 봄(2~4월, 10℃ 이상)에 일보다 먼저 핀다. 당시 수도인 국내성(國內城: 현재 중국의 길림성 집안현)에서 관찰한 것으로 이해된다.

55)구체적인 지명이 없다. 수도(국내성)를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으로 이해된다.

56)같은 해 중국에도 큰물이 있었으며, 《후한서》7에서 확인된다. "군국 모두에 큰물이 나서 백성들이 굶주렸다(郡國皆大水 百姓飢饉)."



57)《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산사태' 기록이다.

58)《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바람' 기록이다.

59)자궁(紫宮). 3원 중 중원으로 하늘의 북극을 중심으로 한 넓은 구역을 말하며, 혹은 그 주체가 되는 별자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중국의 《후한서》〈광무제기〉<sup>1</sup>에서도 확인된다.

60)구체적인 지명이 없으며, 수도(국내성)인 중국 집안 이남 지역으로 이해된다.

61)혁거세거서간 60년 기사와 비슷하다. 유리이사금은 다음해 10월에 죽었다.

### 46년

겨울 11월에 혜성이 남쪽에 나타났다가 20일 만에야 없어졌다. 12월에 경도(집안)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

冬十一月 星孛于南 二十日而滅 十二月 京都無雪

(민중왕 3년/ 양 12.17.~2.13./ 고2)

### 48년

가을 8월에 큰물이 나서 산이 20여 군데 무너졌다.<sup>57)</sup>

秋八月 大水 山崩二十餘所 (모본왕 원년/ 양 8.28.~9.26./ 고2)

### 49년

3월에 폭풍<sup>58)</sup>으로 나무가 뽑혔다. 여름 4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렸다.

가을 8월에 사신을 보내 나라 안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진휼)하였다.

三月 暴風拔樹 夏四月 殞霜雨雹 秋八月 發使賑恤國內饑民

(모본왕 2년/ 양 4.22.~6.19.; 9.16.~10.15./ 고2)

### 54년

봄 2월에 혜성이 자미원(紫微垣) 안에 나타났다.<sup>59)</sup>

春二月 星孛于紫宮 (유리이사금 31년/ 양 2.27.~3.27./ 신1)

### 55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春夏 旱 (다루왕 28년/ 백1)

가을 8월에 나라 남쪽<sup>60)</sup>에서 황충이 생겨 곡식에 해가 있었다.

秋八月 國南蝗害穀 (태조대왕 3년/ 양 9.11.~10.9./ 고3)

### 56년

여름 4월에 용이 금성(金城)의 우물에서 나타났는데, 얼마 있다가 폭우(暴雨)가 서북쪽에서 왔다.<sup>61)</sup> 5월에 큰 바람(大風)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夏四月 龍見金城井 有頃 暴雨自西北來 五月 大風拔木

(유리이사금 33년/ 양 5.4.~7.1./ 신1)



토함산에 있는 석굴암 석굴

## 59년

봄 3월에 왕이 토함산<sup>62)</sup>에 올라갔는데, 검은 구름이 덮개(일산)와 같이 왕의 머리 위에 떠서 오래 있다가 흩어졌다.<sup>63)</sup> 6월에 혜성이 천선(天船)<sup>64)</sup> 별자리에 나타났다.

春三月 王登吐含山 有玄雲如蓋 浮王頭上 良久而散 (中略) 六月 有星孛于天船 (탈해이사금 3년/ 양 4.2.~4.30.; 6.30~7.28./ 신1)

가을 7월 경도(집안)에 큰물이 나서 백성들의 집이 떠내려가고 물에 잠겼다.

秋七月 京都大水 漂沒民屋 (태조대왕 7년/ 양 7.29.~8.27./ 고3)

## 62년

가을 8월 나라 남쪽에서 황충이 날아와<sup>65)</sup> 곡식을 해쳤다.

秋八月 國南飛蝗害穀 (태조대왕 10년/ 양 9.23.~10.21./ 고3)

## 64년

12월에 지진<sup>66)</sup>이 났다. 눈이 내리지 않았다.

十二月 地震 無雪 (탈해이사금 8년/ 양 12.28.~1.25./ 신1)

62)경북 경주시 불국동과 양북면 사이에 있는 산이다. 신라는 동악(東嶽)이라 하여 호국의 진산(鎭山)으로 신성시하였으며, 높이 745m이고, 주변에 불국사, 석굴암이 있다.

63)탈해가 토함산을 올라갔을 때 검은 구름이 머문 것은 왕의 상서로움을 보이기 위한 수식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탈해는 동악(東岳: 토함산)의 신으로 모셔졌다(《삼국유사》 기이2, 탈해왕).

64)천선은 28수 중 17번째 영역인 위수(胃宿)에 속한다.

65)대륙의 초원지대에서 발생하여 하늘을 가릴 만큼 떼를 이루어 집단이동을 하는 메뚜기떼. 풀무치(Locusta migratoria)가 여기에 속한다(백운하, 1976,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황해자료>, 《규장각》1).

66)지진을 관측한 곳은 경주 지역으로 이해된다. 《삼국사기》에는 지열(地裂), 지동(地動), 지진(地震) 등의 용어가 나온다. 조선시대의 《서운관지》에 따르면 "빠른 것을 지동이라 하고, 느린 것을 지진이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시간과 발생 방향을 적는다고 하였다(《서운관지》 권1, 번규).

67) 중국의 《후한서》〈오행지〉18 '영평(永平) 16년 5월 무오'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68) 월(月)이나 계절이 나와 있지 않다.

69) 큰 바람이 불고 문이 무너진 것은 왕의 죽음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68년

겨울 10월에 천둥이 쳤다.

冬十月 雷 (태조대왕 16년/ 양 11.14.~12.13./ 고3)

### 72년

여름 4월에 경도(집안)에 가뭄이 들었다.

夏四月 京都旱 (태조대왕 20년/ 양 5.7.~6.4./ 고3)

### 73년

여름 5월 그믐 무오에 일식이 있었다.<sup>67)</sup>

夏五月 戊午晦 日有食之 (다루왕 46년/ 양 7.23./ 백1)

### 75년

크게 가뭄<sup>68)</sup> 백성이 굶주렸으므로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구제(진휼)하였다.

大旱 民饑 發倉賑給 (탈해이사금 19년/ 신1)

### 77년

11월에 경도(집안)에 눈이 석 자(3尺)나 내렸다.

十一月 京都雪三尺 (태조대왕 25년/ 양 12.5.~1.2./ 고3)

### 79년

봄 2월에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고, 또 북쪽에도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없어졌다.

春二月 慧星見東方 又見北方 二十日乃滅  
(탈해이사금 23년/ 양 3.22.~4.20./ 신1)

### 80년

여름 4월 경도(경주)에 큰 바람이 불었고, 금성 동쪽 문이 저절로 무너졌다.<sup>69)</sup>  
가을 8월에 왕이 죽었다.

夏四月 京都大風 金城東門自壞 秋八月 王薨  
(탈해이사금 24년/ 양 5.9.~6.6./ 신1)

## 82년

봄 정월에 영을 내려 말하였다. “지금 창고는 텅 비었고 병기는 무디어져 있다. 만약 수재(水災)나 한재(旱災)가 있거나 국경에 갑작스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막겠는가? 담당 관청에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하고 병기를 단련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토록 하라.”<sup>70)</sup>

春正月 下令曰 今倉廩空匱 戎器頑鈍 儻有水旱之災 邊鄙之警 其何以禦之 宜令有司 勸農桑 練兵革 以備不虞 (파사이사금 3년/ 양 2.17.~3.18./ 신1)

## 84년

크게 풍년<sup>71)</sup>이 들어 먼 길 가는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大有年 行者不費糧 (파사이사금 5년/ 신1)

## 85년

여름 4월에 객성(客星)<sup>72)</sup>이 자미원(紫微垣) 안에 들어갔다.<sup>73)</sup>

夏四月 客星入紫微 (파사이사금 6년/ 양 5.13.~6.10./ 신1)

여름 4월 을사에 객성이 자미원 안에 들어갔다.

夏四月 乙巳 客星入紫微 (기루왕 9년/ 양 6.1.<sup>74)</sup>/ 백1)

## 87년

가을 8월 그믐 을미에 일식이 있었다.<sup>75)</sup>

秋八月 乙未晦 日有食之 (기루왕 11년/ 양 10.15./ 백1)

## 89년

여름 6월에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민가를 함몰시키니 죽은 사람이 많았다.

夏六月 地震裂陷民屋 死者多 (기루왕 13년/ 양 6.27.~7.25./ 백1)

70)삼국시대에는 한재(旱災)와 수재(水災)가 빈번하였다. 나라에서는 기우제, 양곡 구휼 외에 저수지·제방 축조 등의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삼국사기》에 제방수리 기사가 많은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용수(用水)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장권열, 1989, 〈삼국시대 이전의 농업재해와 대책〉, 《한국작물학회지》34).

71)《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풍년 기록’이다.

72)신성(新星)이나 초신성(超新星) 같이 갑자기 하늘에 보이는 천체. 꼬리가 없고 위치 변화가 불분명한 혜성에도 붙여진다.

73)중국의 《후한서》〈천문지〉11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원화 2년 4월 정사 새벽에 객성이 동쪽에서 나타났다. 위수 8도에 있었고 길이는 3척이었다. 각도를 지나 자미원 안에 들어갔다(元和二年 四月丁巳客星 晨出東方 在胃八度 長三尺 歷觀道入紫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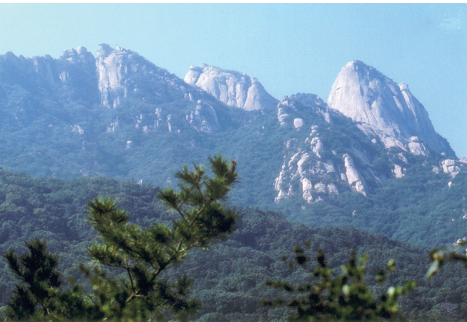
74)《삼국시대 연력표》에 따르면 을사(乙巳)는 없고 기사(己巳)가 있다. 이 날짜는 기사일(음 4.20.)을 양력으로 산정한 것이다.

75)중국의 《후한서》〈속종효장제기〉3 ‘장화(章和) 원년 8월 을미’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76)같은 해 중국에도 가뭄이 있었으며, 《북후고금주》에서 확인된다. “군국 14곳이 가물었다(郡國十四旱).”

77)중국의 《후한서》〈효화효상제기〉4 ‘영원(永元) 4년 6월 무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78)현재 서울에 있는 삼각산(三角山: 북한산의 다른 이름)으로 추정된다.



백제의 횡악으로 추정되는 삼각산

### 90년

봄 3월에 크게 가물어<sup>76)</sup> 보리 수확이 없었다. 여름 6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春三月 大旱 無麥 夏六月 大風拔木  
(기루왕 14년/ 양 4.18.~5.17.; 7.16.~8.13./ 백1)

### 92년

여름 6월 초하루 무술에 일식이 있었다.<sup>77)</sup>

夏六月 戊戌朔 日有食之 (기루왕 16년/ 양 7.23./ 백1)

### 93년

가을 8월에 횡악(橫岳)<sup>78)</sup>의 큰 돌 다섯 개가 동시에 떨어졌다.

秋八月 橫岳大石五 一時隕落 (기루왕 17년/ 양 9.9.~10.8./ 백1)

겨울 10월 경도(경주)에 지진이 났다.

冬十月 京都地震 (파사이사금 14년/ 양 11.7.~12.6./ 신1)

### 96년

가을 7월에 폭풍이 남쪽에서 불어 금성 남쪽의 큰 나무가 뽑혔다.

秋七月 暴風自南 拔金城南大樹 (파사이사금 17년/ 양 8.7.~9.5./ 신1)

### 98년

여름 4월에 경도(경주)에 가뭄이 들었다.

夏四月 京都旱 (파사이사금 19년/ 양 5.19.~6.17./ 신1)

### 99년

가을 8월에 서리가 내려 콩을 해쳤다. 겨울 10월에 우박이 내렸다.

秋八月 隕霜殺菽 冬十月 雨雹 (기루왕 23년/ 양 9.4.~10.2.; 11.2.~11.30./ 백1)

### 100년

가을 7월에 우박이 내려 날던 새가 맞아 죽었다. 겨울 10월에 경도(경주)에 지진이 나서 민가가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생겼다.

秋七月 雨雹 飛鳥死 冬十月 京都地震 倒民屋有死者

(파사이사금 21년/ 양 8.23.~9.20.; 11.20.~12.18./ 신1)



## 102년

겨울 10월에 복숭아와 자두(오얏)가 꽃을 피웠다.<sup>79)</sup>

冬十月 桃李華 (파사이사금 23년/ 양 10.29.~11.27./ 신1)

79)복숭아나무(복사나무)와 자두나무(오얏나무)는 원래 4~5월경 꽃이 잎보다 먼저 피며, 당시 이상기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04년

봄 정월에 많은 별들이 비 오듯이 떨어졌으나 땅에는 이르지 않았다.<sup>80)</sup>

春正月 衆星隕如雨 不至地 (파사이사금 25년/ 양 2.14.~3.13./ 신1)

80)유성우(流星雨) 현상으로 추측된다. 유성우는 수많은 유성체가 동시에 지구대기로 진입하여 빗줄기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 105년

2월에 경도(경주)에 눈이 석 자(3尺)나 내렸다.

二月 京都雪三尺 (파사이사금 26년/ 양 3.4.~4.1./ 신1)

## 107년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冬 無氷 (기루왕 31년/ 백1)

## 108년

여름 5월에 큰물이 나서 백성이 굶주렸다.

夏五月 大水 民飢 (파사 이사금 29년/ 양 5.28.~6.25./ 신1)

봄에 크게 가물었고, 여름이 되자 농작물을 거둘 수 없는 땅(赤地)이 되어 백성들이 굶주리므로 왕이 사자를 보내어 구휼하였다.

春 大旱 至夏赤地 民饑 王發使賑恤 (태조대왕 56년/ 고3)

봄과 여름에 가물어<sup>81)</sup> 흉년이 드니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春夏 旱 年饑 民相食 (기루왕 32년/ 백1)

81)같은 해 여름 중국에도 가뭄이 있었으며, 《후한서》〈추가전〉에서 확인된다. “여름에 가물어 오래 빌었으나 응답이 없었다(夏旱久禱無應).”

## 109년

가을 7월 황충이 곡식을 해쳤다. 왕이 산천에 두루 제사지내어 빌었더니, 황해가 없어지고 풍년이 들었다.

秋七月 蝗害穀 王遍祭山川 以祈禳之 蝗滅 有年

(파사이사금 30년/ 양 8.14.~9.11./ 신1)



유성우

## 111년

봄 3월에 지진이 났다. 겨울 10월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春三月 地震 冬十月 又震

(기루왕 35년/ 양 3.28.~4.25.; 11.19.~12.17./ 백1)

5월부터 가을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自五月 至秋七月 不雨 (파사이사금 32년/ 양 6.24.~9.20./ 신1)

## 114년

봄 3월에 일식이 있었다.<sup>82)</sup>

春三月 日有食之 (태조대왕 62년/ 양 4.23.~5.21./ 고3)

봄 3월에 우박이 내려 보리 싹이 상하였다. 여름 4월에 큰물이 났다.

春三月 雨雹 麥苗傷 夏四月 大水 (지마이사금 3년/ 양 4.23.~6.20./ 신1)

## 116년

봄 3월에 일식이 있었다.<sup>83)</sup> 겨울 12월에 눈이 다섯 자(5尺)나 내렸다.

春三月 日有食之 冬十二月 雪五尺

(태조대왕 64년/ 양 3.31.~4.29.; 117.1.21.~2.18./ 고3)

6월에 큰 비가 열흘이나 내렸다. 한강의 물이 넘쳐 민가가 떠내려가고 허물어졌다.

六月 大雨浹旬 漢江水漲 漂毀民屋 (기루왕 40년/ 양 6.28.~7.27./ 백1)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 가야<sup>84)</sup>를 침입케 하였다. 왕은 정예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뒤따랐는데, 가야는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고 있었다. 마침 오랫동안 비가 내려 결국 되돌아 왔다.

秋八月 遣將侵加耶 王帥精兵一萬以繼之 加耶嬰城固守 會久雨乃還

(지마이사금 5년/ 양 8.26.~9.24./ 신1)

## 118년

봄 2월에 지진이 났다. 가을 7월에 황충과 우박이 곡식을 해쳤다.

春二月 地震 (中略) 秋七月 蝗雹害穀

(태조대왕 66년/ 양 3.10.~4.8.; 8.5.~9.2./ 고3)

82) 중국의 《후한서》〈효안제기〉5에는 '원초(元初) 원년 3월 계유'에 일식이 있었다고 한다.

83) 중국의 《후한서》〈효안제기〉5에는 '원초(元初) 3년 3월 신해'에 일식이 있었다고 한다.

84) 가야(加耶)는 기원 전후 낙동강 하류 지역인 경상도 서부 지역에 위치하였던 연맹 왕국이다. 대체로 532년까지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그 이후 562년까지는 고령의 대가야가 주도권을 잡았으나, 신라(진흥왕 23년)에 의해 멸망하였다.

## 120년

봄 2월에 큰 별이 월성<sup>85)</sup> 서쪽에 떨어졌는데, 그 소리가 천둥치는 것과 같았다. 3월에 경도(경주)에 역병이 크게 번졌다.

春二月 大星墜月城西 聲如雷 三月 京都大疫 (지마이사금 9년/ 양 3.17.~5.14./ 신1)

## 122년

여름 4월에 큰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아갔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쳤다. 가을 7월에 황충이 날아와 곡식을 해치니 흉년이 들고 도둑이 많았다.

夏四月 大風東來 折木飛瓦 至夕而止 (中略) 秋七月 飛蝗害穀 年饑多盜  
(지마이사금 11년/ 양 5.24.~6.21.; 8.20.~9.18./ 신1)

## 123년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5월에 금성 동쪽의 민가(民家)가 함몰하여 연못이 되고 연이 자라났다.

夏四月 隕霜 五月 金城東民屋 陷爲池 芙蓉生  
(지마이사금 12년 / 양 5.13.~7.10./ 신1)

## 124년

가을 9월 그믐 경신에 일식이 있었다.<sup>86)</sup>

秋九月 庚申晦 日有食之 (지마이사금 13년/ 양 10.25./ 신1)

가을 9월 그믐 경신에 일식이 있었다. 11월에 경도(집안)에 지진이 났다.

秋九月 庚申晦 日有食之 (中略) 十一月 京都地震  
(태조대왕 72년/ 양 10.25.; 12.24.~1.21./ 고3)

## 127년

가을 7월 초하루 갑술에 일식이 있었다.<sup>87)</sup>

秋七月 甲戌朔 日有食之 (지마이사금 16년/ 양 8.25./ 신1)

85)경북 경주 인왕동에 있는 월성으로 이해된다(박방룡, 1985, <도성·성지>, 《한국사론》 15, 국사편찬위원회). 경주의 월성은 모양이 반달 같다 하여 반월성(半月城), 신월성(新月城)이라고도 하며, 101년(파사왕 22년)에 쌓았다고 전한다.



경주 월성

86)중국의 《후한서》〈효안제기〉5 '연광(延光) 3년 9월 경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87)중국의 《후한서》〈효순효충효질제기〉6 '영건(永建) 2년 7월 갑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88)꼬리가 특별히 긴 혜성으로, 점성에서는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

89)같은 해 1월 중국에도 지진이 있었으며,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한 영건 3년 정월 초 6일 한양(감숙성 감고현)에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었으며,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았다(东汉永建三年 正月初六 汉阳地震 屋坏杀人 地坼涌水出).” (国家地震局震害防御司, 1995, 《中国历史强震目录》, 地震出版社).

90)중국의 《후한서》〈천문지〉11에서도 확인된다. 남두육성(南斗六星), 28수 중 8번째 영역인 두수(斗宿)에 속하며 6개의 별로 구성되었다.

91)말갈은 6세기 이후 중국 동북지방에 살던 이민족을 말한다. 2세기의 사실을 전하는 본 기사의 말갈은 함경남도와 경기도, 강원도 일부에 흩어져 있던 동예(東濊) 세력으로 보인다(유원재, 1979, 〈삼국사기 위말갈고〉, 《사학연구》29).

92)중국의 《후한서》〈효순효충효질제기〉6 ‘영화(永和) 6년 9월 신해’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93)현재 중국의 길림성 집안현에 있는 산성자산성(山城子山城)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 128년

가을 8월에 장성(長星)<sup>88)</sup>이 하늘에 뻗었다. 겨울 10월에 나라의 동쪽에 지진<sup>89)</sup>이 났다. 11월에 천둥이 쳤다.

秋八月 長星竟天 冬十月 國東地震 十一月 雷

(지마이사금 17년/ 양 9.12.~10.11.; 11.10.~1.7./ 신1)

### 131년

여름 5월에 큰 비가 내려 민가가 떠내려가고 물에 잠기기도 하였다.

夏五月 大雨 漂沒民戶 (지마이사금 20년/ 양 6.13.~7.12./ 신1)

### 134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春夏 旱 (지마이사금 23년/ 신1)

### 137년

가을 8월 경자에 형혹(화성)이 남두(南斗)를 범하였다.<sup>90)</sup>

秋八月 庚子 熒惑犯南斗 (개루왕 10년/ 양 9.27./ 백1)

### 139년

가을 7월에 서리가 내려 콩을 해쳤다. 겨울 10월에 또 (말갈<sup>91)</sup>) 쳐들어왔으나 눈이 심하게 내려 물러갔다.

秋七月 隕霜殺菽 (中略) 冬十月 又來 雪甚 乃退

(일성이사금 6년/ 양 8.13.~9.10.; 11.9.~12.8./ 신1)

### 141년

가을 9월 그믐 신해에 일식이 있었다.<sup>92)</sup>

秋九月 辛亥晦 日有食之 (일성이사금 8년/ 양 11.16./ 신1)

### 142년

가을 9월 환도(丸都)<sup>93)</sup>에 지진이 났다.

秋九月 丸都地震 (태조대왕 90년/ 양 10.8.~11.5./ 고3)

## 143년

여름 6월 을축에 형혹(화성)이 진성(토성)을 범하였다.<sup>94)</sup> 겨울 11월에 천둥이 쳤다.

夏六月 乙丑 熒惑犯鎮星 冬十一月 雷

(일성이사금 10년/ 양 7.23.; 12.25.~1.22./ 신1)

## 144년

봄 2월에 영을 내렸다.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고 먹을 것은 백성이 오로지 하늘로 여기는 것이다. 여러 주(州)와 군(郡)은 제방<sup>95)</sup>을 수리하고 논밭과 들판을 널리 개간하라.”

春二月 下令 農者政本 食惟民天 諸州郡修完堤坊 廣闢田野

(일성이사금 11년/ 양 3.22.~4.20./ 신1)

## 145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는데,<sup>96)</sup> 남쪽 지방이 가장 심하여 백성이 굶주렸다.

春夏 旱 南地最甚 民飢 (일성이사금 12년/ 신1)

## 147년

11월에 지진이 났다.

十一月 地震 (차대왕 2년/ 양 12.11.~1.8./ 고3)

## 149년

여름 4월 그믐 정묘에 일식이 있었다.<sup>97)</sup> 5월에 다섯 행성<sup>98)</sup>이 동쪽에 모였다. 일자(日者)<sup>99)</sup>가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이것은 임금의 덕이요 나라의 복입니다.”라고 속여서 고하였다. 왕은 기뻐하였다. 겨울 12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夏四月 丁卯晦 日有食之 五月 五星聚於東方 日者畏王之怒 誣告曰 是君之德也 國之福也 王喜 冬十二月 無冰

(차대왕 4년/ 양 6.23.; 6.24.~7.22.; 150.1.16.~2.14./ 고3)

8월에 혜성이 천시원(天市垣)<sup>100)</sup> 안에 나타났다. 겨울 11월에 천둥이 쳤고, 경도(경주)에 역병<sup>101)</sup>이 크게 번졌다.

八月 有星孛于天市 冬十一月 雷 京都大疫

(일성이사금 16년/ 양 9.20.~10.19.; 12.18.~1.15./ 신1)

94) 중국의 《후한서》〈천문지〉11에서도 확인된다.

95) 1968년 경북 영천시에서 신라가 저수지를 축조하고 중수한 사실을 담은 영천 청제비(永川菁堤碑)가 발견되었다. 비석에는 신라 법흥왕 23년(536년)으로 추정되는 병진(丙辰)이라는 간지와 신라 원성왕 14년(798년)인 정원(貞元) 14년이라는 연호가 기록되어 있다.

96) 같은 해 여름 중국에도 가물이 있었으며, 《후한서》〈오행지〉에서 확인된다. “여름에 가물었다(夏旱).”

97) 중국의 《후한서》〈효환제기〉7 '건화(建和) 3년 4월 정묘'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98) 5성(五星)은 오위(五緯)라고도 하며, 진성(辰星, 수성)·태백성(太白星, 금성)·형혹성(熒惑星, 화성)·세성(歲星, 목성)·진성(鎮星, 토성)이다.

99) 일자(日者)는 천문을 관측할 뿐만 아니라 별들의 동정(動靜)에 따라 인간사의 길흉(吉凶)을 말해주는 점성(占星)도 수행하였다(신종원, 1980, 〈고대 일관의 성격〉, 《한국민속학》 12).

100) 천시원(天市垣)은 방수, 심수, 미수, 기수, 두수의 북쪽 구역이다. 서양의 별자리인 뱀주인자리와 뱀자리 등이 포함되는 영역이다. 중국의 《후한서》〈천문지〉12에서도 확인된다.

101) 보통 돌림병, 유행병으로 풀이되며, 어떤 인구집단에서 예견되는 빈도 이상으로 일어나는 질병을 의미한다. 중세 유럽에서 유행한 흑사병이나 현대의 에이즈가 이런 것들로, 단일한 실체가 아니므로 과거 역병의 구체적인 병명은 그 증상으로부터 추론할 수 밖에 없다(권복규, 2000, 〈조선전기의 역병 유행에 관하여〉, 《한국사론》 43, 서울대 국사학과).



### 150년

여름 4월부터 비가 내리지 않다가, 가을 7월에 이르러 비가 내렸다.

自夏四月 不雨 至秋七月 乃雨 (일성이사금 17년/ 양 5.14.~6.12.; 8.11.~9.9./ 신1)

### 151년

3월에 우박이 내렸다.

三月 雨雹 (일성이사금 18년/ 양 4.4.~5.3./ 신1)

### 153년

여름 6월에 서리가 내렸다. 겨울 12월에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났다.

그믐에 객성이 달을 범하였다.

夏六月 隕霜 冬十二月 雷 地震 晦 客星犯月

(차대왕 8년/ 양 7.9.~8.7.; 154.1.2.~1.31./ 고3)

겨울 10월에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고, 또 동북쪽에도 나타났다.

冬十月 彗星見東方 又見東北方 (일성이사금 20년/ 양 11.4.~12.3./ 신1)

### 155년

봄 정월 그믐 병신에 일식이 있었다.<sup>102)</sup>

春正月 丙申晦 日有食之 (개루왕 28년/ 양 3.20.<sup>103)</sup>/ 백1)

### 156년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夏四月 隕霜 (아달라이사금 3년/ 양 5.8.~6.5./ 신2)

### 158년

봄 2월에 혜성이 북두(北斗)에 나타났다. 여름 5월 그믐 갑술에 일식이 있었다.<sup>104)</sup>

春二月 星孛于北斗 夏五月 甲戌晦 日有食之

(차대왕 13년/ 양 3.18.~4.15.; 7.13./ 고3)

102)개루왕 28년 정월 그믐은 병신일이 아니며, 38년 정월이 병신일이다. 《삼국사절요》에 ‘三十八’로 기록된 것을 참조하면 원래 28년이 아닌 38년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 박창범 연구에 의하면 155년 3월 20일 근처에 전혀 일식이 일어나지 않았고, 165년 2월 28일 일식이 일어났다. 중국의 《후한서》〈오행지〉18 ‘연희(延熹) 8년(165년) 정월 병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수록되어 있으나 연도에 차이가 있다.

103)《삼국시대 연력표》에 따르면 봄 정월 그믐은 계해(癸亥)가 되어 본문과 차이가 있다.

104)중국의 《후한서》〈오행지〉18 ‘연희(延熹) 원년 5월 갑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경주 북천의 현재 모습. 《삼국사기》의 '일천'으로 추정된다.

### 160년

여름 4월에 폭우로 알천(闕川)<sup>105</sup>의 물이 넘쳐 집들이 떠내려갔다.

夏四月 暴雨 闕川水溢 漂流人家

(아달라이사금 7년/ 양 5.23.~6.21./ 신2)

105)현재의 경주시 북천(北川) 혹은 남천(南川)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 161년

가을 7월 곡식에 황충이 곡식을 해쳤고, 바다 고기가 많이 물 밖으로 나와 죽었다.

秋七月 蝗害穀 海魚多出死 (아달라이사금 8년/ 양 8.9.~9.7./ 신2)

### 165년

봄 정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sup>106</sup>

春正月晦 日有食之 (차대왕 20년/ 양 2.28./ 고3)

106)이 기사는 고구려에서 관측된 것으로 구체적인 간지가 나와 있지 않으나, 박창범은 백제 개루왕 38년(165년) 기록과 같은 날 관측한 것으로 풀이했다(주석 102번 참조). 중국의 《후한서》〈오행지〉18 '연희(延熹) 8년 정월 병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 166년

봄 정월 초하루 신해에 일식이 있었다.<sup>107</sup>

春正月 辛亥朔 日有食之 (아달라이사금 13년/ 양 2.18.<sup>108</sup>/ 신2)

107)중국의 《후한서》〈오행지〉18 '연희(延熹) 9년 정월 신묘'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 170년

봄 3월 그믐 병인에 일식이 있었다.<sup>109</sup>

春三月 丙寅晦 日有食之 (초고왕 5년/ 양 5.3./ 백1)

108)《삼국시대 연력표》에 따르면 정월 초하루는 신묘(辛卯)일이다.

109)중국의 《후한서》〈오행지〉18 '건녕(建寧) 3년 3월 병인'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가을 7월에 경사(경주)에 지진이 났다.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다.

秋七月 京師地震 霜雹害穀 (아달라이사금 17년/ 양 7.31.~8.29./ 신2)

### 171년

봄에 곡식이 귀하여 백성들이 굶주렸다.

春 穀貴民飢 (아달라이사금 18년/ 신2)

### 172년

2월 경도(경주)에 역병이 크게 번졌다.

二月 京都大疫 (아달라이사금 19년/ 양 3.13.~4.10./ 신2)

### 174년

봄 정월에 흄이 비처럼 떨어졌다.<sup>110)</sup> 2월에 가물어 우물과 샘이 말랐다.

春正月 雨土 二月 旱 井泉渴

(아달라이사금 21년/ 양 2.20.~4.19./ 신2)

### 178년

겨울 10월 그믐 병자에 일식이 있었다.<sup>111)</sup>

冬十月 丙子晦 日有食之 (신대왕 14년/ 양 11.27./ 고4)

### 182년

봄 3월 갑인 밤에 붉은 기운이 태미원(太微垣)에 뻗었는데 마치 뱀과 같았다. 가을 7월에 혜성이 태미원 안에 나타났다.<sup>112)</sup>

春三月 甲寅夜 赤氣貫於太微如蛇 秋七月 星孛于太微

(고국천왕 4년/ 양 8.17.~9.15.<sup>113)</sup>/ 고4)

### 184년<sup>114)</sup>

(별후)왕은 바람과 구름을 점쳐 큰물과 가뭄, 그해의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았다.<sup>115)</sup>

王占風雲 預知水旱及年之豐儉 (별후이사금 내력부문<sup>116)</sup>/ 신2)

110)《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황사' 기록이다. 황사는 이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기록되었다(전영신, 2000,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황사 현상>, 《한국기상학회지》36-2).

111)중국의 《후한서》〈오행지〉18 '광화(光和) 원년 10월 병자'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12) 중국의 《후한서》〈영제기〉8에서도 확인된다.

113)《삼국시대 연력표》에 따르면 3월 초하루는 정사(丁巳)일이며 양력으로는 4월 21일이다. 정사(丁巳)부터 간지를 계산하면 갑인(甲寅)일이 없게 되어 양력일은 적지 않았다.

114)별후왕의 내력을 적은 부분으로 특별한 연도가 없어 즉위년인 184년에 수록하였다.

115)동양에서 정치지도자는 하늘을 관측하고 일기(日氣)를 알아 농업 활동시기를 정해야 했으며, 이러한 전통은 후대에 이어져 통치자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鄭文光, 2000, 《中國天文學源流》, 萬卷樓圖書有限公司).

116)내력부문은 왕의 연대 기사에 앞서, 왕의 가계와 즉위 과정을 서술한 부분이다. 내력부문에는 원년(즉위년, 1년)의 기사가 실리기도 한다.

## 186년

여름 4월 을묘에 형혹(熒惑)이 심성을 지켰다. 5월 그믐 임진에 일식이 있었다.<sup>117)</sup>

夏四月 乙卯 熒惑守心 五月 壬辰晦 日有食之  
(고국천왕 8년/ 양 5.28.; 7.4./ 고4)

여름 5월 그믐 임진에 일식이 있었다.

夏五月 壬辰晦 日有食之 (별휴이사금 3년/ 양 7.4./ 신2)

겨울 10월에 구름은 없이 천둥만 쳤고, 혜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없어졌다.

冬十月 無雲而雷 星孛于西北 二十日而滅  
(초고왕 21년/ 양 10.31.~11.28./ 백1)

## 187년

여름 5월에 왕도(서울)의 우물과 한수(漢水)가 모두 말랐다.

夏五月 王都井及漢水皆竭 (초고왕 22년/ 양 6.24.~7.23./ 백1)

겨울 10월 북쪽 지방에 큰 눈이 내려 한 길(丈)이나 쌓였다.

冬十月 北地大雪 深一丈 (별휴이사금 4년/ 양 11.19.~12.17./ 신2)

## 189년

여름 4월 초하루 병오에 일식이 있었다.<sup>118)</sup>

夏四月 丙午朔 日有食之 (초고왕 24년/ 양 5.3./ 백1)

## 190년

가을 9월에 경도(집안)에 눈이 여섯 자(6尺)나 내렸다.

秋九月 京都雪六尺 (고국천왕 12년/ 양 10.17.~11.14./ 고4)

## 191년

가을 9월에 치우기(蚩尤旗)<sup>119)</sup>가 각(角)<sup>120)</sup>과 항(亢)<sup>121)</sup> 별자리에 나타났다.

秋九月 蚩尤旗見于角亢 (별휴이사금 8년/ 양 10.6.~11.4./ 신2)

117)중국의 《후한서》〈오행지〉18 '중평(中平) 3년 5월 임진'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18)중국의 《후한서》〈오행지〉18 '중평(中平) 6년 4월 병오'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19)치우기(蚩尤旗)는 혜성과 비슷하나 뒤쪽이 깃발 모양으로 굽은 것이다. 본 기사는 〈백제 본기〉와 《후한서》 '초평(初平) 2년 9월' 기사에도 실려 있다.

120)각성(角星), 28수의 첫 번째 별자리 영역인 각수(角宿)이며, 각수에 있는 각(角) 별자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각수의 기준별은 처녀자리 알파(α) 별이다.

121)28수의 둘째 별자리 영역인 항수(亢宿) 혹은 항수에 있는 항(亢) 별자리를 가리킨다. 기준별은 처녀자리 카파(κ) 별이다. 중국의 《후한서》〈현제기〉9에서도 확인된다.

122)원문의 '三'은 《삼국사기》 주자본에는 '四'로, 《삼국사절요》에는 '三'으로 기록되었다.

123)중국의 《후한서》〈오행지〉18 '초평(初平) 4년 정월 갑인'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24)중국의 《후한서》〈오행지〉18 '흥평(興平) 원년 6월 을사'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가을 9월에 치우기가 각과 항 별자리에 나타났다.  
秋九月 蚩尤旗見于角亢 (초고왕 26년/ 양 10.6.~11.4./ 백1)

### 192년

3월 경도(경주)에 눈이 내리니 깊이가 석 자였다. 여름 5월에 큰물이 나서 산 10여 곳이 무너졌다.

三<sup>122)</sup>月 京都雪 深三尺 夏五月 大水 山崩十餘所  
(별휴이사금 9년/ 양 3.31.~4.29.; 5.29.~6.27./ 신2)

### 193년

봄 정월 초하루 갑인에 일식이 있었다.<sup>123)</sup>

春正月 甲寅朔 日有食之 (별휴이사금 10년/ 양 2.19./신2)

### 194년

여름 6월 그믐 을사에 일식이 있었다.<sup>124)</sup>

夏六月 乙巳晦 日有食之 (별휴이사금 11년/ 양 8.4./ 신2)

가을 7월에 선리가 내려 곡식을 해쳐서 백성들이 굶주렸다.

秋七月 墮霜殺穀 民饑 (고국천왕 16년/ 양 8.5.~9.2./ 고4)

### 196년

3월에 가물었다. 여름 4월에 궁궐 남쪽의 큰 나무에 벼락이 쳤다. 또 금성 동쪽 문에 벼락이 쳤다. 왕이 죽었다.

三月 旱 夏四月 震宮南大樹 又震金城東門 王薨  
(별휴이사금 13년/ 양 4.16.~6.13./ 신2)

이해 정월부터 4월까지 비가 오지 않다가 왕이 즉위하는 날에 큰 비가 내렸으므로 백성들이 기뻐서 경축하였다.

是年 自正月至四月 不雨 及王即位之日 大雨 百姓歡慶  
(나해이사금 내력부문/ 양 2.17.~6.13./ 신2)

### 198년

5월 나라 서쪽에 큰물이 났다.

五月 國西大水 (나해이사금 3년/ 양 6.22.~7.21./ 신2)



## 199년

가을 7월에 지진이 났다.

秋七月 地震 (초고왕 34년/ 양 8.10.~9.7./ 백1)

## 200년

가을 7월에 태백(금성)이 낮에 나타났고 서리가 내려 풀이 죽었다. 9월 초하루 경오에 일식이 있었다.<sup>125)</sup>

秋七月 太白晝見 隕霜殺草 九月 庚午朔 日有食之  
(나해이사금 5년/ 양 7.29.~8.27.; 9.26./ 신2)

125) 중국의 《후한서》〈오행지〉18 '건안(建安) 5년 9월 경오'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 201년

3월 초하루 정묘에 일식이 있었다.<sup>126)</sup> 크게 가물었으므로 중앙과 지방의 옥에 갇힌 죄수를 조사하여 가벼운 죄는 용서해 주었다.

三月 丁卯朔 日有食之 大旱 錄內外繫囚 原輕罪  
(나해이사금 6년/ 양 4.21.<sup>127)</sup>/ 신2)

126) 중국의 《후한서》〈효헌제기〉9 '건안(建安) 6년 3월 정묘'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27) 《삼국시대 연력표》에 따르면 3월 초하루는 정묘(丁卯)가 아닌 정유(丁酉)이며, 양력으로 4월 21일이다. 이 책에서는 2월 초하루가 정묘(丁卯)이며, 양력으로는 3월 22일이고 일식이 있었다고 표기하였다.

## 203년

겨울 10월에 복숭아와 자두(오얏)가 꽃을 피웠다. 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걸렸다.

冬十月 桃李華 人大疫 (나해이사금 8년/ 양 11.22.~12.20./ 신2)

## 204년

겨울 10월에 혜성이 동정(東井)<sup>128)</sup> 별자리에 나타났다.<sup>129)</sup>

冬十月 星孛于東井 (초고왕 39년/ 양 11.10.~12.9./ 백1)

128) 동정은 28수의 22번째 별자리인 정수(井宿)를 말한다. 기준별은 쌍둥이자리인 묘(♊) 별이다.

129) 중국의 《후한서》〈천문지〉11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건안 9년 11월 혜성이 동정과 여귀 별자리에 있었다(建安) 九年十一月 有星孛于東井 與鬼."

## 205년

가을 7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다. 태백(금성)이 달을 범하였다.

秋七月 霜雹殺穀 太白犯月 (나해이사금 10년/ 양 8.3~9.1.<sup>130)</sup>/ 신2)

130) 박창범의 연구에 따르면 태백(금성)이 달을 침범한 현상이 205년 9월 4일(양력)에 일어났다고 한다.

가을 7월에 태백이 달을 범하였다.

秋七月 太白犯月 (초고왕 40년/ 양 8.3.~9.1./ 백1)

## 208년

가을에 황해(蝗害)가 생기고 가물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였다.

秋 蝗 旱 穀不順成 (초고왕 43년/ 백1)

## 209년

겨울 10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冬十月 大風拔木 (초고왕 44년/ 양 11.15.~12.14./ 백1)

## 210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春夏 旱 (나해이사금 15년/ 신2)

## 211년

가을 8월에 나라 남쪽에서 황충이 곡식을 해쳐 백성들이 굶주렸다.

겨울 11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秋八月 國南蝗害穀 民饑 冬十一月 無冰

(초고왕 46년/ 양 8.27.~9.24.; 12.23.~1.20./ 백1)

## 212년

여름 5월에 큰 비가 내려 민가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졌다.

夏五月 大雨 漂毀民屋 (나해이사금 17년/ 양 6.17.~7.16./ 신2)

여름 6월 그믐 경인에 일식이 있었다.<sup>131)</sup>

夏六月 庚寅晦 日有食之 (초고왕 47년/ 양 8.14./ 백1)

## 214년

봄 3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부러졌다. 겨울 12월에 천둥이 쳤다.

春三月 大風折木 (中略) 冬十二月 雷

(나해이사금 19년/ 양 3.29.~4.26.; 215.1.18.~2.16./ 신2)

## 217년

겨울 10월에 천둥과 지진이 나고, 혜성이 동북쪽에 나타났다.<sup>132)</sup>

冬十月 雷 地震 星孛于東北 (산상왕 21년/ 양 11.17.~12.15./ 고4)

131) 중국의 《후한서》 '건안(建安) 17년 6월 경인'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32) 중국의 《후한서》 〈헌제기〉9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건안 22년 겨울 혜성이 동북쪽에 있었다(建安) 二十二年 冬 有星孛于東北."

## 219년

봄 2월 그믐 임자에 일식이 있었다.<sup>133)</sup>

春二月 壬子晦 日有食之 (산상왕 23년/ 양 4.2./ 고4)

## 221년

여름 5월 나라 동쪽(國東)<sup>134)</sup>에 큰물이 나서 산 40여 곳이 무너졌다.

6월 그믐 무진에 일식이 있었다.<sup>135)</sup>

夏五月 國東大水 山崩四十餘所 六月 戊辰晦 日有食之  
(구수왕 8년/ 양 6.8.~7.7.; 8.5./ 백2)

## 222년

봄 2월 담당 관청에 명령하여 제방을 수리하게 하였다. 3월에 영을 내려 농사를 권장하였다. 여름 6월 왕도(서울)에 물고기가 비에 섞여 떨어졌다. 11월 그믐 경신에 일식이 있었다.<sup>136)</sup>

春二月 命有司修隄防 三月 下令勸農事 夏六月 王都雨魚 (中略) 十一月 庚申晦 日有食之 (구수왕 9년/ 양 3.1.~4.28.; 6.27.~7.25.; 223.1.19./ 백2)

여름 4월 우박이 내려 콩과 보리를 해쳤다.

夏四月 雹傷菽麥 (나해이사금 27년/ 양 4.29.~5.27./ 신2)

## 224년

겨울 10월에 태백(금성)이 낮에 나타났다.

冬十月 太白晝見 (구수왕 11년/ 양 10.30.~11.28./ 백2)

## 226년

봄에 비가 내리지 않다가 가을 7월에 이르러서야 비가 내렸다. 백성이 굶주렸으므로 창고의 곡식을 풀어 구제(진휼)하였다.

春 不雨 至秋七月 乃雨 民飢 發倉廩賑給 (나해이사금 31년/ 양 8.11.~9.9./ 신2)

## 227년

봄 3월에 우박이 내렸다. 여름 4월에 크게 가물자 왕이 동명묘(東明廟)<sup>137)</sup>에 빌었더니 곧 비가 내렸다.

春三月 雨雹 夏四月 大旱 王祈東明廟 乃雨 (구수왕 14년/ 양 4.4.~6.1./ 백2)

133)중국의 《후한서》〈효헌제기〉9 '건안(建安) 24년 2월 임자'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34)《삼국사기》〈백제본기〉 온조왕 13년(BC 6년) 기사에 따르면 나라의 국경이 동쪽으로는 주양(走壤: 지금의 춘천)에 이르렀다. 구수왕 때 나라의 동쪽은 태백산맥을 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35)중국의 《삼국지》〈위서〉2 '황초(黃初) 2년 6월 무진'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36)중국의 《삼국지》〈위서〉2 '황초(黃初) 3년 11월 경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37)온조왕은 백제를 건국한 원년(BC 18년)에 시조의 묘인 동명묘를 건립하였다.



## 229년

가을 9월에 지진이 났다. 겨울 10월에 큰 눈이 내리니 깊이가 다섯 자였다.

秋九月 地震 冬十月 大雪 深五尺

(나해이사금 34년/ 양 10.6.~12.3./ 신2)

11월에 역병이 크게 번졌다.

十一月 大疫 (구수왕 16년/ 양 12.4.~1.1./ 백2)

## 231년

여름 4월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밤(栗)만 하여 참새같이 작은 새들이 맞아 죽었다.

夏四月 雨雹 大如栗 鳥雀中者死

(구수왕 18년/ 양 5.19.~6.17./ 백2)

## 233년

여름 4월에 큰 바람이 불어 지붕의 기와를 날렸다.

夏四月 大風飛屋瓦 (조분이사금 4년/ 양 4.27.~5.26./ 신2)

## 237년

가을 8월 황충이 곡식을 해쳤다.

秋八月 蝗害穀 (조분이사금 8년/ 양 9.8.~10.6./ 신2)

## 238년

여름 4월 왕궁 문기둥에 벼락<sup>138)</sup>이 치자 황룡이 문에서 날아갔다.

夏四月 震王宮門柱 黃龍自其門飛出

(고이왕 5년/ 양 5.2.~5.31./ 백2)

## 239년

봄 정월에 비가 오지 않다가 여름 5월에 이르러서야 비가 왔다.

春正月 不雨 至夏五月 乃雨

(고이왕 6년/ 양 2.21.~3.22.; 6.19.~7.18./ 백2)

138)같은 해 중국에도 벼락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진서》〈오행지〉에서 확인된다. “경초 연중에 낙양성 동쪽 다리, 성 서쪽 낙수부교, 환영 세 곳에 같은 날 모두 벼락이 쳤다(景初中 洛陽城東橋 城西洛水浮橋 桓楹同日三處俱時震).”

## 242년

가을에 큰 풍년이 들었다.

秋 大有年 (조분이사금 13년/ 신2)

## 246년

여름에 크게 가물어 보리 수확이 없었다.

夏 大旱 無麥 (고이왕 13년/ 백2)

겨울 10월에 동남쪽에 흰 기운이 있었는데 마치 한 필의 비단 같았다.

11월 경도(경주)에 지진이 났다.

冬十月 東南有白氣如匹練 十一月 京都地震

(조분이사금 17년/ 양 10.28.~12.25./ 신2)

## 248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겨울에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창고를 열어 구제(진휼)하였다.

春夏 旱 冬 民饑 發倉賑恤 (고이왕 15년/ 백2)

## 249년

봄 정월 갑오에 태백(금성)이 달을 범하였다.<sup>139)</sup>

春正月 甲午 太白襲月 (고이왕 16년/ 양 2.5./ 백2)

139) 중국의 《진서》〈천문지〉2에서도 확인된다.

## 253년

5월부터 7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조묘(祖廟)와 명산에 빌며 제사 지내니<sup>140)</sup> 얼마 안 있어 비가 왔다. 이해에 흉년이 들고 도적이 많았다.

自五月至七月 不雨 禱祀祖廟及名山 乃雨 年饑 多盜賊

(첨해이사금 7년/ 양 6.14.~9.10./ 신2)

140) 기우제의 한 형태로 조묘와 명산에 제사를 지냈다. 이외에도 시장(市場)을 옮기거나 용을 만들어 비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기우 의례가 있다.

## 254년

가을 7월에 지진이 났다.

秋七月 地震 (중천왕 7년/ 양 8.2.~8.30./ 고5)

141) 이 기록은 중국의 사서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 등에는 없다.

## 256년

겨울 10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sup>141)</sup>

冬十月晦 日有食之 (첨해이사금 10년/ 양 12.4./ 신2)

12월에 눈이 내리지 않았고 역병이 크게 돌았다.

十二月 無雪 大疫 (중천왕 9년/ 양 257.1.4.~2.1./ 고5)

## 257년

봄 정월에 크게 가뭄이 나무들이 모두 말랐다.

春正月 大旱 樹木皆枯 (고이왕 24년/ 양 2.2.~3.3./ 백2)

## 259년

가을 7월에 가뭄이 들고 황해(蝗害)가 있었다. 이해에 흉년이 들고 도적이 많았다.

秋七月 旱蝗 年荒 多盜 (첨해이사금 13년/ 양 8.7.~9.4./ 신2)

가을 9월에 청자(靑紫)색의 구름이 왕궁 동쪽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누각과 같았다.

秋九月 靑紫雲起宮東 如樓閣 (고이왕 26년/ 양 10.5.~11.2./ 백2)

## 260년

여름에 큰 비가 내려 산 40여 곳이 무너졌다. 가을 7월에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다가 25일 만에 없어졌다.

夏 大雨 山崩四十餘所 秋七月 星孛于東方 二十五日而滅

(첨해이사금 14년/ 양 7.26.~8.24./ 신2)

## 262년

겨울 11월에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났다.

冬十一月 雷 地震 (중천왕 15년/ 양 11.29.~12.28./ 고5)



## 268년

봄과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신하들을 남당(南堂)에 모아놓고 왕이 직접 정치와 형벌 시행의 잘잘못을 물었다.

春夏 不雨 會群臣於南堂 親問政刑得失 (미추이사금 7년/ 신2)

## 269년

가을 9월에 혜성이 자미원에 나타났다.<sup>142)</sup>

秋九月 星孛于紫宮 (고이왕 36년/ 양 10.13.~11.10./ 백2)

142)중국의 《진서》〈천문지〉3에서도 확인된다.

## 271년

겨울 12월에 지진이 났다.

冬十二月 地震 (서천왕 2년/ 양 272.1.18.~2.15./ 고5)

## 272년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려 보리를 해쳤다. 6월에 크게 가물었다.

夏四月 隕霜害麥 六月 大旱

(서천왕 3년/ 양 5.15.~6.12.; 7.13.~8.10./ 고5)

가을 7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다.

秋七月 霜雹害穀 (미추이사금 11년/ 양 8.11.~9.9./ 신2)

## 273년

가을 7월 초하루 정유에 일식이 있었다. 백성들이 굶주렸다.<sup>143)</sup>

秋七月 丁酉朔 日有食之 民饑 (서천왕 4년/ 양 8.1./ 고5)

143)중국의 《진서》〈천문지〉12 '태시(泰始) 9년 7월 정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 278년

여름 4월에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夏四月 暴風拔木 (미추이사금 17년/ 양 5.9.~6.7./ 신2)

## 280년

여름 4월에 가물었다.

夏四月 旱 (미추이사금 19년/ 양 5.16.~6.14./ 신2)

### 286년

3월에 가물었다.

三月 旱 (유레이사금 3년/ 양 4.11.~5.10./ 신2)

### 288년

9월에 지진이 났다.

九月 地震 (서천왕 19년/ 양 10.12.~11.10./ 고5)

### 290년

여름 5월에 큰물이 나서 월성(月城)이 무너졌다.

夏五月 大水 月城頽毀 (유레이사금 7년/ 양 5.26.~6.24./ 신2)

### 292년

가을 7월에 가물었고 황해(蝗害)가 있었다.

秋七月 旱蝗 (유레이사금 9년/ 양 7.31.~8.29./ 신2)

가을 9월에 지진이 났다.

秋九月 地震 (봉상왕 원년/ 양 9.28.~10.27./ 고5)

### 298년

봄 2월에 경도(경주)에 안개가 짙게 끼어 사람을 분별할 수가 없었는데 5일 만에 걷혔다.

春二月 京都大霧 不辨人 五日而霽 (유레이사금 15년/ 양 2.28.~3.29./ 신2)

가을 9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치니 백성들이 굶주렸다.

秋九月 霜雹殺穀 民饑 (봉상왕 7년/ 양 10.22.~11.20./ 고5)

### 299년

가을 9월에 객성이 달을 범하였다. 겨울 12월에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났다.

秋九月 客星犯月 冬十二月 雷 地震  
(봉상왕 8년/ 양 10.12.~11.9.; 300.1.8.~2.6./ 고5)

### 300년

봄 정월에 지진이 났다. 2월부터 가을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 드니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春正月 地震 自二月至秋七月 不雨 年饑 民相食  
(봉상왕 9년/ 양 2.7.~3.6.; 3.7.~8.30./ 고5)

(미천왕 원년: 300) 겨울 10월에 누런 안개가 끼어 사방이 막혔다. 11월에 바람이 서북쪽으로부터 불어와서 6일 동안이나 모래를 날리고 돌을 굴렀다. 12월에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다.<sup>144)</sup>

冬十月 黃霧四塞 十一月 風從西北來 飛砂走石六日 十二月 星孛于東方  
(미천왕 내력부문/ 양 10.30.~1.25./ 고5)

144)중국의 《진서》〈혜제기〉4에서도 확인된다.

### 302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春夏 旱 (기림이사금 5년/ 신2)

여름 4월에 혜성이 낮에 나타났다.<sup>145)</sup>

夏四月 彗星晝見 (분서왕 5년/ 양 5.14.~6.11./ 백2)

145)중국의 《진서》〈혜제기〉4에서도 확인된다.

### 304년

가을 8월에 지진으로 샘물이 솟았다. 9월에 경도(경주)에 지진이 나서 민가가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

秋八月 地震 泉湧 九月 京都地震 壞民屋有死者  
(기림이사금 7년/ 양 9.16.~11.13./ 신2)

### 308년

봄 정월 초하루 병자에 일식이 있었다.<sup>146)</sup>

春正月 丙子朔 日有食之 (비류왕 5년/ 양 2.8.<sup>147)</sup>/ 백2)

146)중국의 《진서》〈천문지〉12 '영가(永嘉) 2년 정월 병오' 기사에 일식 기록이 있다.

147)《삼국시대 연력표》를 보면 308년 정월 초하루는 '병자'가 아닌 '병오'일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이날을 '병오'일로 보고 양력을 변환하였다.

### 313년

가을 7월에 가물었고 황해(蝗害)가 있었다. 백성들이 굶주렸다.

秋七月 旱蝗 民飢 (홀해이사금 4년/ 양 8.8.~9.6./ 신2)



### 314년

2월에 궁궐을 다시 수리하다가 비가 내리지 않자 중지하였다.

二月 重修宮闕 不雨乃止 (흠해이사금 5년/ 양 3.3.~3.31./ 신2)

### 315년

가을 8월에 혜성이 동북쪽에 나타났다.

秋八月 星孛于東北 (미천왕 16년/ 양 9.15.~10.14./ 고5)

### 316년

봄에 가물었다. 큰 별이 서쪽으로 흘러갔다. 여름 4월에 왕도(서울)의 우물물이 넘치더니 검은 용이 그 속에서 나타났다.

春 旱 大星西流 夏四月 王都井水溢 黑龍見其中

(비류왕 13년/ 양 5.8.~6.6./ 백2)

### 317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sup>148)</sup>

春夏 旱 (흠해이사금 8년/ 신2)

### 318년

봄 2월에 영을 내렸다. “지난번에 가물의 재해로 농사가 순조롭지 않았다. 지금은 땅이 기름지고 생기가 일었다. 농사가 이제 시작되니 백성을 수고스럽게 하는 일은 모두 중지하라.”

春二月 下令 向以旱災 年不順成 今則土膏脉起 農事方始 凡所勞民之事 皆停之 (흠해이사금 9년/ 양 3.19.~4.16./ 신2)

### 321년

가을 7월에 태백(금성)이 낮에 나타났다. 나라 남쪽<sup>149)</sup>에 황충이 곡식을 해쳤다.

秋七月 太白晝見 國南蝗害穀 (비류왕 18년/ 양 8.10.~9.7./ 백2)

### 325년

겨울 10월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풍랑(風浪)이 서로 부딪치는 것과 같았다.

冬十月 天有聲 如風浪相激 (비류왕 22년/ 양 11.22.~12.21./ 백2)

148)같은 해 6월 중국에도 가물이 있었으며, 《수신기》7에서 확인된다. “6월에 양주가 크게 가물었다(六月 揚州大旱).”

149)(삼국사기) 온조왕 13년(BC 6년) 기사에 따르면 나라의 국경이 남쪽으로는 웅천(熊川, 현재의 충남 공주 주변으로 추정)에 이르렀다고 한다.

### 327년

가을 7월에 붉은 까마귀와 같은 구름이 해를 끼고 있었다.

秋七月 有雲如赤鳥夾日 (비류왕 24년/ 양 8.4.~9.2./ 백2)

### 330년

처음으로 벽골지(碧骨池)<sup>150)</sup>를 만들었는데, 둑의 길이가 1,800보였다.

始開碧骨池 岸長一千八百步 (흠해이사금 21년/ 신2)

### 331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어선<sup>151)</sup> 풀과 나무가 마르고 강물이 말랐다. 가을 7월에 이르러서야 비가 왔다. 이해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 먹었다.

春夏 大旱 草木枯 江水竭 至秋七月乃雨 年饑 人相食

(비류왕 28년/ 양 8.20.~9.17./ 백2)

### 333년

여름 5월에 별이 떨어졌다.<sup>152)</sup> 왕궁에 불이 나서 민가까지 연달아 태웠다. 겨울 12월에 천둥이 쳤다.

夏五月 星隕 王宮火 連燒民戶 (中略) 冬十二月 雷

(비류왕 30년/ 양 5.30.~6.28.; 334.1.22.~2.19./ 백2)

### 334년

겨울 12월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

冬十二月 無雪 (고국원왕 4년/ 양 335.1.11.~2.9./ 고6)

### 335년

가을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

秋七月 隕霜殺穀 (고국원왕 5년/ 양 8.6.~9.3./ 고6)

겨울 10월 초하루 을미에 일식이 있었다.<sup>153)</sup>

冬十月 乙未朔 日有食之 (비류왕 32년/ 양 11.2./ 백2)

150)벽골제(碧骨堤)이며, 전북 김제시 부량면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이다. 이 당시 김제는 백제의 땅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벽골지는 백제 비류왕 27년(330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병도, 1977, 《국역 삼국사기》).

151)같은 해 4월 중국에도 가뭄이 있었으며, 《진서》〈성제기〉에서 확인된다. “4월에 가물었다(四月 旱).”

152)중국의 《진서》〈오행지〉18에서도 확인된다.



벽골제(전북 김제)

153)중국의 《진서》〈천문지〉12 ‘함강(咸康) 원년 10월 을미’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54) 중국의 《진서》〈성제기〉7에서도 확인된다. 규(奎)는 28수 중 15번째 별자리 영역인 규수(奎宿) 혹은 규수에 있는 규(奎) 별 자리를 가리킨다. 기준별은 안드로메다 제타(ζ) 별이다.

### 336년

봄 정월 신사에 혜성이 규(奎)에 나타났다.<sup>154)</sup>

春正月 辛巳 彗星見于奎 (비류왕 33년/ 양 2.16./ 백2)

봄 3월에 큰 별이 서북쪽으로 흘러갔다.

春三月 大星流西北 (고국원왕 6년/ 양 3.29.~4.26./ 고6)

### 337년

3월에 우박이 내렸다.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三月 雨雹 夏四月 隕霜 (홀해이사금 28년/ 양 4.17.~6.14./ 신2)

### 343년

겨울 11월에 눈이 다섯 자나 내렸다.

冬十一月 雪五尺 (고국원왕 13년/ 양 12.3.~1.1./ 고6)

### 344년

여름 4월에 폭풍이 불어 궁궐 남쪽의 큰 나무가 뽑혔다.

夏四月 暴風 拔宮南大樹 (홀해이사금 35년/ 양 4.29.~5.28./ 신2)

### 348년

궁궐의 우물물이 갑자기 넘쳤다.

宮井水暴溢 (홀해이사금 39년/ 신2)

### 350년

여름 4월에 큰 비가 열흘 동안이나 내렸다. 평지에 물이 서너 자나 되었고, 관청과 민가가 물에 잠기고 떠내려갔으며 산 13곳이 무너졌다.

夏四月 大雨浹旬 平地水三四尺 漂沒官私屋舍 山崩十三所

(홀해이사금 41년/ 양 5.23.~6.20./ 신2)

### 358년

봄 2월 자주빛 구름<sup>155)</sup>이 묘당 위에 둥글게 서렸고 신비스러운 새들이 묘의 뜰에 모여들었다.

春二月 紫雲盤旋廟上 神雀集於廟庭 (나물이사금 3년/ 양 2.25.~3.25./ 신3)

155) 자주빛 구름은 덕이 후한 왕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는 상서로운 구름으로 여겼으며, 채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 366년

여름 4월에 큰물이 나서 산 13곳이 무너졌다.

夏四月 大水 山崩十三所 (나물이사금 11년/ 양 4.26.~5.25./ 신3)

### 368년

봄 3월 초하루 정사에 일식이 있었다.<sup>156)</sup>

春三月 丁巳朔 日有食之 (근초고왕 23년/ 양 4.4./ 백2)

156) 중국의 《진서》〈천문지〉12 '태화(太和) 3년 3월 정사'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 372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다.

春夏 大旱 年荒民飢 (나물이사금 17년/ 신3)

가을 7월에 지진이 났다.<sup>157)</sup>

秋七月 地震 (근초고왕 27년/ 양 8.16.~9.13./ 백2)

157) 같은 해 같은 달 중국에도 지진이 있었으며,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진 함안 2년, 7월 서녕(청해성 서녕) 50일 동안 땅이 10번 움직이고, 땅이 갈라졌으며, 토성이 붕괴되었다(东晋咸安二年七月西宁50日中地10动地裂土楼(山)崩).”(国家地震局震害防御司, 1995, 《中国历史强震目录》, 地震出版社.)

### 373년

여름 5월에 경도(경주)에 물고기가 비에 섞여 떨어졌다.

夏五月 京都雨魚 (나물이사금 18년/ 양 6.7.~7.6./ 신3)

### 375년

왕이 다시 군사를 크게 일으켜 (고구려에) 보복하려 하였으나 흉년이 들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王又將大舉兵報之 以年荒不果 (근초고왕 30년/ 백2)

### 376년

크게 풍년이 들었다.

大有年 (나물이사금 21년/ 신3)

### 377년

겨울 10월에 눈은 내리지 않고 천둥이 쳤다. 백성들이 역병에 걸렸다.

冬十月 無雪雷 民疫 (소수림왕 7년/ 양 11.17.~12.16./ 고6)

158) 중국의 진(晉)은 서진(西晉: 265년~317년)과 동진(東晉: 317년~420년)으로 나뉘며, 당시 백제는 서해를 통해 건강(建康: 처음에는 건업 建業이라고 불렀고 313년부터 건강이 됨, 지금의 남경)을 수도로 하는 동진에 조공하였다.

159) 봄을 음력 1월부터 산정하여 나온 값이다.

### 378년

가뭄이 들고 백성들이 굶주려 서로 잡아먹었다.

旱 民饑相食 (소수림왕 8년/ 고6)

### 379년

봄 3월에 사신을 진(晉)<sup>158)</sup>나라에 보내 조공하려는데 사신이 바다에서 모진 바람을 만나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여름 4월에 하루 종일 흠이 비처럼 떨어졌다.

春三月 遣使朝晉 其使海上遇惡風 不達而還 夏四月 雨土竟日

(근구수왕 5년/ 양 4.3.~5.31./ 백2)

### 380년

역병이 크게 번졌다. 여름 5월에 땅이 갈라져 깊이 다섯 길, 너비 세 길이나 되었는데 3일 만에 합쳐졌다.

大疫 夏五月 地裂 深五丈橫廣三丈 三日乃合

(근구수왕 6년/ 양 6.19.~7.18./ 백2)

### 381년

봄과 여름에 가뭄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다.

春夏 旱 年荒民飢 (나물이사금 26년/ 신3)

### 382년

봄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6월까지 계속되었다. 백성들이 굶주렸다.

春 不雨至六月 民饑 (근구수왕 8년/ 양 1.31.~7.26.<sup>159)</sup>/ 백2)

### 383년

가을 9월에 혜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다.

秋九月 星孛于西北 (소수림왕 13년/ 양 10.13.~11.10./ 고6)

### 384년

봄 2월에 햇무리가 세 겹으로 둘러졌다.

春二月 日有暈三重 (근구수왕 10년/ 양 3.9.~4.6./ 백2)

### 385년

12월에 지진이 났다.

十二月 地震 (고국양왕 2년/ 양 386.1.17.~2.14./ 고6)

### 386년

가을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

秋七月 隕霜害穀 (진사왕 2년/ 양 8.11.~9.9./ 백3)

겨울 10월에 복숭아와 자두(오얏)가 꽃을 피웠다.

冬十月 桃李華 (고국양왕 3년/ 양 11.8.~12.7./ 고6)

### 388년

여름 4월에 경도(경주)에 지진이 났다. 6월에 또 지진이 났다.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夏四月 京都地震 六月 又震 冬 無冰  
(나물이사금 33년/ 양 5.22.~6.20.; 7.20.~8.18./ 신3)

여름 4월에 크게 가물었다. 가을 8월에 황해(蝗害)가 있었다.

夏四月 大旱 秋八月 蝗 (고국양왕 5년/ 양 5.22.~6.20.; 9.17.~10.16./ 고6)

### 389년

봄 정월에 경도(경주)에 역병이 크게 번졌다. 2월에 흄이 비처럼 떨어졌다. 가을 7월에 황해(蝗害)가 있었고 곡식이 여물지 않았다.

春正月 京都大疫 二月 雨土 秋七月 蝗 穀不登  
(나물이사금 34년/양 2.12.~4.11.; 8.8.~9.6./ 신3)

봄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春饑 人相食 (고국양왕 6년/ 고6)

### 390년

가을 7월에 혜성이 북하(北河)<sup>160</sup> 별자리에 나타났다.

秋七月 星孛于北河 (진사왕 6년/ 양 7.28.~8.26./ 백3)

160)북하는 28수 중 22번째 영역인 정수(井宿)에 속하는 3개의 별이다. 서양의 쌍둥이 자리의 머리에 해당한다. 중국의 《진서》〈효무제기〉9에서도 확인된다.



161) 중국의 《진서》 '태원(太元) 17년 5월 정묘'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 392년

여름 5월 초하루 정묘에 일식이 있었다.<sup>161)</sup>

夏五月 丁卯朔 日有食之 (진사왕 8년/ 양 6.7./ 백3)

### 394년

가을 7월에 태백(금성)이 낮에 나타났다.

秋七月 太白晝見 (아신왕 3년/ 백3)

### 395년

봄 2월에 혜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없어졌다. 겨울 11월에 왕은 (고구려에 패했던) 패수의 싸움을 보복하려고 친히 군사 7천 명을 거느리고 한수를 건너 청목령(靑木嶺)<sup>162)</sup> 아래에서 머물렀다. 큰 눈을 만나 병사들이 많이 얼어 죽자 군사를 돌렸다.

春二月 星孛于西北 二十日而滅 (中略) 冬十一月 王欲報涇水之役 親帥兵七千人 過漢水 次於靑木嶺下 會大雪 士卒多凍死 廻軍 (아신왕 4년/ 양 3.8.~4.5.; 11.29.~12.27./ 백3)

162) 현재 북한의 개성시 부근으로 추정된다.

### 397년

가을 7월에 북쪽 변방 하슬라(何瑟羅)<sup>163)</sup>에 가뭄이 들고 황해(蝗害)가 있어 흉년이 들고 백성들이 굶주렸다.

秋七月 北邊何瑟羅 旱蝗 年荒民飢 (나물이사금 42년/ 양 8.10.~9.7./ 신3)

163) 현재의 강원도 강릉 지역으로, 원래 고구려의 하서량군(河西良郡)이었으나 뒤에 신라에 속하였다.

### 398년

가을 8월에 왕이 장차 고구려를 치려고 군사를 내서 한산 북쪽의 목책<sup>164)</sup>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큰 별이 병영 안에 떨어져 소리가 났다. 왕이 이를 심히 꺼리어 (진군을) 중지하였다.

秋八月 王將伐高句麗 出師至漢山北柵 其夜 大星落營中有聲 王深惡之 乃止 (아신왕 7년/ 양 8.29.~9.26./ 백3)

164) 말뚝을 박은 나무 울타리.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성(城)의 역할을 했다.

### 399년

가을 7월에 비행(飛蝗)이 들판을 덮었다.

秋七月 飛蝗蔽野 (나물이사금 44년/ 양 8.18.~9.15./ 신3)

## 400년

봄 2월에 혜성이 규(奎)와 누(婁)<sup>165</sup> 별자리에 나타났다. 여름 6월 초하루 경진에 일식이 있었다.<sup>166</sup>

春二月 星孛于奎婁 夏六月 庚辰朔 日有食之

(아신왕 9년/ 양 3.12.~4.9.; 7.8./ 백3)

가을 8월에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다.

秋八月 星孛于東方 (나물이사금 45년/ 양 9.5.~10.3./ 신3)

## 401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sup>167</sup>

春夏 旱 (나물이사금 46년/ 신3)

## 402년

여름에 크게 가물어 모가 타서 말랐다. 왕이 친히 횡악(橫岳)에서 제사 지냈더니 곧 비가 왔다.

夏 大旱 禾苗焦枯 王親祭橫岳 乃雨 (아신왕 11년/ 백3)

## 405년

봄 3월에 흰 기운이 왕궁 서쪽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한 필의 비단 같았다.

春三月 白氣自王宮西起 如匹練 (아신왕 14년<sup>168</sup>/ 양 4.15.~5.14./ 백3)

가을 7월에 황해(蝗害)와 가물이 들었다.

秋七月 蝗旱 (광개토왕 15년/ 양 8.11.~9.9./ 고6)

## 406년

가을 7월에 나라 서쪽에 황충이 곡식을 해쳤다. 겨울 10월 경도(경주)에 지진<sup>169</sup>이 났다. 11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秋七月 國西蝗害穀 冬十月 京都地震 十一月 無氷

(실성이사금 5년/ 양 8.1.~8.29.; 10.28.~12.25./ 신3)

165)누는 28수의 16번째 별자리 영역인 누수(婁宿) 혹은 누수에 있는 누(婁) 별자리를 가리킨다. 기준별은 양자리 베타(β) 별이다. 중국의 《진서》〈안제기〉10에서도 확인된다.

166)중국의 《진서》〈천문지〉12 '용안(隆安) 4년 6월 경진'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67)같은 해 여름과 가을, 12월에 중국에도 가물이 있었으며, 《진서》〈오행지〉에서도 확인된다. “여름과 가을에 크게 가물었으며, 12월에 비가 오지 않았다(夏秋大旱 十二月 不雨).”

168)《삼국유사》〈왕력〉에는 아신왕이 1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169)같은 해 5월 중국에도 지진이 있었으며,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진 의희 2년, 5월 원천(감숙성 유충 하관영 일대)에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졌다. 온갖 풀이 모두 꺾였다(東晉義熙二年 五月 苑川地震裂 生毛 百草皆自反).”(國家地震局震害防禦司, 1995, 《中國歷史強震目錄》, 地震出版社).

170)경북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산으로 선덕여왕릉과 사천왕사 터가 있다.



경주 낭산

171)중국의 《송서》〈부서지〉17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의희 11년 5월 3일 혜성이 천시원에 나타났다(義熙十一年五月三日彗星出天市).”

172)중국의 《진서》〈천문지〉12 ‘의희(義熙) 13년 정월 갑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73)중국의 《진서》〈공제기〉10에서도 확인된다.

174)중국의 《진서》〈천문지〉12 ‘원희(元熙) 원년 11월 정해’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75)특별한 지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주 지역으로 추정된다.

### 413년

가을 8월에 구름이 낭산(狼山)<sup>170</sup>에서 일어났다. 바라보니 누각과 같았고 향기가 가득 퍼져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秋八月 雲起狼山 望之如樓閣 香氣郁然 久而不歇  
(실성이사금 12년/ 양 9.11.~10.10./ 신3)

### 414년

12월에 왕도(집안)에 눈이 다섯 자나 내렸다.

十二月 王都 雪五尺 (장수왕 2년/ 양 12.28.~1.25./ 고6)

### 415년

여름 5월 갑신에 혜성이 나타났다.<sup>171</sup>

夏五月甲申 彗星見 (전지왕 11년/ 양 6.24./ 백3)

### 416년

여름 5월에 토함산이 무너졌다. 샘물이 솟아올랐는데, 그 높이가 세 길이나 되었다.

夏五月 吐含山崩 泉水湧 高三丈 (실성이사금 15년/ 양 6.11.~7.10./ 신3)

### 417년

봄 정월 초하루 갑술에 일식이 있었다.<sup>172</sup> 여름 4월에 기물어서 백성들이 굶주렸다.

春正月 甲戌朔 日有食之 夏四月 旱 民饑 (전지왕 13년/ 양 2.3.; 5.2.~ 5.31./ 백3)

### 419년

봄 정월 무술에 혜성이 태미원 안에 나타났다.<sup>173</sup> 겨울 11월 초하루 정해에 일식이 있었다.<sup>174</sup>

春正月 戊戌 星孛于太微 冬十一月丁亥朔 日有食之  
(전지왕 15년/ 양 2.17.; 12.3./ 백3)

여름 4월에 우곡(牛谷)<sup>175</sup>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다.

夏四月 牛谷水湧 (눌지마립간 3년/ 양 5.10.~6.8./ 신3)



여름 5월에 나라의 동쪽에 큰물이 났다.

夏五月 國東大水 (장수왕 7년/ 양 6.9.~7.7./ 고6)

### 420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가을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 백성들이 굶주렸다.

春夏 大旱 秋七月 隕霜殺穀 民飢 (눌지마립간 4년/ 양 7.26.~8.24./ 신3)

### 424년

가을 9월에 크게 풍년이 들었다.

秋九月 大有年 (장수왕 12년/ 양 10.9.~11.6./ 고6)

### 429년

시제(矢堤)<sup>176)</sup>를 새로 쌓았는데 독의 길이가 2,170보였다.

新築矢堤 岸長二千一百七十步 (눌지마립간 13년/ 신3)

11월에 지진이 났고 큰 바람이 불어 기와를 날렸다. 12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十一月 地震 大風飛瓦 十二月 無冰 (비유왕 3년/ 양 12.12.~2.8./ 백3)

### 431년

가을 7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다.

秋七月 霜雹殺穀 (눌지마립간 15년/ 양 8.24.~9.22./ 신3)

### 432년

봄에 곡식이 귀하여 사람들이 소나무 껍질을 먹었다.

春 穀貴 人食松樹皮 (눌지마립간 16년/ 신3)

### 433년

봄과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았다.

春夏 不雨 (비유왕 7년/ 백3)

176)시제의 위치는 경주 주변 지역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통일신라에 와서야 수문(水門)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시제는 물이 필요할 때마다 제방을 허물어 물을 대는 결제(決堤) 형식이었을 것이다(이우태, 1992, <신라의 수리기술>, 《신라산업경제의 신연구》,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435년

봄 정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春正月 大風拔木 (눌지마립간 19년/ 양 2.14.~3.14./ 신3)

### 436년

여름 4월에 우박이 내렸다.

夏四月 雨雹 (눌지마립간 20년/ 양 5.2.~5.30./ 신3)

### 438년

여름 4월에 우두군(牛頭郡)<sup>177</sup>에 산골물(山水)이 갑자기 이르러 50여 채의  
집이 떠내려갔다. 경도(경주)에 큰 바람이 불었고 우박이 내렸다.

夏四月 牛頭郡山水暴至 漂流五十餘家 京都大風雨雹  
(눌지마립간 22년/ 양 5.10.~6.8./ 신3)

177)선덕여왕 6년(637년)에 우수주(牛首州)가 설치되었으며, 지금의 강원도 춘천지방이다.

### 440년

여름 4월 초하루 무오에 일식이 있었다.<sup>178)</sup>

夏四月 戊午朔 日有食之 (비유왕 14년/ 양 5.17./ 백3)

178)중국의 《송서》〈오행지〉24 '원가(元嘉) 17년 4월 무오'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 447년

여름 5월에 왕궁 남쪽 연못 가운데 불이 났는데 불꽃이 수레바퀴  
같았으며, 밤을 새서야 꺼졌다. 가을 7월에 가물어 곡식이 익지 않았다.  
백성들이 굶주려 신라로 들어간 자가 많았다.

夏五月 宮南池中有火 焰如車輪 終夜而滅 秋七月 旱 穀不熟 民饑 流入  
新羅者多 (비유왕 21년/ 양 5.31.~6.28.; 7.29.~8.26./ 백3)

### 453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春夏 旱 (눌지마립간 37년/ 신3)

### 454년

가을 7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다.

秋七月 霜雹害穀 (눌지마립간 38년/ 양 8.10.~9.7./ 신3)

별이 비처럼 떨어졌고 혜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는데 길이가 두 길 가량이었다. 가을 8월에 황충이 곡식을 해쳤고 기근이 들었다.

星隕如雨 星孛于西北 長二丈許 秋八月 蝗害穀 年饑

(비유왕 28년/ 양 9.8.~10.7./ 백3)

### 457년

봄 2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려 보리를 상하게 하였다.

春二月 大風拔木 夏四月 隕霜傷麥

(눌지마립간 41년/ 양 3.12.~4.9.; 5.10.~6.7./ 신3)

### 458년

봄 2월에 지진이 났고, 금성 남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春二月 地震 金城南門自毀 (눌지마립간 42년/ 양 3.1.~3.30./ 신3)

### 465년

여름 4월에 큰물이 나서 산 17곳이 무너졌다. 5월에 사벌군(沙伐郡)<sup>179)</sup>에 황해(蝗害)가 있었다.

夏四月 大水 山崩一十七所 五月 沙伐郡蝗 (자비마립간 8년/ 양 5.11.~7.8./ 신3)

179)고대 사벌국(沙伐國)이 있던 현재의 경북 상주 지역으로 추정된다.

### 467년

가을 9월에 하늘이 붉어졌고, 큰 별이 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흘러갔다.

秋九月 天赤 大星自北流東南 (자비마립간 10년/ 양 10.14.~11.12./ 신3)

### 468년

겨울 10월 초하루 계유에 일식이 있었다.<sup>180)</sup>

冬十月 癸酉朔 日有食之 (개로왕 14년/ 양 11.1./ 백3)

180)중국의 《송서》〈오행지〉24 '태시(泰始) 4년 10월 계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 469년

여름 4월에 나라 서쪽에 큰물이 나서 백성의 집들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졌다.

夏四月 國西大水 漂毀民戶 (자비마립간 12년/ 양 4.27.~5.26./ 신3)



181)개로왕은 고구려 장수왕의 밀사인 도림의 말에 속아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하였으며, 결국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졌다. 이해(475년) 개로왕은 장수왕의 침입을 받아 죽었으며, 아들 문주왕은 웅진(현재의 충남 공주)으로 수도를 옮겼다.



공주 공산성. 475년 새로운 백제의 수도가 된 웅진(공주)을 보호하였다.

182)백제의 새로운 수도인 웅진(지금의 충남 공주)에서 관측된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의 《위서》〈천상지〉에는 '태화(太和) 2년 2월 그믐 을유'로 기록되어 있다.

183)《삼국유사》〈왕력〉에서는 정사년(477년)에 즉위하여 2년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어 1년의 차이를 보인다.

184)같은 해 중국에도 유사한 기록이 있으며, 《위서》〈고조기〉에서 확인된다. "이해 백성들이 굶주려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다(是歲民飢開倉賑恤)."

## 471년

3월 경도(경주)에 땅이 갈라졌는데, 가로·세로가 두 길이었으며 탁한 물이 솟아올랐다. 겨울 10월에 역병이 크게 돌았다.

三月 京都地裂 廣袤二丈 濁水湧 冬十月 大疫

(자비마립간 14년/ 양 4.6.~5.5.; 10.30.~11.27./ 신3)

## 475년

(도림이 개로왕에게 말하길) 선왕의 해골은 맨 땅에 임시로 매장되어 있고, 백성의 집은 강물에 자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sup>181)</sup>

先王之骸骨 權攢於露地 百姓之屋廬 屢壞於河流 (개로왕 21년/ 백3)

## 478년

봄 2월 밤에 붉은 빛이 한 필의 비단처럼 땅에서 하늘까지 뻗었다. 겨울 10월에 경도(경주)에 지진이 났다.

春二月 夜赤光如匹練 自地至天 冬十月 京都地震

(자비마립간 21년/ 양 3.20.~4.18.; 11.11.~12.9./ 신3)

3월 초하루 기유에 일식이 있었다.<sup>182)</sup>

三月己酉朔 日有食之 (삼근왕 2년/ 양 4.19./ 백4)

## 479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春夏 大旱 (삼근왕 3년<sup>183)</sup>/ 백4)

## 480년

여름 5월에 경도(경주)에 가뭄이 들었다. 겨울 10월에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창고의 곡식을 내어 구제(진휼)하였다.<sup>184)</sup>

夏五月 京都旱 冬十月 民飢 出倉穀賑給之

(소지마립간 2년/ 양 5.25.~6.23.; 11.18.~12.17./ 신3)

## 482년

봄 2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금성 남문에 불이 났다. 여름 4월에 비가 오랫동안 내렸다.

春二月 大風拔木 金城南門火 夏四月 久雨  
(소지마립간 4년/ 양 3.6.~4.3.; 5.4.~6.1./ 신3)

겨울 10월에 눈이 크게 내려 한 길 남짓이나 쌓였다.

冬十月 大雪丈餘 (동성왕 4년/ 양 10.28.~11.25./ 백4)

## 483년

여름 4월에 큰물이 났다. 가을 7월에도 큰물이 났다. 11월에 천둥<sup>185)</sup>이 쳤고, 경도(경주)에 역병이 크게 번졌다.

夏四月 大水 秋七月 大水 (中略) 十一月 雷 京都大疫  
(소지마립간 5년/ 양 4.23.~5.22.; 8.19.~9.17.; 12.15.~1.13./ 신3)

185)같은 해 같은 달 중국에도 천둥 기록이 있으며, 《남사》〈제무제기〉에서 확인된다. “11월, 기묘일에 천둥이 쳤다(十一月 己卯 雷).”

## 484년

3월에 토성이 달을 범하였다. 우박이 내렸다.

三月 土星犯月 雨雹 (소지마립간 6년/ 양 4.11.~5.10./ 신3)

## 487년

겨울 10월에 천둥이 쳤다.

冬十月 雷 (소지마립간 9년/ 양 11.2.~11.30./ 신3)

## 489년

가을에 크게 풍년이 들었다.

秋 大有年 (동성왕 11년/ 백4)

## 490년

겨울 11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冬十一月 無氷 (동성왕 12년/ 양 11.28.~12.26./ 백4)



공주를 지나는 웅천(금강)과 공산성

186) 책가감선(責己減膳)이라 하여 나라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왕이 근신하고 책망하며 수라상의 음식 가짓수를 줄여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행위이다.

187)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해가 427년이므로, 이후 별도의 지명 없이 기록된 자료는 평양에서 관측된 것으로 이해된다.

188) 중국의 《위서》 '천상지 태화(太和) 18년 5월 갑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89) 《삼국시대 연력표》에 따르면 5월 초하루는 기사(己巳)로 양력 6월 9일이다. 갑술일은 6월 14일이다.

### 491년

여름 6월에 웅천(熊川)의 물이 넘쳐서 왕도(공주)의 200여 집이 떠내려가거나 물에 잠겼다. 가을 7월에 백성들이 굶주려 신라로 도망해 들어간 것이 600여 집이나 되었다.

夏六月 熊川水漲 漂沒王都二百餘家 秋七月 民饑 亡入新羅者 六百餘家 (동성왕 13년/ 양 6.23.~8.20./ 백4)

### 492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으므로 왕이 스스로를 책망하여 평상시에 먹던 반찬 가짓수를 줄였다.<sup>186)</sup>

春夏 旱 王責己減常膳 (소지마립간 14년/ 신3)

봄 3월에 눈이 내렸다. 여름 4월에 바람이 크게 불어 나무가 뽑혔다.

春三月 雪 夏四月 大風拔木 (동성왕 14년/ 양 4.13.~6.10./ 백4)

### 493년

겨울 10월에 지진이 났다.<sup>187)</sup>

冬十月 地震 (문자명왕 2년/ 양 10.26.~11.24./ 고7)

### 494년

여름 4월에 큰물이 났다.

夏四月 大水 (소지마립간 16년/ 양 4.21.~5.20./ 신3)

겨울 10월에 복숭아와 자두(오얏)가 꽃을 피웠다.

冬十月 桃李華 (문자명왕 3년/ 양 11.14.~12.12./ 고7)

### 495년

봄 2월에 크게 가물었다.

春二月 大旱 (문자명왕 4년/ 양 3.12.~4.10./ 고7)

여름 5월 초하루 갑술에 일식이 있었다.<sup>188)</sup>

夏五月 甲戌朔 日有食之 (동성왕 17년/ 양 6.9.<sup>189)</sup>/ 백4)



## 496년

여름 5월에 큰 비가 내렸다. 알천의 물이 넘쳐 집 200여 채가 떠내려가거나 물에 잠겼다.

夏五月 大雨 關川水漲 漂沒二百餘家 (소지마립간 18년/ 양 5.28.~6.26./ 신3)

## 497년

여름 6월에 큰 비가 내려 백성들의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졌다.

夏六月 大雨 漂毀民屋 (동성왕 19년/ 양 7.15.~8.13./ 백4)

가을 7월에 가물고 황해(蝗害)가 있었다.

秋七月 旱蝗 (소지마립간 19년/ 양 8.14.~9.12./ 신3)

## 499년

여름에 크게 가물어 백성이 굶주려 서로 잡아먹었다. 겨울 10월에 역병이 크게 돌았다.

夏 大旱 民饑相食 (中略) 冬十月 大疫 (동성왕 21년/ 양 11.19.~12.17./ 백4)

## 500년

여름 4월에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용이 금성의 우물에서 나타났다. 경도(경주)에 누런 색의 안개가 사방에 가득 끼었다.

夏四月 暴風拔木 龍見金城井 京都黃霧四塞  
(소지마립간 22년/ 양 5.14.~6.12./ 신3)

여름 4월에 우두성(牛頭城)<sup>190</sup>에서 사냥하였는데 우박을 만나 그만두었다. 5월에 가물었다.

夏四月 田於牛頭城 遇雨雹乃止 五月 旱 (동성왕 22년/ 양 5.14.~7.11./ 백4)

## 5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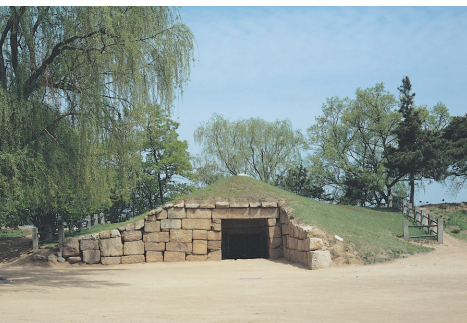
3월에 서리가 내려 보리를 해쳤다. 여름 5월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가을까지 계속되었다. 11월에 웅천 북쪽 벌판에서 사냥하였고, 또 사비<sup>191</sup>의 서쪽 벌판에서 사냥하였는데 큰 눈에 막혀 마포촌(馬浦村)에서 묵었다.

三月 降霜害麥 夏五月 不雨至秋 (中略) 十一月 獵於熊川北原 又田於泗泚西原 阻大雪 宿於馬浦村 (동성왕 23년/ 양 4.4.~5.2.; 6.2.~6.30.; 11.26.~12.25./ 백4)

190) 위치를 알 수 없다. 백제 시조 온조왕 때 강원도 춘천으로 추정되는 우두산성(牛頭山城)이 보이나, 동성왕 때 춘천은 고구려의 영역이었으므로 동성왕이 사냥한 곳은 다른 지역이었을 것이다.

191) 사비는 백제의 세 번째 수도로, 현재의 충남 부여이다.

192)신라에서는 얼음을 저장하는 관청으로 빙고전(氷庫典)을 설치하였다. 경주시 인왕동 월성에는 조선시대 지어진 석빙고(보물 66호)가 남아 있는데, 이곳이 신라가 얼음을 저장했던 터일 가능성이 있다(최종성, 2007, 《기후재등록과 기후의례》, 서울대 출판부).



경주 월성 석빙고

### 502년

봄에 백성들은 굶주렸고 또 역병이 돌았다.

春 民饑且疫 (무령왕 2년/ 백4)

가을 8월에 황해(蝗害)가 있었다. 겨울 10월에 지진이 나서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있었다.

秋八月 蝗 冬十月 地震 民屋倒墮 有死者 (문자명왕 11년/ 양 9.17.~10.16.; 11.15.~12.14./ 고7)

### 503년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冬 無氷 (무령왕 3년/ 백4)

### 505년

겨울 11월에 처음으로 담당 관청에 명하여 얼음을 저장하게 하였다.<sup>192)</sup>

冬十一月 始命所司藏氷 (지증마립간 6년/ 양 12.12.~1.9./ 신4)

### 506년

봄에 역병이 크게 돌았다. 3월에서 5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오지 않아 내와 못이 말랐다. 백성이 굶주리자 창고를 열어 구제(진휼)하였다.

春 大疫 三月至五月 不雨 川澤竭 民饑 發倉賑救

(무령왕 6년/ 양 4.9.~7.5./ 백4)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어 백성이 굶주렸으므로 창고의 곡식을 풀어 구제(진휼)하였다.

春夏 旱 民饑 發倉賑之 (지증마립간 7년/ 신4)

겨울 11월에 장수를 보내 백제를 쳤으나 큰 눈이 내려 군사들이 동상을 입고 돌아왔다.

冬十一月 遣將伐百濟 大雪 士卒凍斃而還 (문자명왕 15년/ 양 12.1.~12.30./ 고7)

### 509년

가을 7월에 서리가 내려 콩이 죽었다.

秋七月 隕霜殺菽 (지증마립간 10년/ 양 8.2.~8.30./ 신4)

## 510년

여름 5월에 지진이 나서 백성의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었다. 겨울 10월에 천둥이 쳤다.

夏五月 地震壞人屋 有死者 冬十月 雷  
(지중마립간 11년/ 양 5.24.~6.21.; 11.17.~12.16./ 신4)

## 516년

봄 3월 초하루 무진에 일식이 있었다.<sup>193)</sup>

春三月戊辰朔 日有食之 (무령왕 16년/ 양 4.18./ 백4)

193) 중국의 《양서》〈무제기〉2 천감(天監) 15년 3월 무진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 518년

3월에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으며, 왕궁 남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三月 暴風拔木 王宮南門自毀 (문자명왕 27년/ 양 3.27.~4.25./ 고7)

## 521년

여름 5월에 큰물이 났다. 가을 8월에 황충이 곡식을 해치었다. 백성들이 굶주렸다.

夏五月 大水 秋八月 蝗害穀 民饑 (무령왕 21년/ 양 5.22.~6.20.; 9.17.~10.16./ 백4)

## 522년

겨울 10월에 지진이 났다.

冬十月 地震 (무령왕 22년/ 양 11.5.~12.3./ 백4)

## 523년

봄에 가물었다. 겨울 10월에 기근이 들어 창고를 열어 구제하였다.

春 旱 (中略) 冬十月 饑 發倉賑救 (안장왕 5년/ 양 10.25.~11.22./ 고7)

## 531년

봄 3월에 담당 관청에 명하여 제방을 수리하게 하였다.

春三月 命有司修理堤防 (법흥왕 18년/ 양 4.3.~5.1./ 신4)

194) 중국의 《양서》〈무제기〉3에서도 확인된다.

195) 《삼국사기 연력표》에 따르면 초하루는 계사(癸巳)일로 양력으로 8월 17일이며, 갑진(甲辰)은 음력 7월 12일로 양력으로는 8월 28일이다.

196) 신라 최초의 연호이다. 연호(年號)는 왕이 나라를 다스린 해의 차례를 나타내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중국에서 유래했다.



부여 나성. 성왕은 538년에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겼다.

### 532년

가을 7월 갑진에 별이 비 오듯이 떨어졌다.<sup>194)</sup>

秋七月 甲辰 星隕如雨 (성왕 10년/ 양 8.17.<sup>195)</sup>/ 백4)

### 534년

여름 4월 정묘에 형혹(화성)이 남두(南斗)를 범하였다.

夏四月 丁卯 熒惑犯南斗 (성왕 12년/ 양 5.13./ 백4)

### 535년

여름 5월 나라 남쪽에 큰물이 나서 백성들의 집이 떠내려가고 죽은 자가 200여 명이나 되었다. 겨울 10월에 지진이 났다. 12월에 천둥이 치고 역병이 크게 돌았다.

夏五月 國南大水 漂沒民屋 死者二百餘人 冬十月 地震 十二月 雷 大疫

(안원왕 5년/ 양 6.16.~7.15.; 11.11.~12.9.; 536.1.9.~2.7./ 고7)

### 536년

처음으로 연호(年號)<sup>196)</sup>를 칭하여 건원(建元) 원년이라 하였다.

始稱年號 云建元元年 (법흥왕 23년/ 신4)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었으므로, 사신들을 보내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제하였다. 가을 8월에 황해(蝗害)가 있었다.

春夏 大旱 發使撫恤饑民 秋八月 蝗 (안원왕 6년/ 양 9.1.~9.30./ 고7)

### 537년

봄 3월에 백성들이 굶주렸다.

春三月 民饑 (안원왕 7년/ 양 3.27.~4.25./ 고7)

### 540년

겨울 10월에 지진이 났고, 복숭아와 자두(오얏)가 꽃을 피웠다.

冬十月 地震 桃李華 (진흥왕 원년/ 양 11.15.~12.13./ 신4)

겨울 10월에 복숭아와 자두(오얏)가 꽃을 피웠다.

冬十月 桃李華 (안원왕 10년/ 양 11.15.~12.13./ 고7)



## 541년

봄 3월에 눈이 한 자나 내렸다.

春三月 雪一尺 (진흥왕 2년/ 양 4.12.~5.10./ 신4)

## 542년

봄 3월에 바람이 크게 불어 나무가 뽑히고 기왓장이 날아갔다.

여름 4월에 우박이 내렸다.

春三月 大風拔木飛瓦 夏四月 雹 (안원왕 12년/ 양 4.1.~5.29./ 고7)

## 546년

여름 4월에 우박이 내렸다.

夏四月 雹 (양원왕 2년/ 양 5.16.~6.13./ 고7)

## 547년

봄 정월 초하루 기해에 일식이 있었다.<sup>197)</sup>

春正月 己亥朔 日有食之 (성왕 25년/ 양 2.6./ 백4)

## 549년

봄 정월 경신에 흰 무지개<sup>198)</sup>가 해를 관통하였다.<sup>199)</sup>

春正月 庚申 白虹貫日 (성왕 27년/ 양 2.16./ 백4)

## 551년

봄 정월에 연호를 개국(開國)으로 바꾸었다. 이보다 앞서 가야국 가실왕(嘉悉王)<sup>200)</sup>이 12줄의 현금(弦琴)을 만들었는데, 12달의 음률을 본뜬 것이다.<sup>201)</sup>

春正月 改元開國 (中略) 先是 加耶國嘉悉王 製十二弦琴 以象十二月之律 (진흥왕 12년/ 양 1.23.~2.20./ 신4)

## 554년

12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얼음이 얼지 않았다.<sup>202)</sup>

十二月晦 日有食之 無冰 (양원왕 10년/ 양 555.2.6./ 고7)

197)중국의 《위서》〈천상지〉105 ‘무정(武定) 5년 정월 기해’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198)《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백홍’ 기록이다. 백홍관일(白虹貫日)은 지극한 정성이 하늘까지 이른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국가에 대란이 벌어질 징조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백홍관일 현상은 무지개가 아닌 햇무리 현상으로 이해된다. 무리는 구름 속에 있는 알갱이에 빛이 굴절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해 주위에 나타나면 햇무리, 달 주위에 나타나면 달무리라고 한다. 보통 흰 빛의 둥근 테가 해와 달 주변을 감싸거나, 상향 또는 하향으로 활이나 기둥 모양의 빛줄기가 뿜어나가므로 마치 해와 달이 귀고리를 하거나 모자나 갓을 쓴 것처럼 보인다.



환일현상

199)같은 해 같은 달 중국에도 백홍관일이 나타났다. 《남사》〈양무제기〉에서 확인된다. “정월 경신 백홍이 해를 세겹 꿰었다(正月庚申白虹貫日三重).”

200)신라 진흥왕(재위: 540년~576년)과 같은 시기에 가야의 왕이었다.

201)가야금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다.

202)구체적인 간지가 나와 있지 않다. 중국의 《양서》 등에 일식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203) 중국의 《진서》 <고조기>에는 병진(丙辰)일이 아닌 경진(庚辰)일로 기록되어 있다.

204) 《삼국시대 연력표》에 따르면 윤5월 초하루가 병진(丙辰)일이며 양력으로 6월 20일이다.

205) 같은 해 봄과 여름 중국에도 가뭄이 있었으며, 《주서》 <여경회전>에서 확인된다. “(북주) 봄과 여름에 크게 가뭄이 관리들에게 득실을 아뢰게 하였다(北周) 春夏大旱 詔公卿百僚 极言得失.”

206) 진흥왕 때 4년간 사용한 연호로, <마운령신라진흥왕순수비>에 “태창 원년(太昌元年) 세차(歲次) 무자(戊子)”라는 표현이 있다.

207) 중국의 《진서》 <선제기> 5 ‘태건(太建) 4년 9월 경자’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 555년

11월에 태백(金星)이 낮에 나타났다.

十一月 太白晝見 (양원왕 11년/ 양 10.30.~12.28./ 고7)

### 559년

여름 5월 초하루 병진에 일식이 있었다.<sup>203)</sup>

夏五月 丙辰朔 日有食之 (위덕왕 6년/ 양 6.20.<sup>204)</sup>/ 백5)

### 561년

6월에 큰물이 났다.

六月 大水 (평원왕 3년/ 양 6.28.~7.27./ 고7)

### 563년

여름에 크게 가뭄이<sup>205)</sup> 왕은 평상시의 반찬을 줄이고 산천에 기도를 드렸다.

夏 大旱 王減常膳 祈禱山川 (평원왕 5년/ 고7)

### 568년

연호를 태창(太昌)<sup>206)</sup>으로 바꾸었다.

改元太昌 (진흥왕 29년/ 신4)

### 571년

8월에 궁실을 중수하다가 황해(蝗害)와 가뭄이 있어 공사를 그만두었다.

八月 重修宮室 蝗旱 罷役 (평원왕 13년/ 양 9.5.~10.4./ 고7)

### 572년

봄 정월에 연호를 홍제(鴻濟)로 바꾸었다.

春正月 改元鴻濟 (진흥왕 33년/ 양 1.31.~2.28./ 신4)

가을 9월 초하루 경자에 일식이 있었다.<sup>207)</sup>

秋九月 庚子朔 日有食之 (위덕왕 19년/ 양 9.23./ 백5)

## 575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春夏 旱 (진흥왕 36년/ 신4)

## 579년

겨울 10월에 장성(長星)이 하늘에 뻗혔다가 20일 만에 없어졌다. 지진이 났다.

冬十月 長星竟天 二十日而滅 地震 (위덕왕 26년/ 양 11.5.~12.3./ 백5)

## 581년

봄 2월 그믐에 별이 비오듯 떨어졌다. 가을 7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다. 겨울 10월에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왕은 (나라를) 두루 돌며 위로하고 구휼하였다.

春二月晦 星隕如雨 秋七月 霜雹殺穀 冬十月 民饑 王巡行撫恤

(평원왕 23년/ 양 2.19.~3.20.; 8.15.~9.13.; 11.12.~12.10./ 고7)

## 585년

봄 3월에 가물었다.

春三月 旱 (진평왕 7년/ 양 4.5.~5.4./ 신4)

## 586년

여름 5월에 천둥과 벼락이 치고 별이 비오듯이 떨어졌다.

夏五月 雷震 星殞如雨 (진평왕 8년/ 양 5.24.~6.21./ 신4)

## 589년

가을 7월 나라 서쪽에 큰물이 나서 민가 30,360호가 떠내려가거나 물에 잠겼고 죽은 사람이 200여 명이었다.<sup>208)</sup>

秋七月 國西大水 漂沒人戶 三萬三百六十 死者二百餘人

(진평왕 11년/ 양 8.17.~9.14./ 신4)

## 592년

가을 7월 임신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sup>209)</sup>

秋七月 壬申晦 日有食之 (위덕왕 39년/ 양 9.10./ 백5)

208)《삼국사기》에서 큰물로 인한 민가 피해를 구체적인 통계값으로 언급한 유일한 기록이다.

209)중국의 《수서》〈고조기〉 개황(開皇) 12년 7월 임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210)중국의 《수서》〈고조기〉2에서도 확인된다.

211)중국 하북성(河北省) 동쪽 발해만(渤海灣)에 있는 산해관(山海關)의 옛 명칭 혹은 산해관 서남에 있던 관문이라고 한다. 산해관은 명대(明代, 1368년~1644년)의 이름으로, 만주로 가는 통로이면서 만리장성이 끝나는 곳이다.

212)현재의 중국 산둥성(山東省) 등주(登州)이다.



산해관

213)598년 수(隋)가 중국을 통일하자 침략을 우려한 고구려는 전쟁준비를 서둘렀고, 영양왕 9년(598년) 2월 요서를 선제공격하였으나 별 성과 없이 물러났다. 수나라 문제(文帝) 역시 한왕 양(諫)과 주라후를 수장으로 30만 명을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하였지만 당시 기후가 좋지 않아 철군하였다.

214)왕도(王都)인 사비에 있던 절로 추정된다.

215)현재의 경북 경주 시내 또는 경북 포항시 갈탄지역으로 추정된다. 땅이 불타는 현상을 석탄과 관련지어 해석하기도 한다.

### 594년

겨울 11월 계미에 혜성이 각, 항 별자리에 나타났다.<sup>210)</sup>

冬十一月 癸未 星孛于角亢 (위덕왕 41년/ 양 595.1.9./ 백5)

### 598년

여름 6월 (수나라) 한왕(漢王) 양(諫)의 군사가 임유관(臨渝關)<sup>211)</sup>으로 출정하였으나 큰 비를 만나 군량의 운반이 이어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군대에 식량이 떨어졌으며 역병까지 들었다. 주라후(周羅睺)가 동래(東萊)<sup>212)</sup>에서 배를 타고 평양성으로 쳐들어 오다가, 역시 바람을 만나 많은 배가 표류하고 가라앉았다.<sup>213)</sup>

夏六月 漢王諫軍出臨渝關 值水潦 餽轉不繼 軍中乏食 復遇疾疫 周羅睺自東萊泛海 趣平壤城 亦遭風 舡多漂沒 (영양왕 9년/ 양 7.9.~8.7./ 고8)

### 600년

봄 정월 크게 가물자 왕은 칠악사(漆岳寺)<sup>214)</sup>에 행차하여 비를 빌었다.

春正月 大旱 王幸漆岳寺祈雨 (법왕 2년/ 양 1.21.~2.19./ 백5)

### 606년

봄 3월에 왕도(부여)에 흠이 비처럼 떨어져 낮인데도 어두웠다. 여름 4월에 크게 가물어 기근이 들었다.

春三月 王都雨土 晝暗 夏四月 大旱 年饑 (무왕 7년/ 양 4.13.~6.10./ 백5)

### 609년

봄 정월에 모지악(毛只嶽)<sup>215)</sup> 아래의 땅이 불에 탔다. 그 넓이가 네 보(步)이고 길이가 여덟 보였으며 깊이가 다섯 자였는데, 10월 15일에 이르러 꺼졌다.

春正月 毛只嶽下地燒 廣四步 長八步 深五尺 至十月十五日滅

(진평왕 31년/ 양 2.10.~11.17./ 신4)

### 612년

여름 4월 궁궐 남문에 벼락이 쳤다. 5월에 큰물이 나서 인가가 떠내려 가거나 물에 잠기었다.

夏四月 震宮南門 五月 大水 漂沒人家 (무왕 13년/ 양 5.6.~7.3./ 백5)



## 613년

봄에 가물었다.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春 旱 夏四月 降霜 (진평왕 35년/ 양 4.25.~5.24./ 신4)

## 615년

겨울 10월에 지진이 났다.

冬十月 地震 (진평왕 37년/ 양 10.28.~11.25./ 신4)

## 616년

11월에 왕도(부여)에 지진이 났다.

十一月 王都地震 (무왕 17년/ 양 12.14.~1.12./ 백5)

## 624년

봄 2월에 왕은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책력을 반포해 줄 것을 청하였다.

春二月 王遣使如唐 請班曆 (영류왕 7년/ 양 2.24.~3.24./ 고8)

## 627년

봄 3월에 큰 바람이 불고 흙이 비처럼 5일 넘게 떨어졌다. 8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

春三月 大風 雨土過五日 (中略) 八月 隕霜殺穀  
(진평왕 49년/ 양 3.23.~4.20.; 9.15.~10.14./ 신4)

## 628년

여름에 크게 가물었으므로 시장을 옮기고 용을 그려 비 내리기를 빌었다.  
가을과 겨울에 백성들이 굶주려 자녀를 팔았다.

夏 大旱 移市 畫龍祈雨 秋冬民飢 賣子女 (진평왕 50년/ 신4)

## 630년

대궁(大宮)<sup>216</sup> 뜰의 땅이 갈라졌다.

大宮庭地裂 (진평왕 52년/ 신4)

여름에 가물었다.

夏 旱 (무왕 31년/ 백5)

216)신라왕이 거처하던 대궐이다.

217)《후한서》에 따르면 무지개는 왕의 위협이나 전쟁을 의미하며, 실제로 진평왕은 다음해(632년) 정월에 죽었다.

218)《삼국유사》는 선덕왕(善德王), 선덕여왕(善德女王)이라는 왕호를 쓰고 있으나, 《삼국사기》는 선덕왕(善德王) 하나만 쓰고 있다.

219)현재 입진강 남쪽인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던 신라의 성이다.



파주 칠중성터

### 631년

가을 7월에 흰 무지개<sup>217)</sup>가 궁궐 우물에 들어가고 토성이 달을 범하였다.

秋七月 白虹飲于宮井 土星犯月 (진평왕 53년/ 양 8.3.~9.1./ 신4)

### 632년

여름 5월부터 가물다가 6월에 이르러서야 비가 왔다.

夏五月 旱 至六月 乃雨 (선덕왕<sup>218)</sup> 원년/ 양 5.25.~7.22./ 신5)

### 633년

2월에 경도(경주)에 지진이 났다.

二月 京都地震 (선덕왕 2년/ 양 3.16.~4.13./ 신5)

### 634년

봄 정월에 연호를 인평(仁平)으로 바꾸었다. 3월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밤만 하였다.

春正月 改元仁平 (中略) 三月 雹 大如栗

(선덕왕 3년/ 양 2.4.~3.4.; 4.4.~5.2./ 신5)

### 636년

6월에 가물었다.

六月 旱 (무왕 37년/ 양 7.8.~8.6./ 백5)

### 637년

봄 2월에 왕도(부여)에 지진이 났다. 3월에 또 지진이 났다.

春二月 王都地震 三月 又震 (무왕 38년/ 양 3.2.~4.29./ 백5)

### 638년

봄 3월에 칠중성(七重城)<sup>219)</sup> 남쪽의 큰 돌이 저절로 35보 옮겨갔다. 가을 9월에 누런 꽃이 비처럼 떨어졌다.

春三月 七重城南大石 自移三十五步 秋九月 雨黄花

(선덕왕 7년/ 양 4.20.~5.18.; 10.13.~11.10./ 신5)

## 639년

가을 7월에 동쪽 바닷물이 붉게 되고 또 더워져 물고기와 자라가 죽었다.

秋七月 東海水赤且熱 魚鼈死 (선덕왕 8년/ 양 8.5.~9.2./ 신5)

## 640년

봄 정월에 혜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다.

春正月 星孛于西北 (무왕 41년/ 양 1.29.~2.26./ 백5)

가을 9월에 해에 빛이 없다가 3일이 지난 뒤 다시 밝아졌다.

秋九月 日無光 經三日復明 (영류왕 23년/ 양 9.21.~10.20./ 고8)

## 643년

가을 9월 15일 밤이 밝았으나 달이 보이지 않았다. 많은 별들이 서쪽으로 흘러갔다.

秋九月 十五日 夜明不見月 衆星西流 (보장왕 2년/ 양 11.1./ 고9)

## 644년

겨울 10월 평양에 내린 눈 빛이 붉은색이었다.<sup>220)</sup>

冬十月 平壤雪色赤 (보장왕 3년/ 양 11.5.~12.4./ 고9)

## 645년

당 황제가 (6월) 안시성(安市城<sup>221)</sup>)에 이르렀다. 이날 밤 유성이 (고구려 장군) 고연수의 진영에 떨어졌다.<sup>222)</sup> 마침 천둥과 번개가 쳤는데 (당나라 장군) 용문사람 설인귀(薛仁貴)가 기이한 옷을 입고 크게 소리치며 군진을 함락 시켰다. 황제는 (9월에) 요동이 일찍 추워져서 풀이 마르고 물이 얼어 군사와 말이 오래 머물기 어렵고, 또 양식이 다 떨어져가므로 군사를 돌릴 것을 명령하였다. 겨울 10월에 황제가 포구(蒲溝)에 이르러 말을 매어두고 (물이 흥건한) 길을 (흙으로) 메우는 일을 재촉하였다. 여러 군대가 발착수(渤鍇水)<sup>223)</sup>를 건너는데, 폭풍이 불고 눈이 내려 습기에 젖어 죽는 병사들이 많았다.<sup>224)</sup>

帝至安市城 (中略) 是夜 流星墜延壽營 (中略) 會有雷電 龍門人 薛仁貴 著奇服 大呼陷陣 (中略) 帝以遼左早寒 草枯水凍 士馬難久留 且糧食將盡 勅班師 (中略) 冬十月 帝至蒲溝駐馬 督填道 諸軍度渤鍇水 暴風雪 士卒沾濕 多死者 (보장왕 4년/ 양 10.26.~11.23./ 고9)

220)겨울철에 황사가 눈과 섞여 붉게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221)안시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중국 요녕성(遼寧省) 해성시(海城市) 동남쪽의 영성자산성(英城子山城)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안시성으로 추정되는 영성자산성(중국 요령성 해성시)

222)중국의 《신당서》〈동이열전〉145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이날밤 유성이 연수의 진영에 떨어졌다(是夜 流星墜延壽營).”

223)중국 《자치통감》의 주석에서는 포구(蒲溝)와 발착수(渤鍇水)가 요택(遼澤)에 있다 하였다. 요택은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 요하(遼河) 서쪽 연못과 늪지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역주 삼국사기》).

224)안시성을 포위한 당나라군과 고구려군의 전투를 다룬 기사이다. 당은 추위와 군량 문제로 안시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225)《삼국유사》는 진덕왕(眞德王), 진덕여왕(眞德女王)이라는 왕호를 쓰고 있으나, 《삼국사기》는 진덕왕(眞德王) 하나만 쓰고 있다.

226)당 조정에서 고구려 침략을 재논의하는 기사이다.

227)신라는 536년(법흥왕 23년)부터 고유의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650년(진덕왕 4년)부터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정삭(正朔)은 정월 초하루를 의미하며 나아가 책력(冊曆, 역서, 달력)의 뜻도 있다. 또한 기년(紀年)은 기원(紀元)으로부터 차례로 셈을 센 햇수를 말한다.

228)진덕여왕 때에 신라는 독자적 연호인 태화(太和) 대신에 당나라 고종(高宗)의 연호인 영휘(永徽, 650년~655년)를 사용하였다.

### 647년

연호를 태화(太和)로 바꾸었다. 8월에 혜성이 남쪽에서 나타났고 못 별들이 북쪽으로 흘러갔다.

改元太和 八月 彗星出於南方 又衆星北流 (진덕왕<sup>225</sup>) 원년/ 양 9.5.~10.3./ 신5)

전에 황제(태종)께서 친히 정벌하였을 때 그 나라(고구려) 사람들이 논밭을 갈고 씨를 뿌려 가꿀 수 없었으며, 이긴 성에서도 실로 곡식을 거두어 들였으나 가뭄이 계속되었으므로 백성들의 태반이 식량이 부족하였습니다.<sup>226)</sup>

前大駕親征 國人不得耕種 所克之城 實收其穀 繼以旱災 民大半乏食 (보장왕 6년/ 고10)

### 648년

겨울에 한질허(邯軹許)를 당에 보내 조공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어사(御史)를 시켜 물었다. “신라는 신하로서 대국(당나라) 조정을 섬기면서 어찌하여 따로 연호를 칭하는가?” 질허가 대답하였다. “일찍이 천자의 조정에서 정삭(正朔)을 반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조 법흥왕 이래 사사로이 기년(紀年)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대국 조정에서 명이 있었다면 작은 나라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태종이 그렇겠다고 여겼다.<sup>227)</sup>

冬 使邯軹許朝唐 太宗勅御史問 新羅臣事大朝 何以別稱年號 軹許言 曾是天朝未頒正朔 是故先王興王以來 私有紀年 若大朝有命 小國又何敢焉 太宗然之 (진덕왕 2년/ 신5)

### 649년

겨울 11월에 천둥이 쳤다. 얼음이 얼지 않았다.

冬十一月 雷 無冰 (의자왕 9년/ 양 12.10.~1.7./ 백6)

### 650년

이해에 비로소 중국의 영휘(永徽) 연호를 사용하였다.<sup>228)</sup>

是歲 始行中國永徽年號 (진덕왕 4년/ 신5)

가을 7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쳐 백성들이 굶주렸다.

秋七月 霜雹害穀 民饑 (보장왕 9년/ 양 8.3.~8.31./ 고10)



## 651년

봄 정월 초하루에 왕이 조원전(朝元殿)<sup>229</sup>에 나아가 백관으로부터 새해 축하인사를 받았다. 새해를 축하하는 예식(賀正禮)은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sup>230</sup>

春正月朔 王御朝元殿 受百官正賀 賀正之禮 始於此  
(진덕왕 5년/ 양 1.27./ 신5)

229)신라의 정전(正殿)으로 월성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230)하정식은 정월 초하루에 신하들이 정전에 모여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던 의식으로 중국 한(漢) 고조(高祖) 때부터 시행되었다.

## 652년

3월에 경도(경주)에 큰 눈이 왔고 왕궁 남쪽 문이 아무 까닭 없이 저절로 무너졌다.

三月 京都大雪 王宮南門 無故自毀 (진덕왕 6년/ 양 4.14.~5.13./ 신5)

## 653년

봄에 크게 가물어 백성이 굶주렸다.

春 大旱 民饑 (의자왕 13년/ 백6)

## 656년

여름 5월에 왕도(평양)에 쇠가 비처럼 떨어졌다.<sup>231</sup>

夏五月 王都雨鐵 (보장왕 15년/ 양 5.29.~6.27./ 고10)

231)'우철(雨鐵)'의 유일한 기록이다. 쇠 빛이 나는 검은 가루가 떨어졌다 혹은 쇠 빛의 비가 내렸다고도 풀이된다.

## 657년

여름 4월에 크게 가물어 농작물을 거둘 것이 없는 땅이 되었다.

夏四月 大旱 赤地 (의자왕 17년/ 양 5.18.~6.16./ 백6)

가을 7월에 일선군(一善郡)<sup>232</sup>에 큰물이 나서, 빠져 죽은 사람이 300여 명이었다. 동쪽 토함산의 땅이 불타더니 3년 만에 꺼졌다.

秋七月 一善郡大水 溺死者三百餘人 東吐含山地燃 三年而滅

(태종 무열왕 4년/ 양 8.15.~9.13./ 신5)

232)현재 경북 구미시 선산 지역이다. 경덕왕 때 승선군(嵩善郡)으로 고쳤다.

## 660년

봄 2월에 왕도(부여)의 우물물이 핏빛이 되었다. 서해 바닷가에서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나와 죽었는데 백성들이 다 먹을 수가 없었다. 사비하(泗沘河)<sup>233</sup>의 물이 핏빛처럼 붉었다. 여름 4월에 두꺼비와 개구리 수만

233)백제의 수도 사비(부여)를 흐르는 강으로, 현재의 금강(鎭江)이다.

234)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있던 절이다. 《삼국사기》에는 백제 법왕 때(600년)에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2007년 10월 왕흥사 터에서 발견된 사리함에 새겨진 글에는 577년에 백제 위덕왕이 자신의 죽은 왕자를 위하여 절을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여 왕흥사 터



부여 왕흥사 터에서 발견(2007년)된 사리함

235)《삼국사기》〈고구려본기〉 보장왕 20년(661년)에 같은 기사가 있다. 북한산성(현재 서울 종로구)에서 고구려군에 포위당한 신라군이 하늘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내용이다.

236)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에 있던 절이다. 왕궁리 유적 발굴과정에서 대관대사(大官大寺), 대관궁사(大官宮寺), 대관사(大官寺)가 새겨진 기와가 발굴되었다.

237)현재의 전북 익산시 금마면 지역이다.

238)현재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북한산성으로 추정된다.

239)《삼국사기》〈신라본기〉 태종 무열왕 8년(661년)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240)고구려의 장군으로 642년 정변으로 영류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세워 권력을 잡았다. 고구려와 당나라가 전쟁 중이던 665년에 죽었다.

241)압록강, 압록수라고도 한다. 백두산 천지 부근에서 발원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동북지방과 경계를 이루며 서해로 흐른다.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다. 5월에 바람과 비가 갑자기 불어 닥쳤고 천왕사(天王寺)와 도양사(道讓寺) 두 절의 탑에 **벼락**이 쳤으며, 또 백석사(白石寺) 강당에도 **벼락**이 쳤다. 검은 구름이 용과 같이 공중에서 동과 서로 나뉘어 싸웠다. 6월에 왕흥사(王興寺)<sup>234</sup>의 많은 승려들이 배의 돛과 같은 것이 큰물을 따라 절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春二月 王都井水血色 西海濱小魚出死 百姓食之不能盡 泗泚河水赤如血色 夏四月 蝦蟆數萬集於樹上 (中略) 五月 風雨暴至 震天王道讓二寺塔 又震白石寺講堂 玄雲如龍 東西相鬪於空中 六月 王興寺衆僧皆見 若有船楫隨大水入寺門 (의자왕 20년/ 양 3.17.~4.15.; 5.15.~8.11./ 백6)

가을 7월에 평양의 강물이 3일 동안이나 핏빛이었다.

秋七月 平壤河水血色凡三日 (보장왕 19년/ 양 8.12.~9.9./ 고10)

### 661년

(5월 9일) 갑자기 큰 별이 적(고구려)의 진영에 떨어지고 또 **천둥**과 비가 내리며 **벼락**이 쳤으므로, 적이 두려워서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sup>235</sup> 6월에 대관사(大官寺)<sup>236</sup>의 우물물이 피가 되었고, 금마군(金馬郡)<sup>237</sup> 땅에 피가 흘러 그 넓이가 다섯 보가 되었다. 왕이 죽었다.

忽有大星 落於賊營 又雷雨以震 賊疑懼解圍而去 (中略) 六月 大官寺井水爲血 金馬郡地流血廣五步 王薨 (태종 무열왕 8년/ 양 6.11.; 7.3.~7.31./ 신5)

여름 5월에 왕(고구려 보장왕)은 장군 뇌음신(惱音信)을 보내 말갈의 무리를 이끌고 신라의 북한산성<sup>238</sup>을 포위하게 하였다. 열흘이 되도록 풀어주지 않으니,<sup>239</sup> 신라는 식량길이 끊겨 성 안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갑자기 큰 별(大星)이 우리(고구려) 진영에 떨어지고 또 비가 오고 **천둥**이 쳤으므로, 뇌음신 등은 의심하고 놀라서 후퇴하였다. 9월에 연개소문<sup>240</sup>은 그 아들 남생(男生)을 보내 정예군 수만 명으로써 압록(鴨綠)<sup>241</sup>을 지키게 하였으므로 여러 군대가 건널 수 없었다. (당나라 장군) 계필하력이 이르렀을 때 (압록강의) 얼음이 두껍게 얼었으므로, 계필하력이 무리를 이끌고 얼음 위로 물을 건넜다.

夏五月 王遣將軍惱音信 領靺鞨衆 圍新羅北漢山城 浹旬不解 新羅餉道絕 城中危懼 忽有大星落於我營 又雷雨震擊 惱音信等 疑駭引退 (中略) 九月 蓋蘇文遣其子男生 以精兵數萬守鴨綠 諸軍不得渡 契苾何力至 值冰大合 何力引衆乘冰度水 (보장왕 20년/ 양 6.3.~7.2.; 9.29.~10.28./ 고9)

신라에는 (661년에) 역병이 크게 돌아 군사와 말을 징발할 수가 없었다.<sup>242)</sup>

新羅多有疫病 不可徵發兵馬 (문무왕 11년/신7)<sup>243)</sup>

### 662년

용삭(龍朔) 2년(662년) 정월에 이르러 유총관<sup>244)</sup>은 신라의 양하도(兩河道) 총관 김유신 등과 함께 평양으로 군량을 운송했습니다. 당시 곳은 비가 한 달 이상 계속되고 눈보라가 치고 날씨가 몹시 추워 사람과 말이 얼어 죽었으므로 가져갔던 군량을 모두 다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sup>245)</sup>

至龍朔二年正月 劉總管共新羅兩河道總管金庾信等 同送平壤軍糧 當時陰雨連月 風雪極寒 人馬凍死 所將兵糧 不能勝致 (문무왕 11년/ 양 1.25.~2.23./ 신7)<sup>246)</sup>

봄 정월 18일에 (신라군은) 풍수촌(風樹村)<sup>247)</sup>에서 묵었다. 얼음이 얼어 미끄럽고 또 길이 험하여 수레가 나아갈 수 없어 (군량을) 모두 소와 말에 실었다. 23일에 칠중하(七重河)를 건넜다. 2월 1일에 유신 등이 장새(獐塞)<sup>248)</sup>에 이르니, 평양으로부터 3만 6천 보 떨어진 곳이다. 먼저, 보기감(步騎監) 열기(裂起)<sup>249)</sup> 등 15인을 당나라의 군영으로 보냈다. 이날 눈보라가 치고 몹시 추워 사람과 말들이 많이 얼어 죽었다. 8월에 사찬(沙飡)<sup>250)</sup> 여동(如冬)이 어머니를 때리자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더니 벼락을 맞아 죽었다.

春正月 十八日 宿風樹村 冰滑道險 車不得行 竝載以牛馬 二十三日 渡七重河 (中略) 二月一日 庾信等至 獐塞 距平壤三萬六千步 先遣步騎監裂起等十五人 赴唐營 是日 風雪寒沍 人馬多凍死 (中略) 八月 沙飡如冬打母 天雷雨震死 (문무왕 2년/ 양 2.11.~2.24.; 2.24.; 9.18.~10.17./ 신6)

봄 정월에 (당나라의) 소정방이 평양을 포위하였으나 마침 큰 눈이 내려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春正月 蘇定方圍平壤 會大雪 解而退 (보장왕 21년/ 양 1.25.~2.23./ 고10)

### 663년

5월에 영묘사(靈廟寺)<sup>251)</sup> 문에 벼락이 쳤다.

五月 震靈廟寺門 (문무왕 3년/ 양 6.11.~7.10./ 신6)

242)문무왕 11년(671년)에 문무왕이 당나라의 행군총관(行軍總管) 설인귀(薛仁貴)에게 보내는 답장에 나온다.

243)《삼국사기》〈신라본기〉 문무왕 11년(671년)에 나오는 기사이나 해당 연도에 맞게 넣었다.

244)당나라 함자도(含資道) 총관 유덕민(劉德敏)을 말한다.

245)문무왕 11년(671년)에 문무왕이 당나라의 행군총관(行軍總管) 설인귀(薛仁貴)에게 보내는 답장에 나온다.

246)《삼국사기》〈신라본기〉 문무왕 11년(671년)에 나오는 기사이나 해당 연도에 맞게 넣었다.

247)신라 장군 김유신이 고구려의 평양으로 가는 도중 곤란을 겪는 장면이다. 풍수촌(風樹村)에 묶고 강을 건넜으므로 칠중하(경기도 임진강)보다 남쪽 지방에 있는 마을일 것이다.

248)현재의 황해도 수안군 일대이다.

249)《삼국사기》〈열기(裂起) 열전〉 참조.

250)사찬(沙飡)은 신라 17관등 중 8번째에 해당한다.

251)현재의 경주시 성건동에 있던 절이다. 절 이름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다.



영묘사 터에서 발견된 얼굴 무늬 수막새(기와)

## 664년

3월에 지진이 났다. 8월 14일에 지진이 나서 백성들의 집이 무너졌는데, 남쪽 지방이 더욱 심하였다.

三月 地震 (中略) 八月十四日 地震 壞民屋 南方尤甚  
(문무왕 4년/ 양 4.2.~4.30.; 9.9./ 신6)

## 665년

겨울에 비단은 종래 10심(尋)<sup>252)</sup>을 한 필로 하였는데, (이를) 바꾸어 길이 일곱 보<sup>253)</sup>, 너비 두 자를 한 필로 삼았다.

冬 絹布舊以十尋爲一匹 改以長七步廣二尺爲一匹 (문무왕 5년/신6)

## 666년

봄 2월 경도(경주)에 지진이 났다.

春二月 京都地震 (문무왕 6년/ 양 3.12.~4.9./ 신6)

## 668년

여름 4월에 혜성이 천선(天船) 별자리를 지켰다.<sup>254)</sup>

夏四月 彗星守天船 (문무왕 8년/ 양 5.17.~6.14./ 신6)

여름 4월에 혜성이 필(畢)<sup>255)</sup>과 묘(卯)<sup>256)</sup> 별자리 사이에 나타났다. 당나라 허경종(許敬宗)이 “혜성이 동북방에서 나타나는 것은 고구려가 망할 징조이다.”라고 하였다.

夏四月 彗星見於畢昴之間 唐許敬宗曰 彗見東北 高句麗將滅之兆也

(보장왕 27년/ 양 5.17.~6.14./ 고10)

## 670년

지난해(670년) 9월에 이런 사실을 모두 기록하여 사신을 보내 아뢰게 하였으나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사신을 보냈지만 역시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바람이 차고 파도가 세어 미처 아뢰 수 없었습니다.<sup>257)</sup>

去年九月 具錄事狀 發使奏聞 被漂却來 更發遣使 亦不能達 於後 風寒浪急 未及聞奏 (문무왕 11년/ 양 9.20.~10.19./ 신7)<sup>258)</sup>

252)심(尋)은 중국에서 8척 1심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신라에서도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10심은 약 80척이 된다.

253)신라의 경우 1보 6척 제도를 사용했다. 전에는 1필이 10심(80척)이었지만 문무왕 때 와서 1필이 길이 7보(42척), 너비 2척이 되었다. 기록을 통해 문무왕 5년 이후 심(尋) 대신에 보(步)라는 새로운 단위가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이우태, 2002, <고대 도량형제의 발달>, <강좌 한국고대사> 6, 가락국사적개발원).

254)중국의 <구당서> <고종기>5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총장 원년 여름 4월 병진에 혜성이 필성과 묘성 사이에 있었다(總章元年 夏四月丙辰 有彗星見於畢昴之間).”

255)필성(畢星), 28수의 19번째 별자리인 필수(畢宿) 혹은 필수에 있는 필(畢) 별자리를 가리킨다. 기준별은 황소자리의 엽실론(ε) 별이다.

256)묘성(卯星)은 28수의 18번째 별자리 영역인 묘수(昴宿) 혹은 묘수에 있는 묘(昴) 별자리를 가리킨다. 황소자리의 플레이아데스성단을 구성하는 희미한 7개의 별이다. 기준별은 황소자리 17번째 별이다. 중국의 <구당서> <고종기>5에서도 확인된다.

257)문무왕이 재위 11년(671년)에 당나라의 행군총관(行軍總管) 설인귀(薛仁貴)에게 보내는 답장에 나온다.

258)본래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671년)에 나오는 기사이나 해당 연도에 맞게 넣었다.



12월에 토성이 달에 들어갔고 경도(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다.

十二月 土星入月 京都地震 (문무왕 10년/ 양 671.1.17.~2.14./ 신6)

### 671년

여름 4월에 흥륜사(興輪寺)<sup>259</sup> 남문에 벼락이 쳤다.

夏四月 震興輪寺南門 (문무왕 11년/ 양 5.14.~6.11./ 신7)

### 672년

9월에 혜성이 북방에 일곱 번이나 나타났다. 이해에 곡식이 귀하여 사람들이 굶주렸다.

九月 彗星七出北方 (中略) 是歲 穀貴人飢 (문무왕 12년/ 양 9.27.~10.25./ 신7)

### 673년

봄 정월에 커다란 별이 황룡사(皇龍寺)와 재성(在城) 중간에 떨어졌다.<sup>260</sup>

春正月 大星隕皇龍寺在城中間 (문무왕 13년/ 양 1.24.~2.21./ 신7)

### 674년

봄 정월에 당나라에 들어가 숙위하던 대나마<sup>261</sup> 덕복(德福)이 역술(曆術)을 배우고 돌아와 새 역법으로 고쳐 사용하였다.<sup>262</sup> 가을 7월에 큰 바람이 불어 황룡사 불전을 훼손하였다.

春正月 入唐宿衛大奈麻德福 傳學曆術還 改用新曆法 (中略) 秋七月 大風 毀皇龍寺佛殿 (문무왕 14년/ 양 2.12.~3.12.; 8.7.~9.5./ 신7)

### 676년

가을 7월에 혜성이 북하(北河)와 적수(積水)<sup>263</sup> 두 별 사이에서 나타났는데 길이가 6~7보 쯤 되었다.<sup>264</sup>

秋七月 彗星出北河積水之間 長六七許步 (문무왕 16년/ 양 8.15.~9.12./ 신6)

### 679년

여름 4월에 형혹(火星)이 우림(羽林)<sup>265</sup> 별자리를 지켰다. 6월에 태백(金星)이 달의 자리에 들어가고 유성이 삼수(參宿)의 큰 별<sup>266</sup>을 범하였다. 가을 8월에 태백이 달에 들어갔다.

夏四月 熒惑守羽林 六月 太白入月 流星犯參大星 秋八月 太白入月 (문무왕 19년/ 양 5.15.~6.13.; 7.13.~8.11.; 9.11.~10.9./ 신7)

259)현재의 경북 경주시 사정동에 있던 절이며, 흥륜사지는 사적 제 15호로 지정되어 있다.

260)황룡사는 현재 경주시 구황동에 있던 절이며, 진흥왕(재위: 540년~576년)이 이곳에 새로운 궁궐을 지으려다 황룡이 나타나자 계획을 바꾸어 절을 세웠다고 한다. 재성은 왕궁을 둘러싼 성으로 경주의 월성(月城)을 가리킨다.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던 황룡사의 터

261)신라 시대 벼슬로서, 17관등 중 10번째 등급이다. 대나마는 다시 중대나마(重大奈麻)에서 구중대나마(九重奈麻)까지 9등급으로 나뉘었다.

262)문무왕 때 들어온 새 역법은 인덕력(麟德曆)으로 추정된다(나일성, 2000, 《한국천문학사》, 서울대출판부). 당나라는 인덕 3년(666년)에 인덕력을 반포하여 728년까지 사용하였다. 그런데, 고구려가 영류왕 7년(624년)에 당나라에 책력을 요구한 일이나, 원가력을 사용한 백제 무령왕릉의 묘지석(523년)으로 볼 때, 신라에 중국의 역법이 전해진 것은 674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263)적수(積水)는 28수 중 서방의 위수(胃宿) 또는 남방의 정수(井宿)에 속하는 별자리이다. 남방의 정수(井宿)에 있는 북하자리(서양의 쌍둥이자리 머리)와 함께 쓰일 때는 정수의 적수로 이해된다.

264)중국의 《구당서》 〈고종기〉5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상원 3년) 가을 7월에 혜성이 동경에서 나타나 북하의 동북쪽을 향하여 갔다. 길이가 3장이며 중대를 지나 문창궁으로 향하였는데 58일 만에 없어졌다(上元三年) 秋七月 彗起東井指北河 漸東北 長三丈 掃中台 指文昌宮 五十八日方滅.”

265)우림은 28수 중 13번째 영역인 실수(室宿)에 속하는 별이다. 천군(天軍)을 다스린다는 별자리로 물병자리(일부)에 해당한다. 중국의 《구당서》〈고종기〉5에서도 확인된다.

266)삼대성(參大星)은 삼수 안에 동서로 나란히 배치된 밝은 별 셋을 부를 때 쓰는 말이다. 서양에서는 오리온의 허리띠를 상징한다.

267)천구성(天狗星)으로서 땅에 떨어진 운석을 나타낸다.

268)곤방(坤方)은 팔방위 가운데 정남(正南)과 정서(正西) 사이에 있는 방향으로 곧 서남쪽을 말한다.

269)오거는 28수 중 19번째 영역인 필수(畢宿)에 속하는 별로, 서양의 마차부자리의 일부가 해당한다.

270)신문왕이 조상의 사당에 올리는 제문(祭文)에 나오는 말이다. 고대 자연현상에 대한 천인상관론(天人相關論)을 확인할 수 있다.

## 681년

봄 정월 초하루가 하루 종일 밤처럼 어두웠다. 여름 5월에 지진이 났다. 유성이 삼수(參宿)의 큰 별을 범하였다. 6월에 천구(天狗)<sup>267)</sup>가 서남쪽<sup>268)</sup>으로 떨어졌다.

春正月朔 終日黑暗如夜 (中略) 夏五月 地震 流星犯參大星 六月 天狗落坤方 (문무왕 21년/ 양 1.25.; 5.23.~7.20./ 신7)

## 682년

5월에 태백(금성)이 달을 범하였다.

五月 太白犯月 (신문왕 2년/ 양 6.11.~7.9./ 신8)

## 683년

여름 4월에 평지에 눈이 한 자나 내렸다. 겨울 10월에 혜성이 오거(五車)<sup>269)</sup> 별자리에 나타났다.

夏四月 平地雪一尺 (中略) 冬十月 彗星出五車 (신문왕 3년/ 양 5.2.~5.31.; 10.25.~11.23./ 신8)

## 684년

겨울 10월에 저녁부터 새벽까지 유성이 어지럽게 나타났다.

冬十月 自昏及曙 流星縱橫 (신문왕 4년/ 양 11.13.~12.11./ 신8)

## 687년

봄 2월에 왕의 맏아들이 태어났다. 이날 날씨가 음침하고 어두컴컴하였으며 천둥과 번개가 심하게 쳤다. (왕이 사당에 고하기를) 요즈음 법도는 임금의 다스림을 잃고 의리는 하늘의 뜻에 어그러졌음인지, 별의 형상에는 괴변이 나타나고 해는 빛을 감추었습니다.<sup>270)</sup>

春二月 元子生 是日 陰沉昧暗 大雷電 (中略) 比者道喪君臨 義乖天鑒 怪成星象 火宿沈輝 (신문왕 7년/ 양 3.19.~4.17./ 신8)

## 692년

봄에 대나무가 말랐다.

春 竹枯 (신문왕 12년/ 신8)

8월 고승 도증(道證)<sup>271)</sup>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천문도(天文圖)<sup>272)</sup>를 바쳤다.  
八月 高僧道證自唐廻 上天文圖 (효소왕 원년/ 양 9.16.~10.14./ 신8)

### 695년

자월(子月)<sup>273)</sup>을 정월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경도(경주)에 지진이 났다.  
立子月爲正 (中略) 冬十月 京都地震 (효소왕 4년/ 양 11.12.~12.11./ 신8)

### 696년

여름 4월에 나라 서쪽에 가뭄이 들었다.  
夏四月 國西旱 (효소왕 5년/ 양 3.9.~4.6./ 신8)

### 698년

2월에 경도(경주)에 땅이 흔들렸고, 큰 바람이 불어 나무를 부러뜨렸다.  
가을 7월 경도에 큰물이 났다.  
二月 京都地動 大風折木 (中略) 秋七月 京都大水  
(효소왕 7년/ 양 1.18.~2.15.; 6.14~7.12./ 신8)

### 699년

봄 2월에 흰 기운이 하늘에 뻗치고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다. 가을 7월에 동해의 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가 5일 만에 원래대로 돌아왔다. 9월에 동해 물이 서로 맞부딪쳐 그 소리가 왕도(경주)까지 들렸다. 병기고에서 북과 뿔피리가 저절로 소리를 내었다.  
春二月 白氣竟天 星孛于東 (中略) 秋七月 東海水血色 五日復舊 九月 東海水戰 聲聞王都 兵庫中鼓角自鳴  
(효소왕 8년/ 양 1.7.~2.5.; 6.3.~7.2.; 8.1.~8.29./ 신8)

### 700년

다시 인월(寅月)<sup>274)</sup>을 정월로 삼았다. 6월에 세성(목성)이 달을 범하였다.  
復以立寅月爲正 (中略) 六月 歲星入月 (효소왕 9년/ 양 4.24.~5.22./ 신8)

### 701년

봄 2월에 혜성이 달에 들어갔다.  
春二月 彗星入月 (효소왕 10년/ 양 3.14.~4.12./ 신8)

271)신라 때의 승려·유식학자로서, 당나라로 유학하여 신라승 원측(圓測)의 제자가 되었고 효소왕 원년에 귀국하였으나 이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는다.

272)도증이 가져온 천문도는 고구려에 전래된 진탁(陳卓)의 성도(星圖)라는 주장과 보천가(步天歌) 또는 돈황성도(敦煌星圖)라는 주장이 있다(나일성, 2000, 《한국천문학사》, 서울대출판부).

273)음력 11월로,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이 초저녁에 자방(子方), 즉 북쪽을 가리키는 달이다. 그런데 당나라에서는 689년 1월에 이 달을 정월로 삼았다고 한다. 신라에서 효소왕 4년에 자월(子月)을 정월로 삼았던 것은 당에서 정삭(正朔)을 변경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역주 삼국사기》). 이에 대해 박성래는 당(唐) 측천무후(625년~705년) 시대의 연호 개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1998,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 교보문고). 한편 중국에서는 689년 11월부터 1월이 바뀌었으나, 《삼국시대 연력표》(2002, 한국천문연구원)은 《삼국사기》의 695년~700년 사이 기록에 따라 1월의 위치를 바꾸었다.

274)중국 하(夏)나라의 정월이다. 《구당서》측천무후 '성력(聖曆) 3년(700년)'에 의하면, 당에서는 이해 10월에 정삭(正朔)을 복구하여 음력 1월을 정월로 삼았다고 한다(《역주 삼국사기》).

### 703년

가을 7월 경도(경주)에 큰물이 나서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다.

秋七月 京都大水 溺死者衆 (성덕왕 2년/ 양 8.17.~9.15./ 신8)

### 705년

여름 5월에 가물었다. 겨울 10월에 나라 동쪽의 주(州)와 군(郡)에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떠돌아 다녔으므로 사자를 보내 구제(진휼)하였다.

夏五月 旱 (中略) 冬十月 國東州郡饑 人多流亡 發使賑恤

(성덕왕 4년/ 양 5.27.~6.25.; 10.22.~11.20./ 신8)

### 706년

봄 정월 나라에 기근이 있어 창고를 열어 구제(진휼)하였다.

3월에 못별이 서쪽으로 떨어졌다. 이해에 곡식이 잘 여물지 않았다.

春正月 國內饑 發倉廩賑之 三月 衆星西流 (中略) 穀不登<sup>275)</sup>

(성덕왕 5년/ 양 1.19.~2.17.; 4.17.~5.16./ 신8)

### 707년

봄 정월에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으므로 한 사람에게 하루 벼 3되씩을 7월까지 나누어 주었다.

春正月 民多饑死 給粟人一日三升 至七月 (성덕왕 6년/ 양 2.7.~8.31./ 신8)

### 708년

2월에 지진이 났다. 여름 4월에 진성(토성)이 달을 범하였다.

二月 地震 夏四月 鎮星犯月 (성덕왕 7년/ 양 2.26.~3.26.; 4.25.~5.23./ 신8)

### 709년

여름 5월에 가물었다.

夏五月 旱 (성덕왕 8년/ 양 6.12.~7.11./ 신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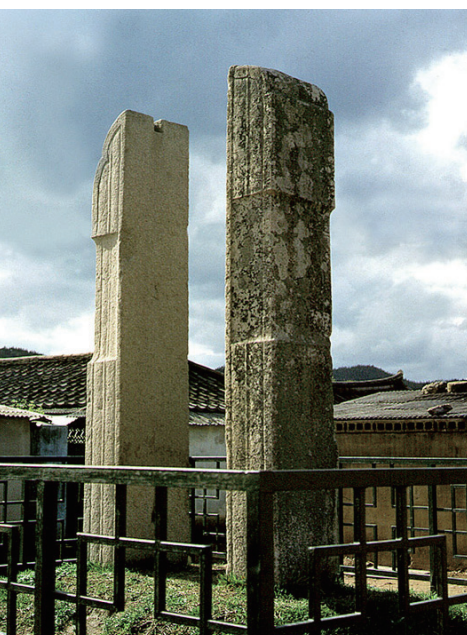
### 710년

봄 정월에 삼랑사(三郎寺)<sup>276)</sup> 북쪽에 천구(天狗)가 떨어졌다. 지진이 났다.

春正月 天狗隕三郎寺北 (中略) 地震 (성덕왕 9년/ 양 2.4.~3.4./ 신8)

275)가을 8월과 겨울 10월 사이에 있는 기사이다.

276)경주시 성건동 서천가에 있던 절이며, 현재 당간지주 하나만 남아 있다.



경주 삼랑사 터 당간지주. 좌측은 복원한 것이다.



## 711년

봄 3월에 많은 눈이 내렸다.

春三月 大雪 (성덕왕 10년/ 양 3.24.~4.22./ 신8)

## 714년

여름에 가물었고 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걸렸다.

夏 旱 人多疾疫 (성덕왕 13년/ 신8)

## 715년

6월에 크게 가물어 왕이 하서주(河西州)<sup>277</sup> 용명악(龍鳴嶽)의 거사 이효(理曉)<sup>278</sup>를 불러 임천사(林泉寺)<sup>279</sup> 못 가에서 비 내려주기를 빌게 하였더니, 곧 비가 열흘 동안 내렸다. 가을 9월에 태백(금성)이 서자성(庶子星)<sup>280</sup>을 가렸다. 겨울 10월에 유성이 자미원을 범하였다. 12월에 유성이 천창(天倉)<sup>281</sup>에서 태미원으로 들어갔다.

六月 大旱 王召河西州龍鳴嶽居士理曉 祈雨於林泉寺池上 則雨浹旬 秋九月 太白掩庶子星 冬十月 流星犯紫微 十二月 流星自天倉入太微

(성덕왕 14년/ 양 7.6.~8.3.; 10.2.~11.30.; 12.31.~1.28./ 신8)

## 716년

봄 정월에 유성이 달을 범하여 달에 빛이 없어졌다. 3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히고 기와가 날아갔으며 송례전(崇禮殿)<sup>282</sup>이 훼손되었다. 여름 6월에 가물었으므로 또 거사 이효(理曉)를 불러 비 내려주기를 빌도록 하니 비가 왔다.

春正月 流星犯月 月無光 (中略) 三月 大風拔木飛瓦 崇禮殿毀 (中略)

夏六月 旱 又召居士理曉祈禱 則雨

(성덕왕 15년/ 양 1.29.~2.27.; 3.28.~4.26.; 6.24.~7.23./ 신8)

## 717년

봄 2월에 의박사(醫博士)와 산박사(算博士)<sup>283</sup> 각각 1인을 두었다.

여름 4월에 지진이 났다.

春二月 置醫博士算博士各一員 (中略) 夏四月 地震

(성덕왕 16년/ 양 3.18.~4.15.; 5.15.~6.13./ 신8)

277)현재의 강원도 강릉시로, 신라 태종 무열왕 5년(658년)에 하서주를 설치하였다. 경덕왕 16년(757년)에 명주(溟州)로 고쳤다.

278)신라 성덕왕 때의 음양가(陰陽家)로 보이거나 더 이상의 자료가 없다.

279)경주시 동천동에 있던 절로 추정된다.

280)서자성은 자미원에 있는 북극오성(北極五星)의 3번째 별. 북극오성 중 빛은 서양의 작은곰자리에 해당한다.

281)자미원에 속하는 별자리로, 북두칠성의 자루 끝 부근에 있다. 서양의 목동자리와 상응한다.

282)왕도(경주)에 있던 왕궁 건축물로 사신의 접견이나 연회장소로 이용되었다.

283)산박사는 성덕왕 이후 산술교육을 담당한 학자이다. 《삼국사기》〈직관지(職官志)〉에 따르면 국학(國學)에 산박사(算博士)를 두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산박사의 임무 중에 천문·기상 관측에 필요한 산술교육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84)누각(漏刻)은 물시계를 말하며, 최초로 설치한 누각전(漏刻典: 성덕왕 17년)에 박사(博士) 6명을 두었다고 한다.

285)현재 전북 익산시 일대로, 금마면 기양리에 백제의 미륵사지가 있다.



미륵사 터와 당간지주

286)같은 해 중국에도 무설 기록이 있으며, 《구당서》〈현종기〉에서 확인된다. “개원 9년 이해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開元九年 是冬無雪).”

### 718년

3월에 지진이 났다. 여름 6월에 황룡사 탑에 벼락이 쳤다. 처음으로 누각(漏刻)<sup>284</sup>을 만들었다. 겨울 10월에 유성이 묘(昴)에서 규(奎)로 들어가니, 여러 작은 별들이 뒤따랐다. 천구(天狗)가 동북방(艮方)에 떨어졌다.

三月 地震 夏六月 震皇龍寺塔 始造漏刻 (中略) 冬十月 流星自昴入于奎 衆小星隨之 天狗隕艮方 (성덕왕 17년/ 양 4.6.~5.4.; 7.3.~7.31.; 10.28.~11.26./ 신8)

### 719년

가을 9월에 금마군(金馬郡)<sup>285</sup> 미륵사에 벼락이 쳤다.

秋九月 震金馬郡彌勒寺 (성덕왕 18년/ 양 10.18.~11.15./ 신8)

### 720년

봄 정월에 지진이 났다. 여름 4월에 큰 비가 내려 산 13곳이 무너졌고, 우박이 떨어져 모가 상하였다. 가을 7월에 황충(蝗蟲)이 곡식을 해쳤다.

春正月 地震 (中略) 夏四月 大雨 山崩十三所 雨雹傷禾苗 (中略) 秋七月 蝗蟲害穀 (성덕왕 19년/ 양 2.13.~3.13.; 5.12.~6.10.; 8.9.~9.6./ 신8)

### 721년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sup>286</sup>

冬 無雪 (성덕왕 20년/ 신8)

### 722년

2월에 경도(경주)에 지진이 났다.

二月 京都地震 (성덕왕 21년/ 양 2.20.~3.21./ 신8)

### 723년

여름 4월에 지진이 났다.

夏四月 地震 (성덕왕 22년/ 양 5.9.~6.7./ 신8)

### 725년

봄 정월에 흰 무지개가 나타났다. 3월에 눈이 내렸다. 여름 4월에 우박이

내렸다. 겨울 10월에 땅이 흔들렸다.

春正月 白虹見 三月 雪 夏四月 雹 (中略) 冬十月 地動

(성덕왕 24년/ 양 2.18.~3.18.; 4.18.~6.14.; 11.10.~12.9./ 신8)

### 733년

가을 7월에 발해말갈(渤海靺鞨)<sup>287</sup>이 바다를 건너 등주(登州)<sup>288</sup>를 쳐들어가니 당나라 현종은 (신라에게) 군사를 일으켜 말갈의 남쪽 변방<sup>289</sup>을 치게 하였다. 때마침 큰 눈이 한 길 남짓 내려 산길이 막히고 군사 중 죽은 사람이 절반이 넘어 아무런 공적 없이 돌아왔다.

秋七月 唐玄宗以渤海靺鞨 越海入寇登州 (中略) 發兵擊靺鞨南鄙 會大雪 丈餘 山路阻隘 士卒死者過半 無功而還 (성덕왕 32년/ 양 8.14.~9.12./ 신8)

287)668년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大祚榮)이 동모산(현재의 길림성 돈화시 옥정산 부근)에 세운 발해국을 말한다. 발해국은 고구려 유민과 과거 고구려가 복속한 말갈 부족, 속말갈인(粟末靺鞨人)으로 구성되었다.

288)현재의 산둥성(山東省) 등주(登州)이다. 발해가 등주를 공격한 것은 732년이며, 신라가 발해의 남쪽 국경지대를 공격하려 했던 것은 733년(성덕왕 32년)이다.

289)발해의 영역은 남으로는 원산만 이북에 이른다. 신라의 북쪽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735년

봄 정월에 형혹(화성)이 달을 범하였다.

春正月 熒惑犯月 (성덕왕 34년/ 양 1.29.~2.26./ 신8)

### 737년

여름 5월에 지진이 났다. 가을 9월에 유성(流星)이 태미원에 들어갔다.

夏五月 地震 秋九月 流星入太微

(효성왕 내력부문/ 양 6.3.~7.2.; 9.29.~10.27./ 신9)

### 738년

여름 4월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고, 소부리군(所夫里郡)<sup>290</sup>의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였다.

夏四月 白虹貫日 所夫里郡河水變血 (효성왕 2년/ 양 4.24.~5.22./ 신9)

290)현재의 충남 부여군 부여읍. 신라는 671년에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에 소부리주를 설치하였다. 686년에 웅천주(熊川州)를 설치하면서 소부리군이 되었으며, 경덕왕 때(742년~765년)에 부여군으로 개칭되었다.

### 740년

여름 5월에 진성(토성)이 현원대성<sup>291</sup>을 범하였다.

夏五月 鎮星犯軒轅大星 (효성왕 4년/ 양 5.30.~6.28./ 신9)

291)28수 중 25번째 영역인 성수(星宿)에 속한다. 현원은 17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가장 밝은 별을 현원대성이라 한다. 서양별자리로는 사자자리의 레굴루스에 해당한다.

### 742년

봄 2월에 동북쪽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소리가 천둥치는 것과 같았다.

여름 5월에 유성이 삼수(參宿)의 큰 별을 범하였다.

春二月 東北地震 有聲如雷 夏五月 流星犯參大星  
(효성왕 6년/ 양 3.12.~4.9.; 6.8.~7.6./ 신9)

### 743년

가을 8월에 지진이 났다.

秋八月 地震 (경덕왕 2년/ 양 8.24.~9.22./ 신9)

### 744년

겨울에 요사스러운 별(妖星)<sup>292</sup>이 하늘 가운데에 나타났는데, 크기가 다섯 말들이 그릇만 하였고 열흘 만에 없어졌다.

冬 妖星出中天 大如五斗器 浹旬乃滅 (경덕왕 3년/ 신9)

### 745년

여름 4월에 경도(경주)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달걀만 하였다. 5월에 가물었다.

夏四月 京都雹 大如鷄子 五月 旱 (경덕왕 4년/ 양 5.6.~7.3./ 신9)

### 747년

3월에 진평왕릉<sup>293</sup>에 벼락이 쳤다. 가을에 가물었다.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역병이 번졌다.

三月 震眞平王陵 秋 旱 冬 無雪 民饑且疫 (경덕왕 6년/ 양 4.15.~5.13./ 신9)

### 748년

봄 정월에 천구(天狗)가 땅에 떨어졌다.

春正月 天狗落地 (경덕왕 7년/ 양 2.4.~3.3./ 신9)

### 749년

봄 2월에<sup>294</sup>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3월에 천문박사(天文博士)<sup>295</sup> 1인과 누각박사(漏刻博士)<sup>296</sup> 6인을 두었다.

春二月 暴風拔木 三月 置天文博士一員 漏刻博士六員  
(경덕왕 8년/ 양 2.22.~4.21./ 신9)

292)재해의 징조를 나타낸다는 혜성·패성으로 추정된다.

293)현재 경주시 보문동에 진평왕릉으로 전하는 무덤이 사적 제180호로 지정되어 있다.

294)《삼국사기》 임신본에는 '三'으로 되어 있고, 《삼국사절요》에는 '二'로 되어 있다. 뒤에 3월이 나오므로 《삼국사절요》를 따른다.

295)천문과 기상을 담당하던 최고 실무관리이다. 천문박사는 후에 사천박사(司天博士)로 바뀌었다.

296)물시계를 담당하는 전문기술자로 정원은 6인이다. 신라는 성덕왕 17년(718년)에 누각전(漏刻典)을 설치하였으며, 경덕왕 8년(749년) 누각전에 박사를 두었다.





진평왕릉(경주 보문동)

### 754년

여름 4월에 경도(경주)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달걀만 하였다. 8월에 가물고 황해(蝗害)가 있었다.

夏四月 京都霽 大如鷄卵 (中略) 八月 旱蝗  
(경덕왕 13년/ 양 4.27.~5.26.; 8.23.~9.20./ 신9)

### 755년

봄에 곡식이 귀하여 백성들이 굶주렸다.<sup>297)</sup> 망덕사(望德寺)<sup>298)</sup> 탑이 흔들렸다.

春 穀貴民饑 (中略) 望德寺塔動 (경덕왕 14년/ 신9)

### 756년

봄 2월에 상대등 김사인(金思仁)<sup>299)</sup>이 근년에 천재지변<sup>300)</sup>이 자주 나타나므로 왕에게 글을 올려 시국 정치의 잘되고 잘못된 점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기꺼이 받아 들였다. 여름 4월에 큰 우박이 내렸다.

春二月 上大等金思仁 以比年災異屢見 上疏極論時政得失 王嘉納之 (中略) 夏四月 大霽 (경덕왕 15년/ 양 3.6.~4.3.; 5.4.~6.2./ 신9)

297)《삼국사기》〈향덕 열전〉에 따르면 이해에 흉년이 들고 역병이 돌았다고 한다.

298)경주시 배반동에 있으며, 현재는 절터와 당간지주만 남아 있다.

299)신라의 재상으로 생몰년을 알 수 없다. 성덕왕 31년(732년)에 장군이 되었고, 경덕왕 4년(745년)에 최고 관직인 상대등이 되었다.

300)원문은 재이(災異)이다. 재이(災異)는 재앙이 되는 괴이한 일로 천재(天災)와 지이(地異)를 아울러 이른다.

301)이해 태어난 왕자는 해공왕이 된 건운(乾運)이다. 해공왕은 김지정(金志貞)의 난(780년)으로 죽었다.

### 758년

가을 7월 23일에 왕자가 태어났다.<sup>301)</sup> 천둥과 번개가 크게 쳤고, 절 16곳에 벼락이 떨어졌다.

秋七月二十三日 王子生 大雷電 震佛寺十六所 (경덕왕 17년/ 양 8.31./ 신9)

### 759년

3월에 혜성이 나타났다가 가을이 되어서야 없어졌다.

三月 彗星見 至秋乃滅 (경덕왕 18년/ 양 4.2.~5.1./ 신9)

### 760년

봄 정월에 도성 동쪽에서 북치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귀신의 북소리라 하였다.

春正月 都城寅方 有聲如伐鼓 衆人謂之鬼鼓 (경덕왕 19년/ 양 1.23.~2.21./ 신9)

### 761년

봄 정월 초하루에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는데, 해에 귀고리 같은 것이 있었다.<sup>302)</sup> 여름 4월에 혜성이 나타났다.

春正月朔 虹貫日 日有珥 夏四月 彗星出 (경덕왕 20년/ 양 2.10.; 5.9.~6.7./ 신9)

302)현재의 '햇무리'이다.

### 763년

가을 7월에 경도(경주)에 큰 바람이 불어 기와가 날아가고 나무가 뽑혔다. 8월에 복숭아와 자두(오얏)가 다시 꽃을 피웠다.

秋七月 京都大風 飛瓦拔樹 八月 桃李再花 (경덕왕 22년/ 양 8.14.~10.11./ 신9)

### 764년

3월에 혜성이 동남쪽에 나타났고, 용이 양산(楊山)<sup>303)</sup> 아래에 나타났다가 조금 후에 날아갔다. 겨울 12월 11일에 크고 작은 유성이 나타났는데, 보는 사람들이 그 수를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三月 星孛于東南 龍見楊山下 俄而飛去 冬十二月十一日 流星或大或小 觀者不能數 (경덕왕 23년/ 양 4.6.~5.5.; 765.1.7./ 신9)

303)현재의 경주 남산(南山)으로 추측된다.

## 765년

여름 4월에 지진이 났다. 6월에 유성이 심(心)을 범하였다.

夏四月 地震 (中略) 六月 流星犯心

(경덕왕 24년/ 양 4.25.~5.24.; 6.23.~7.22./ 신9)

## 766년

봄 정월에 해가 두 개나 나타났다.<sup>304)</sup>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2월에 강주(康州)<sup>305)</sup>에서 땅이 꺼져 못이 되었는데, 길이와 넓이가 50여 자였으며 물빛은 검푸른 색이었다. 겨울 10월에 하늘에서 북치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났다.<sup>306)</sup>

春正月 二日並出 大赦 (中略) 二月 康州地陷成池 縱廣五十餘尺 水色青黑 冬十月 天有聲如鼓 (해공왕 2년/ 양 2.14.~4.13.; 11.7.~12.6./ 신9)

## 767년

여름 6월에 지진이 났다. 가을 7월에 별 세 개가 왕궁 뜰에 떨어져 서로 맞부딪쳤는데, 그 빛이 불꽃처럼 치솟았다가 흩어졌다.<sup>307)</sup>

夏六月 地震 (中略) 秋七月 三星隕王庭 相擊 其光如火迸散

(해공왕 3년/ 양 7.1.~8.28./ 신9)

## 768년

봄에 혜성이 동북쪽에 나타났다. 6월에 경도(경주)에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려 풀과 나무들이 상하였다. 큰 별이 황룡사 남쪽에 떨어졌는데,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천둥소리와 같았다.<sup>308)</sup> 우물과 샘이 모두 말랐고 호랑이가 궁궐 안에 들어 왔다.

春 彗星出東北 (中略) 六月 京都雷雹 傷草木 大星隕皇龍寺南 地震聲如雷 泉井皆渴 虎入宮中 (해공왕 4년/ 양 6.19.~7.18./ 신9)

## 769년

여름 5월에 황해(蝗害)가 있었고 가뭄이 들었다. 겨울 11월에 치악현<sup>309)</sup>에서 쥐 80여 마리가 평양을 향해 갔다. 눈이 내리지 않았다.

夏五月 蝗旱 (中略) 冬十一月 雉岳縣鼠八十許 向平壤 無雪

(해공왕 5년/ 양 6.9.~7.7.; 12.3.~1.1./ 신9)

304)환일(幻日, parhelion)현상으로 추정된다. 천인상응적 입장에서 이해하면 반란으로 얼룩진 해공왕 시대의 정치적 혼란을 암시하는 듯하다. 해공왕은 김지정(金志貞)의 난(780년)으로 죽었고 신라의 중대(中代) 왕실은 막을 내렸다. 같은 해 6월 중국에도 환일현상 기록이 있으며, 《구당서》〈천문지〉에서 확인된다. “6월 정미, 겹 햇무리가 있었고, 그날 밤에 겹 달무리가 있었다. 그해 큰물이 있었다(六月丁未日重輪 其夜月重輪 是年大水).”

305)신라 9주의 하나로, 신문왕대 청주(靑州)라 하였으나 경덕왕대 강주로 고쳤다. 현재의 경남 진주시이다.

306)《삼국유사》에 따르면 “대력(大曆, 766년~779년) 초년에 강주(康州) 관청 대당(大堂) 동쪽의 땅이 꺼져서 못을 이루었다. 세로가 13자, 가로가 7자였다.”고 한다(《삼국유사》 권2, 기이2, 해공왕).



환일현상

307)《삼국유사》에 따르면 “7월에 북궁 뜰 안에 두 별이 먼저 떨어지고, 또 한 별이 떨어져 세 별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삼국유사》 권2, 기이2, 해공왕).

308)《삼국유사》에 따르면 해공왕 “2년 정미(丁未)에 천구성(天狗星)이 동루(東樓) 남쪽에 떨어졌는데, 머리는 향아리만 하고 꼬리는 3자 가량이었다. 빛이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았고 하늘과 땅이 진동했다.”고 한다(《삼국유사》 권2, 기이2, 해공왕).

309)현재 황해도 연백군 은천면 지역으로 추정된다.

310)중국의 《신당서》〈대종기〉6에서도 확인된다.

311)같은 해 중국에도 지진이 있었으며,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대력 12년 속록, 영진(하북성 영진 동북부)에서 민가가 무너졌으며, 땅이 몇 장까지 갈라졌으며, 모래와 돌이 물을 따라 평지로 흘러왔으며 놀려 죽은 자가 수백 명이다. 향(지금의 정정현正定縣), 정(지금의 정현正縣) 두 개 주에 크게 지진이 있었다. 조주(지금의 조현趙縣)에 역시 지진이 있었다. 지진이 났으며, 3일 이후에 그쳤다(唐大历十二年 東鹿 宁晋 坏庐舍 地震数丈 沙石随水流出平地 压死者数百人 恒 定二州地大震 赵州亦震 地震三日乃止).” (国家地震局震害防御司, 1995, 《中国历史强震目录》, 地震出版社).

312)자리 백개를 만들어 놓고 높은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집회이다. 백좌도량(百座道場)·백고좌(百高座)·백좌회(百座會)와 같은 말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나라에 큰 일이 발생하면 호국법회를 여는 것이 상례였다.

313)신라 제37대 선덕왕(宣德王, 재위: 780년~785년)으로, 선덕여왕(善德王, 재위: 632년~647년)과 음이 같아 혼동하기도 한다.

### 770년

3월에 흄이 비처럼 떨어졌다. 5월 11일에 혜성이 오거(五車) 별자리 북쪽에 나타났다가 6월 12일에 이르러서야 없어졌다.<sup>310)</sup> 겨울 11월에 경도(경주)에 지진이 났다.

三月 雨土 (中略) 五月十一日 彗星出五車北 至六月十二日滅 (中略) 冬十一月 京都地震 (혜공왕 6년/ 양 4.1.~4.29.; 6.9.~7.9.; 11.22.~12.21./ 신9)

### 777년

봄 3월에 경도(경주)에 지진이 났다. 여름 4월에 또 지진이 났다.<sup>311)</sup>

春三月 京都地震 夏四月 又震 (혜공왕 13년/ 양 4.13.~6.9./ 신9)

### 779년

봄 3월에 경도(경주)에 지진이 나서,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 태백(금성)이 달에 들어갔다. 백좌법회<sup>312)</sup>를 열었다.

春三月 京都地震 壞民屋 死者百餘人 太白入月 設百座法會

(혜공왕 15년/ 양 3.23.~4.20./ 신9)

### 780년

봄 정월에 누런 안개가 끼었다. 2월에 흄이 비처럼 떨어졌다. 왕은 어려서 왕위에 올랐는데, 장성하자 음악과 여자에 빠져 나돌아 다니며 노는 데 끝이 없었다.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졌으며,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났다.

春正月 黃霧 二月 雨土 王幼少即位 及壯淫于聲色 巡遊不度 綱紀紊亂 災異屢見 (혜공왕 16년/ 양 3.11.~4.9./ 신9)

### 783년

2월에 경도(경주)에 눈이 석 자나 내렸다.

二月 京都雪三尺 (선덕왕<sup>313)</sup> 4년/ 양 3.8.~4.6./ 신9)

### 785년

선덕왕(宣德王)이 죽었는데(785년 1월) 아들이 없었다. 여러 신하들이 의논한 후 왕의 조카뻘되는 주원(周元)을 왕으로 세우려 하였다. 주원은 경도(경주) 북쪽 20리 되는 곳에 살았는데, 그때 큰 비가 내려 알천의 물이 불어났다. 주원이 (알천을) 건널 수가 없게 되자 어느 사람이 말하였다.



“임금의 큰 지위란 본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큰 비는 하늘이 혹시 주원을 (왕으로) 세우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상대등 경신(敬信)은 전 임금의 아우로 덕망이 높고 임금의 모습을 가졌다.” 이에 여러 사람들의 의결이 바로 일치하여 그를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얼마 후 비가 그치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sup>314)</sup>

宣德薨 無子 群臣議後 欲立王之族子周元 周元宅於京北二十里 會大雨 關川水漲 周元不得渡 或曰 卽人君大位 固非人謀 今日暴雨 天其或者不欲立周元乎 今上大等敬信 前王之弟 德望素高 有人君之體 於是 衆議翕然 立之繼位 既而雨止 國人皆呼萬歲 (원성왕 내력부분/ 양 2.14.~3.14./ 신10)

### 786년

여름 4월 나라 동쪽에 우박이 내려 뽕나무와 보리가 모두 상하였다. 가을 7월에 가물었다. 9월에 왕도(경주)의 백성들이 굶주려 조 33,240섬을 내어서 구제(진휼)하였다.

夏四月 國東雨雹 桑麥皆傷 (中略) 秋七月 旱 九月 王都民饑 出粟三萬三千二百四十石 以賑給之 (원성왕 2년/ 양 5.3.~5.31.; 7.30.~8.27.; 9.27.~10.26./ 신10)

### 787년

봄 2월 경도(경주)에 지진이 났다. 여름 5월에 태백(금성)이 낮에 나타났다. 가을 7월에 황충이 곡식을 해쳤다. 8월 초하루 신사에 일식이 있었다.<sup>315)</sup>

春二月 京都地震 (中略) 夏五月 太白晝見 秋七月 蝗害穀 八月辛巳朔 日有食之 (원성왕 3년/ 양 2.23.~3.23.; 5.22.~6.19.; 8.18.~9.15.; 9.16./ 신10)

### 788년

가을에 나라 서쪽에 가물이 들고 황해(蝗害)가 발생하였다.

秋 國西旱蝗 (원성왕 4년/신10)

### 789년

봄 정월 초하루 갑진에 일식이 있었다.<sup>316)</sup> 한산주(漢山州)<sup>317)</sup>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좁쌀을 내어 구제(진휼)하였다. 가을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

春正月甲辰朔 日有食之 漢山州民饑 出粟以賑之 秋七月 隕霜傷穀 (원성왕 5년/ 양 1.31.; 7.27.~8.24./ 신10)

314)《삼국유사》 권2 원성대왕(元聖大王)에도 원성왕이 되는 경신(敬信)의 신성한 즉위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김주원은 경신과 별인 왕위 계승 경쟁에서 패배한 뒤 명주(冥州, 지금의 강릉)로 물러났다.

315) 중국의 《신당서》 〈덕종〉7 ‘정원(貞元) 3년 8월 신사’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316) 중국의 《신당서》 ‘정원(貞元) 5년 정월 갑진’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317) 통일신라 9주(九州)의 하나로 주의 중심지는 현재의 경기도 광주(廣州)이다.

318)같은 해 3월 중국에도 가뭄이 있었으며, 《구당서》〈덕종기〉에서 확인된다. “3월 갑자, 가뭄어 태양빛이 핏빛과 같았다. 빛이 없었다(三月甲子 以旱日色如血 無光).”

319)삼국통일 직후에 완성된 9주(九州)의 하나이다. 지금의 충남 공주이다.

320)중국의 《신당서》〈덕종7 정원(貞元) 8년 11월 임자〉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321)같은 해 4월과 5월 중국에도 가뭄이 있었으며, 《구당서》〈덕종기〉에서 확인된다. “4월 가뭄었다. 5월 경오, 관리에게 죄수를 살펴 가뭄의 원인을 찾으려 하였다(四月 旱 五月庚午命有司慮審囚旱故也).”

### 790년

봄 정월에 벽골제(碧骨堤)를 증축하였다. 3월에 크게 가뭄었다.<sup>318)</sup> 여름 4월에 태백(금성)과 진성(수성)이 동정(東井) 안에 모였다. 5월에 곡식을 내어 한산주와 웅천주<sup>319)</sup> 두 주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진휼)하였다.

春正月 增築碧骨堤 (中略) 三月 大旱 夏四月 太白辰星 聚于東井 五月 出粟賑漢山熊川二州饑民 (원성왕 6년/ 양 1.20.~2.18.; 3.21.~7.16./ 신10)

### 791년

겨울 10월에 경도(경주)에 눈이 석 자 내렸고,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다. 11월 경도에 지진이 났다.

冬十月 京都雪三尺 人有凍死 (中略) 十一月 京都地震 (원성왕 7년/ 양 11.1.~12.29./ 신10)

### 792년

겨울 11월 초하루 임자에 일식이 있었다.<sup>320)</sup>

冬十一月 壬子朔 日有食之 (원성왕 8년/ 양 11.19./ 신10)

### 793년

가을 8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벼가 쓰러졌다.

秋八月 大風折木偃禾 (원성왕 9년/ 양 9.10.~10.9./ 신10)

### 794년

봄 2월에 지진이 났다.

春二月 地震 (원성왕 10년/ 양 3.6.~4.4./ 신10)

### 795년

여름 4월에 가뭄었으므로<sup>321)</sup> 몸소 죄수들의 정상을 살폈다. 6월에 이르러 비가 내렸다. 가을 8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

夏四月 旱 親錄囚 至六月乃雨 秋八月 隕霜害穀

(원성왕 11년/ 양 4.24.~5.22.; 6.22.~7.20.; 9.18.~10.17./ 신10)

## 796년

봄에 경도(경주)에 기근이 들고 역병이 번졌으므로 왕이 창고를 열어 구제(진휼)하였다.

春 京都飢疫 王發倉廩賑恤之 (원성왕 12년/ 신10)

## 797년

가을 9월 나라 동쪽에 황충이 곡식을 해쳤고, 큰물이 나서 산이 무너졌다.

秋九月 國東蝗害穀 大水山崩 (원성왕 13년/ 양 9.25.~10.24./ 신10)

## 798년

봄 3월에 궁궐 남쪽 누교(樓橋)<sup>322</sup>에 화재가 났고, 망덕사(望德寺)의 두 탑이 마주 부딪쳤다. 여름 6월에 가물었다.<sup>323</sup>

春三月 宮南樓橋災 望德寺二塔相擊 夏六月 旱

(원성왕 14년/ 양 3.22.~4.20.; 7.18.~8.15./ 신10)

322)누각이 있는 다리이다.

323)같은 해 봄과 여름 중국에도 가뭄이 있었으며, 《구당서》〈한고전〉에서 확인된다.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수수와 보리가 말랐다(春夏大旱 粟麥枯槁).”

## 800년

여름 4월에 폭풍이 나무를 부러뜨리고 기와를 날려 보냈다. 서란전(瑞蘭殿)<sup>324</sup>에 찻던 발(簾)이 날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夏四月 暴風折木蜚瓦 瑞蘭殿簾 飛不知處 (소성왕 2년/ 양 4.28.~5.26./ 신10)

324)신라 왕궁 안에 있었던 전각(殿閣)의 하나이다.

## 801년

여름 5월 초하루 입술에 응당 있어야 할 일식이 일어나지 않았다.<sup>325</sup>

가을 9월에 형혹(화성)이 달에 들어가고 별이 비오듯 떨어졌다. 겨울 10월에 몹시 추워서 소나무와 대나무가 모두 죽었다.

夏五月 壬戌朔 日當食不食 秋九月 熒惑入月 星隕如雨 (中略) 冬十月 大寒 松竹皆死 (애장왕 2년/ 양 6.15.; 10.11.~12.8./ 신10)

325)중국의 《신당서》〈덕종〉7 ‘정원(貞元) 17년(801년) 5월 입술에 일식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 802년

가을 7월에 지진이 났다.

秋七月 地震 (애장왕 3년/ 양 8.2.~8.31./ 신10)

326) 지금의 강원도 춘천이다.

### 803년

여름 4월에 왕이 남쪽 교외에 나가서 보리 농사를 둘러보았다. 겨울 10월에 지진이 났다.

夏四月 王幸南郊觀麥 (中略) 冬十月 地震  
(애장왕 4년/ 양 4.25.~5.23.; 10.19.~11.17./ 신10)

### 804년

가을 7월에 우두주<sup>326)</sup> 난산현(蘭山縣)에서 엮어진 돌이 일어섰다. 웅천주 소대현(蘇大縣) 부포(釜浦)의 물이 핏빛으로 변하였다. 9월에 망덕사의 두 탑이 (흔들려) 서로 싸우는 듯하였다.

秋七月 牛頭州蘭山縣 伏石起立 熊川州蘇大縣釜浦水變血 九月 望德寺二塔戰 (애장왕 5년/ 양 8.9.~9.7.; 10.7.~11.5./ 신10)

### 805년

겨울 11월에 지진이 났다.

冬十一月 地震 (애장왕 6년/ 양 11.25.~12.24./ 신10)

### 807년

가을 8월에 큰 눈이 내렸다.

秋八月 大雪 (애장왕 8년/ 양 9.6.~10.4./ 신10)

327) 중국의 《신당서》〈현종〉7 '원화(元和) 3년 7월 신사'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 808년

가을 7월 초하루 신사에 일식이 있었다.<sup>327)</sup>

秋七月 辛巳朔 日有食之 (애장왕 9년/ 양 7.27./ 신10)

328) 같은 해 봄과 여름 중국에도 가뭄이 있었으며, 《신당서》〈오행지〉2에서 확인된다. "봄과 여름에 크게 가뭄었다. 가을에 회남, 절사, 강서, 강동이 가뭄었다(春夏 大旱 秋 淮南 浙四 江西 江東旱)."

### 809년

봄 정월에 달이 필(畢)을 범하였다. 가을 7월에 크게 가뭄었다.<sup>328)</sup>

春正月 月犯畢 (中略) 秋七月 大旱 (애장왕 10년/ 양 1.20.~2.17.; 8.15.~9.12./ 신10)

329)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탄생한 곳에 세워진 제의(祭儀) 장소이다.

### 810년

2월에 왕이 몸소 신궁(神宮)<sup>329)</sup>에 제사지내고 사자를 보내 나라 안 제방을 수리하도록 하였다. 가을 7월에 유성이 자미원 안에 들어갔다. 겨울 10월에 유성이 왕량(王良) 별자리로 들어갔다.



二月 王親祀神宮 發使修葺國內隄防 秋七月 流星入紫微 (中略) 冬十月  
流星入王良 (헌덕왕 2년/ 양 3.9.~4.7.; 8.4.~9.2.; 11.1.~11.30./ 신10)

### 814년

여름 5월 나라 서쪽에 큰물이 났다. 가을 8월에 경도(경주)에 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어 밤과 같았다.

夏五月 國西大水 (中略) 秋八月 京都風霧如夜  
(헌덕왕 6년/ 양 5.23.~6.20.; 8.19.~9.17./ 신10)

### 815년

여름 5월에 눈이 내렸다. 가을 8월 초하루 기해에 일식이 있었다.<sup>330)</sup> 서쪽 변방의 주와 군에 큰 기근이 들고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으므로 군사를 내어 이를 토벌하였다. 큰 별이 익(翼)<sup>331)</sup>과 진(軫)<sup>332)</sup> 사이에 나타나 서쪽으로 향하여 갔는데, 뻗쳐진 빛의 길이가 여섯 자쯤 되고 넓이가 두 치 가량 되었다.

夏五月 下雪 秋八月己亥朔 日有食之 西邊州郡大飢 盜賊蜂起 出軍討平之 大星出翼軫間 指庚 芒長六許尺 廣二許寸  
(헌덕왕 7년/ 양 6.11.~7.10.; 9.7./ 신10)

### 816년

봄 정월에 농사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 (중국의) 절동(浙東)<sup>333)</sup>까지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 170명이나 되었다. 한산주 당은현(唐恩縣)<sup>334)</sup>에서 길이 열 자, 넓이 여덟 자, 높이 석 자 다섯 치 되는 돌이 저절로 100여 보를 움직였다. 여름 6월에 망덕사의 두 탑이 흔들려 싸우는 듯 하였다.

春正月 年荒民飢 抵浙東求食者一百七十人 漢山州唐恩縣 石長十尺 廣八尺 高三尺五寸 自移一百餘步 夏六月 望德寺二塔戰  
(헌덕왕 8년/ 양 2.2.~3.2.; 6.29.~7.28./ 신10)

### 817년

여름 5월에 비가 내리지 않아 산천에 두루 기도하였더니 가을 7월에 비가 내렸다. 겨울 10월에 굶어 죽는 자가 많았다.

夏五月 不雨 遍祈山川 至秋七月 乃雨 冬十月 人多飢死  
(헌덕왕 9년/ 양 5.20.~9.14.; 11.13.~12.11./ 신10)

330)중국의 《신당서》 '원화(元和) 10년 8월 기해'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331)익성(翼星), 28수의 27번째 별자리 영역인 익수(翼宿) 혹은 익수에 있는 익(翼) 별 자리를 가리킨다. 기준별은 꺾자리의 알파(α) 별이다.

332)진성(軫星), 28수의 28번째 별자리 영역인 진수(軫宿) 혹은 진수에 있는 진(軫) 별 자리를 가리킨다. 기준별은 까마귀자리의 감마(γ) 별이다.

333)현재 중국 절강성(浙江省)의 동쪽지방이다.

334)현재의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일대이다. 원래 고구려 당성군(唐城郡)이었으며, 경덕왕대에 당은군(唐恩郡)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縣)으로 바뀐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335)중국의 《신당서》〈현종〉7 '원화(元和) 13년 6월 계축'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336)같은 해 여름 중국에도 가뭄이 있었으며, 《신당서》〈오행지〉2에서 확인된다. “여름에 가뭄었다(夏旱).”

337)패강(溲江)과 남천(南川)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패강(溲江)은 압록강, 대동강, 임진강 등 여러 강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신라는 통일 이후 패강(대동강) 이남의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782년 패강진(溲江鎭)을 설치하였다.

338)지금의 충청북도 청주 지역으로, 신라 5소경의 하나이다. 1933년 일본 도오다 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서 서원경 근처에 있던 4개 촌락에 대한 문서가 발견되었다.

339)제좌는 천시원(天市垣) 중앙에 있는 별 하나로 구성된 별자리이다. 서양의 헤르쿨레스자리 알파(α) 별에 해당한다.

340)직녀성은 28수 중 9번째 영역인 우수(牛宿)에 속한다. 서양 별자리인 거문고자리 알파(α) 별이다.

341)28수 중 규수(奎宿)에 속한 6개의 별로 구성된 별자리이며, 왕량성이 옆에 있다.

## 818년

여름 6월 초하루 계축에 일식이 있었다.<sup>335)</sup>

夏六月 癸丑朔 日有食之 (헌덕왕 10년/ 양7.7./ 신10)

## 820년

봄과 여름에 가뭄었다.<sup>336)</sup> 겨울에 기근이 들었다.

春夏旱 冬飢 (헌덕왕 12년/ 신10)

## 821년

봄에 백성들이 굶주려 자손을 팔아 생활하였다. 가을 7월에 패강(溲江)과 남천(南川)<sup>337)</sup>의 두 돌이 서로 싸웠다. 겨울 12월 29일에 천둥이 크게 쳤다.

春 民饑 賣子孫自活 (中略) 秋七月 溲江南川二石戰 冬十二月二十九日 大雷 (헌덕왕 13년/ 양 8.2.~8.30.; 822.1.25./ 신10)

## 822년

2월에 눈이 다섯 자 내렸고 나무들이 약해졌다. 여름 4월 13일에 달빛이 핏빛 같았다. 가을 7월 12일에 해에 검은 햇무리가 생겼는데 남북으로 뻗어 있었다.

二月 雪五尺 樹木枯 (中略) 夏四月十三日 月色如血 秋七月十二日 日有黑暈 指南北 (헌덕왕 14년/ 양 2.26.~3.26.; 5.7.; 8.2./ 신10)

## 823년

봄 정월 5일에 서원경<sup>338)</sup>에서 별레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9일에 흰 색, 검은 색, 붉은 색 세 종류의 별레가 눈(雪)을 무릅쓰고서 기어다니다가 햇별을 보자 그쳤다. 여름 4월 12일에 유성이 천시원에서 나타나 제좌(帝座)<sup>339)</sup>를 범하더니, 천시원 동북쪽과 직녀(織女)<sup>340)</sup>·왕량(王良)을 지나 각도(閣道)<sup>341)</sup>에 이르러 셋으로 갈라져 북치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없어졌다. 가을 7월에 눈이 내렸다.

春正月五日 西原京 有蟲從天而墮 九日 有白黑赤三種蟲 冒雪能行 見陽而止 (中略) 夏四月十二日 流星起天市 犯帝座 過天市東北垣織女王良 至閣道分爲三 聲如擊鼓而滅 秋七月 雪

(헌덕왕 15년/ 양 2.19.; 2.23.; 5.25.; 8.10.~9.8./ 신10)

## 825년

3월에 무진주 마미지현(馬彌知縣)<sup>342)</sup>의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머리가 둘이고 몸도 둘이었으며 팔이 넷이었다. (아이를) 낳을 때 하늘에서 큰 천둥이 쳤다.

三月 武珍州馬彌知縣女人產兒 二頭二身四臂 產時天大雷  
(헌덕왕 17년/ 양 3.24.~4.21./ 신10)

342)현재의 광주광역시 주변 지역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 827년

여름 5월에 서리가 내렸다. 가을 8월에 태백(금성)이 낮에 나타났다. 경도(경주)에 큰 가물<sup>343)</sup>이 들었다.

夏五月 降霜 秋八月 太白晝見 京都大旱  
(흥덕왕 2년/ 양 5.30.~6.27.; 8.26.~9.24./ 신10)

343)같은 해 여름 중국에도 가뭄이 있었으며, 《신당서》〈오행지〉2에서 확인된다. “여름에 경기, 하중, 동주가 가물었다(夏 京畿河中 同州旱).”

## 828년

3월에 눈이 석 자나 내렸다. 겨울 12월에 당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사신 대렴(大廉)이 차(茶)나무<sup>344)</sup> 씨앗을 가지고 오니 왕이 지리산(地理山)에 심게 하였다.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는데, 이때 이르러 성행하였다.

三月 雪深三尺 (中略) 冬十二月 入唐廻使大廉 持茶種子來 王使植地理山 茶自善德王時有之 至於此盛焉  
(흥덕왕 3년/ 양 3.20.~4.17.; 829.1.9.~2.7./ 신10)

344)영남, 호남 지방과 같이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며 10~11월에 꽃이 핀다. 열매는 11월에 다갈색으로 익는다.

## 831년

봄 정월에 지진이 났다.

春正月 地震 (흥덕왕 6년/ 양 2.16.~3.17./ 신10)

## 832년

봄과 여름에 가물이<sup>345)</sup> 농작물을 거둘 것이 없는 땅이 되었다. 왕이 정전(正殿)에 나가지 않고 평상시에 먹던 음식을 줄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죄수들을 사면하였다. 가을 7월에 비로소 비가 내렸다. 8월에 백성들이 흉년으로 굶었고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春夏旱 赤地 王避正殿 減常膳 赦內外獄囚 秋七月 乃雨 八月 飢荒 盜賊 遍起 (흥덕왕 7년/ 양 7.31.~9.27./ 신10)

345)같은 해 중국에도 가뭄이 있었으며, 《신당서》〈오행지〉2에서 확인된다. “하동, 하남, 관보(나라의 서술)가 가물었다(河東河南 關輔旱).”

346) 중국의 《신당서》〈문종〉8 '개성(開成) 원년 정월 신축'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 833년

봄에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다. 겨울 10월에 복숭아와 자두(오얏)가 다시 꽃을 피웠다. 백성들이 역병으로 많이 죽었다.

春 國內大飢 (中略) 冬十月 桃李再華 民多疫死  
(흥덕왕 8년/ 양 11.15.~12.14./ 신10)

### 836년

봄 정월 초하루 신축에 일식<sup>346)</sup>이 있었다. 여름 6월에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다. 가을 7월에 태백(금성)이 달을 범하였다.

春正月 辛丑朔 日有食之 (中略) 夏六月 星孛于東 秋七月 太白犯月  
(흥덕왕 11년/ 양 1.22.; 7.17.~9.14./ 신10)

### 840년

여름 4월부터 6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겨울에 굶주렸다.

自夏四月至六月 不雨 (中略) 冬 饑 (문성왕 2년/ 양 5.6.~8.1./ 신11)

### 841년

봄에 경도(경주)에 역병이 돌았다.

春 京都疾疫 (문성왕 3년/ 신11)

### 844년

봄 2월 초하루 갑인에 일식<sup>347)</sup>이 있었다. 태백(금성)이 진성(토성)을 범하였다. 3월에 경도(경주)에 우박이 내렸다.

春二月 甲寅朔 日有食之 太白犯鎮星 三月 京都雨雹  
(문성왕 6년/ 양 2.22.; 3.23.~4.21./ 신11)

### 845년

겨울 11월에 천둥이 쳤고 눈이 오지 않았다. 12월 초하루에 세 개의 해가 나란히 나타났다.

冬十一月 雷 無雪 十二月朔 三日並出 (문성왕 7년/ 양 12.3.~1.1.; 846.1.2./ 신11)

347) 중국의 《신당서》〈무종〉8 '회창(會昌) 4년 2월 갑인'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 848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겨울 10월에 하늘에서 천둥치는 듯한 소리가 났다.

春夏 旱 (中略) 冬十月 天有聲如雷 (문성왕 10년/ 양 10.31.~11.29./ 신11)

## 850년

봄 정월에 토성이 달에 들어갔다. 경도(경주)에 흄이 비처럼 떨어졌다.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春正月 土星入月 京都雨土 大風拔木 (문성왕 12년/ 양 2.16.~3.17./ 신11)

## 851년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夏四月 隕霜 (문성왕 13년/ 양 5.5.~6.3./ 신11)

## 853년

여름 6월에 큰물이 났다. 가을 8월에 서남지방의 주(州)와 군(郡)에 황해  
(蝗害)가 있었다.

夏六月 大水 秋八月 西南州郡 蝗 (문성왕 15년/ 양 7.10.~8.8.; 9.7.~10.6./ 신11)

## 855년

겨울 12월에 토성이 달에 들어갔다.

冬十二月 土星入月 (문성왕 17년/ 양 856.1.12.~2.9./ 신11)

## 858년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5월부터 가을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夏四月 降霜 自五月至秋七月 不雨 (현안왕 2년/ 양 5.17.~6.14.; 6.15.~9.10./ 신11)

## 859년

봄에 곡식이 귀하여 사람들이 굶주렸으므로 왕이 사자를 보내 구제  
(진휼)하였다. 여름 4월에 명을 내려, 제방을 완전하게 수리하게 하고  
농사를 권장하였다.

春 穀貴人饑 王遣使賑救 夏四月 教修完隄防勸農

(현안왕 3년/ 양 5.7.~6.4./ 신11)

348)경주시 구황동 황룡사지에 있던 9층 목탑이다. 신라 선덕여왕 때 지어졌으나, 고려 고종 25년(1238년)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경주 남산 부처바위에 새겨진 목탑 조각

### 863년

겨울 10월에 복숭아와 자두(오얏)가 꽃을 피웠다. 11월에 눈이 오지 않았다.

冬十月 桃李華 十一月 無雪 (경문왕 3년/ 양 11.15.~1.12./ 신11)

### 867년

여름 5월에 경도(경주)에 역병이 들었다. 가을 8월에 큰물이 났으며 곡식이 익지 않았다. 12월에 객성(客星)이 태백(金星)을 범하였다.

夏五月 京都疫 秋八月 大水 穀不登 (中略) 十二月 客星犯太白

(경문왕 7년/ 양 6.6.~7.4.; 9.2.~10.1.; 12.30.~1.28./ 신11)

### 868년

여름 6월 황룡사탑<sup>348</sup>에 벼락이 쳤다.

夏六月 震皇龍寺塔 (경문왕 8년/ 양 6.24.~7.22./신11)

### 870년

여름 4월 경도(경주)에 지진이 났다. 가을 7월에 큰물이 났다.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았고, 나라 사람들이 역병에 많이 걸렸다.

夏四月 京都地震 (中略) 秋七月 大水 冬 無雪 國人多疫

(경문왕 10년/ 양 5.5.~6.2.; 8.1.~8.30./ 신11)

### 872년

여름 4월에 경사(경주)에 지진이 났다. 가을 8월 나라 안의 주(州)와 군(郡)에 황충이 발생하여 곡식에 해를 입혔다.

夏四月 京師地震 秋八月 國內州郡 蝗害穀

(경문왕 12년/ 양 5.11.~6.9.; 9.7.~10.5./ 신11)

### 873년

봄에 백성이 굶주리고 또 역병이 번졌으므로, 왕이 사자를 보내 구제(진휼)하였다.

春 民饑且疫 王發使賑救 (경문왕 13년/ 신11)

## 875년

봄 2월에 경도(경주)와 나라의 동쪽에 지진이 났다. 혜성이 동쪽에 나타나 20일 만에 없어졌다.

春二月 京都及國東 地震 星孛于東 二十日乃滅

(경문왕 15년/ 양 3.12.~4.9./ 신11)

## 880년

봄 2월에 태백(금성)이 달을 범하였다.

春二月 太白犯月 (현강왕 6년/ 양 3.15.~4.12./ 신11)

## 885년

겨울 10월 임자에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冬十月 壬子 太白晝見 (현강왕 11년/ 양 11.11./ 신11)

## 886년

나라 서쪽에 가물<sup>349)</sup>이 들고 또 흉년이 들었다.

國西旱且荒 (정강왕 내력부문/ 신11)

## 887년

진성왕(眞聖王)<sup>350)</sup>이 왕위에 올랐다.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았다.

眞聖王 立 (中略) 冬 無雪 (진성왕 내력부문/ 신11)

## 888년

봄 2월에 소량리(少梁里)의 돌이 저절로 움직여 갔다. 3월 초하루 무술에 일식이 있었다.<sup>351)</sup> 여름 5월에 가물었다.

春二月 少梁里石自行 (中略) 三月戊戌朔 日有食之 (中略) 夏五月 旱

(진성왕 2년/ 양 3.17~4.14 ; 4.15 ; 6.13~7.12/ 신11)

## 890년

봄 정월에 햇무리가 다섯 겹으로 둘러졌다.

春正月 日暈五重 (진성왕 4년/ 양 1.25.~2.22./ 신11)

349)같은 해 중국에서도 가물었으며, 《구당서》〈회종기〉에서 확인된다. "5월 형남, 양양에 여러 해 동안 황해가 있고 가물어, 서로 잡아먹는 사람들이 많았다(五月 荊南 襄陽仍 旱蝗 旱 米斗三十千 人多相食)."

350)《삼국유사》에서는 진성왕(眞聖王)과 진성여왕(眞聖女王)을 쓰고 있으나, 《삼국사기》에서는 진성왕(眞聖王)만 쓰고 있다.

351)중국의 《신당서》〈회종〉9 '문덕(文德) 원년 3월 무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352)901년에 고구려의 계승자로 자처하며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였다. 아버지는 신라 47대 현안왕(憲安王)으로 알려져 있다.

353)원문에는 ‘年’이 없으나, 의미상 넣었다.

### 902년

봄 3월에 서리가 내렸다.

春三月 降霜 (효공왕 6년 / 양 4.11.~5.10./ 신12)

### 904년

(궁예<sup>352</sup>)가 나라 이름을 마진(摩震)이라 하고 연호를 무태(武泰) 원년(元年)이라 하였다.

(弓裔) 國號摩震 年號武泰元年<sup>353</sup> (효공왕 8년/ 신12)

### 905년

봄 2월에 별이 비오듯 떨어졌다.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春二月 星隕如雨 夏四月 降霜 (효공왕 9년/ 양 3.9.~4.7.; 5.7.~6.5./ 신12)

### 906년

여름 4월부터 5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自夏四月至五月 不雨 (효공왕 10년/ 양 4.26.~6.24./ 신12)

### 907년

봄과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았다.

春夏 無雨 (효공왕 11년/ 신12)

### 908년

봄 2월에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다. 3월에 서리가 내렸다. 여름 4월에 우박이 내렸다.

春二月 星孛于東 三月 隕霜 夏四月 雨雹 (효공왕 12년/ 양 3.5.~6.1./ 신12)

### 911년

봄 정월 초하루 병술에 일식<sup>354</sup>이 있었다. 궁예가 나라 이름을 태봉(泰封)으로 고치고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라 하였다.

春正月 丙戌朔 日有食之 (中略) 弓裔改國號泰封 年號水德萬歲 (효공왕 15년/ 양 2.2./ 신12)

354)중국의 《구오대사》〈양서〉 '건화(乾化) 원년 정월 병술' 기사에 같은 사실이 실려 있다.



## 913년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고 지진이 났다.

夏四月 隕霜 地震 (신덕왕 2년/ 양 5.9.~6.6./ 신12)

## 914년

봄 3월에 서리가 내렸다. 궁예가 수덕만세를 정개(政開) 원년으로 고쳤다.

春三月 隕霜 弓裔改水德萬歲 爲政開元年 (신덕왕 3년/ 양 3.30.~4.27./ 신12)

## 915년

여름 6월에 참포(槓浦)<sup>355</sup>의 물과 동해의 물이 서로 부딪쳐 물결의 높이가 20장 쯤이나 되었는데 3일 만에 그쳤다.

夏六月 槓浦水與東海水相擊 浪高二十丈許 三日而止

(신덕왕 4년/ 양 7.15.~8.13./ 신12)

355)현재의 경북 포항시 흥해읍의 포구로 추정된다.

## 916년

겨울 10월에 지진이 났는데, 그 소리가 천둥치는 것과 같았다.

冬十月 地震 聲如雷 (신덕왕 5년/ 양 10.30.~11.27./ 신12)

## 917년

봄 정월에 태백(金星)이 달을 범하였다.

春正月 太白犯月 (신덕왕 6년/ 양 1.26.~2.23./ 신12)

## 921년

여름 4월에 경도(경주)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가을 8월에 황해(蝗害)가 있었고 가물었다.

夏四月 京都大風拔樹 秋八月 蝗旱 (경명왕 5년/ 양 5.11.~6.8.; 9.5.~10.3./ 신12)

## 927년

3월에 황룡사탑이 흔들려 북쪽으로 기울어졌다.

三月 皇龍寺塔搖動北傾 (경애왕 4년/ 양4.5.~5.3./ 신12)

356)《고려사》에 따르면 928년 6월 갑술일 벽진군(碧珍郡)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한다(《고려사》권1, 세기1, 태조 11년). 벽진군은 지금의 경북 성주군이다.

## 928년

6월에 지진이 났다.<sup>356)</sup>

六月 地震 (경순왕 2년/ 양6.20.~7.19./ 신12)

## 932년

봄 정월에 지진이 났다.

春正月 地震 (경순왕 6년/ 양2.9.~3.9./ 신12)

## 934년

가을 9월에 노인성(老人星)<sup>357)</sup>이 나타났다.

秋九月 老人星見 (경순왕 8년/ 양10.11.~11.9./ 신12)

357)28수 중 22번째 영역인 정수(井宿)에 속하는 별이다. 한반도에서는 제주도 남단에서만 볼 수 있는 별이다. 이 별을 보면 장수한다고 믿었고, 길조(吉兆)로 받아들여졌다. 서양 이름은 카노푸스이다.

# 《삼국사기》〈잡지〉·〈열전〉

## 제사 / 신라의 제사의례

12월 인일(寅日)<sup>358</sup>에는 신성(新城)<sup>359</sup> 북문에서 팔자(八槽)<sup>360</sup>에 제사한다. 풍년에는 대뢰(大牢)<sup>361</sup> 흉년에는 소뢰(小牢)<sup>362</sup>를 쓴다. 입춘 후 해일(亥日)에는 명활성<sup>363</sup> 남쪽 웅살곡에서 선농(先農)<sup>364</sup>에 제사지내고, 입하 후 해일에는 신성 북문에서 중농(中農)에 제사지내고, 입추 후 해일에는 산원에서 후농(後農)에 제사지낸다. 입춘 후 축일(丑日)에는 견수곡문에서 풍백(風伯)에 제사지내고, 입하 후 신일에는 탁저에서 우사(雨師)에 제사지내고, 입추 후 진일에는 본피유촌에서 영성(靈星)에 제사지낸다.<sup>365</sup>

十二月寅日 新城北門祭八槽 豐年用大牢 凶年用小牢 立春後亥日 明活城南熊殺谷祭先農 立夏後亥日 新城北門祭中農 立秋後亥日 蒜園祭後農 立春後丑日 犬首谷門祭風伯 立夏後申日 卓渚祭雨師 立秋後辰日 本彼遊村祭靈星 (삼국사기 권32 잡지1)

사성문제(四城門祭)<sup>366</sup> 중, 첫째<sup>367</sup>는 대정문, 둘째는 토산량문, 셋째는 습비문, 넷째는 왕후제문에서 지냈다. 부정제(部庭祭)<sup>368</sup>는 양부에서 지냈다. 사천상제(四川上祭)<sup>369</sup> 중 첫째는 견수, 둘째는 문열림, 셋째는 청연, 넷째는 박수에서 지냈다. 문열림에서는 일월제(日月祭)를 지냈고, 영모사 남쪽에서는 오성제(五星祭)를 지냈다. 혜수에서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사대도제(四大道祭)<sup>370</sup>의 동쪽은 고리, 남쪽은 첨병수, 서쪽은 저수, 북쪽은 활병기에서 지냈다. (이외에) 압구제(壓丘祭), 벽기제(辟氣祭)가 있다. 위의 모든 제사는 별제(別制)로 혹은 수재(水災)나 한재(旱災) 때문에 지냈던 것이다.<sup>371</sup>

四城門祭 一大井門 二吐山良門 三習比門 四王后梯門 部庭祭 梁部 四川上祭 一犬首 二文熱林 三靑淵 四樸樹 文熱林行日月祭 靈廟寺南行五星祭 惠樹行祈雨祭 四大道祭 東古里 南簷并樹 西渚樹 北活併岐 壓丘祭 辟氣祭 上件或因別制 或因水旱 而行之者也 (삼국사기 권32 잡지1)

## 제사 / 고구려·백제의 제사의례

고구려·백제의 제사의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옛 기록(古記)과 중국 사서에 실려 있는 것을 적어둘 뿐이다. 《후한서(後漢書)》는 “고구려는

358)인일(寅日)은 '범날'이라고도 한다. 본문의 '12월 인일'은 12월 일진(日辰)의 지지(地支)에 인(寅)이 들어 있는 날을 의미한다.

359)경주의 남산성(南山城)이다. 남산의 산꼭대기를 중심으로 쌓은 석성(石城)이다.

360)신라에서 행해진 팔자의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의 예제(禮制)에 따르면, 팔자는 천자가 납제(臘祭)에 신농(神農), 후직(后稷) 등 8신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8신 중 방(坊)과 수옹(水庸)에게는 물을 조절하여 곡식을 해치는 해충과 잡초가 없도록 기원하는 글을 올렸다.

361)신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갖추는 공물(供物)이나 자세히 알 수 없다. 중국의 《예기(禮記)》에는 천자가 사직에 제사지낼 때 대뢰를 쓰는데, 이때 소(牛), 양(羊), 돼지(豕)를 바쳤다고 한다. 태뢰(太牢)라고도 한다.

362)신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갖추는 공물(供物)이나 자세히 알 수 없다. 중국의 《예기(禮記)》에는 제후가 사직에 제사지낼 때 소뢰를 쓰는데, 이때 양(羊), 돼지(豕)를 바쳤다고 한다.

363)경주시 천문동 명활산에 있는 산성이다.

364)선농(先農)은 농사법을 가르친 중국의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에 대한 제사이다. 중농(中農)과 후농(後農)은 중국에 없는 제사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후농의 제장인 산원(蒜園) 또한 장소가 불분명하다.

365)풍백은 바람을 관장하는 신, 우사는 비를 관장하는 신, 영성(靈星)은 영성(靈星)으로 곡식의 파종과 수확을 관장하는 별이다. 본문에 나오는 견수곡문, 탁저, 본피유촌은 경주 지역으로 추정될 뿐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다. 박성래는 영성(靈星)에 제사드리던 영성단 자리에 첨성대가 세워졌다고 하여, 본피유촌이 현재 첨성대가 있는 곳(경주시 인왕동)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1998,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 교보문고).

366)신라 네 곳의 성문(城門)에서 열린 국가제사이다. 대정문(大井門) 등의 위치가 불명확하나, 왕도가 있던 경주 지역으로 추정된다.

367)《역주 삼국사기》에 따라 ‘첫째’로 해석했다. 본문에 나오는 ‘첫째’, ‘둘째’ 등의 차례가 단순한 나열인지, 제사의 중요성에 따른 것인지 정확치 않다.

368)마을제사로 추정되며, 양부(梁部)는 현재 경주시 황남동 일대로 보인다.

369)신라 네 곳의 물가에서 열린 국가제사이다. 견수(犬首)의 위치가 불명확하나 왕도가 있던 경주 지역으로 추정된다.

370)신라 네 곳의 큰 길에서 열린 국가제사. 고리(古里) 등의 위치가 불명확하나, 왕도가 있던 경주 지역으로 추정된다.

371)사천상제, 사대도제, 압구제, 벽기제 등의 제사는 서로 구분되는 의례였을 것이다. 하지만 수재(水災)나 한재(旱災)가 있을 때는 고유의 목적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그에 맞는 의식이 거행된 것으로 이해된다.

372)귀신은 조상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직은 토지와 곡식신, 영성(靈星, 靈星)은 곡식의 파종과 수확을 관장하는 별이다.

373)칸(Ka-khan), 군장(君長) 혹은 고구려의 시조신이라는 견해가 있다(노명호, 1981, <백제의 동명신화와 동명묘>, 《역사학연구》10).

374)국학은 신라의 교육 기관으로 신문왕 2년(682년)에 설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국학에서 실무를 담당한 대사(大舍)가 이미 진덕여왕 5년(651년)에 있었으므로, 국학의 설립시기를 신문왕 때보다 이르게 본다. 국학에는 경(卿)·박사(博士)·조교(助教)·대사(大舍)·사(史) 등의 직이 있었다.

375)산술교육을 담당한 학자로,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성덕왕 16년(717년)에 설치하였다고 한다.

376)중국 남북조 시대 송(宋)나라의 조충지(祖冲之)가 지은 천문 계산에 관한 책으로 《철술(綴術)》로도 불린다. 원주율, 달과 오성(五星)의 위치 등에 관해 다루었다.

377)중국의 수학서이며, 삼개의 내용은 알 수 없다. 개(開)는 승근(乘根)을 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귀신·사직·영성<sup>372)</sup>에 제사지내기를 좋아한다. 10월에는 하늘에 제사지내기 위해 크게 모이는데, 동맹(東盟)이라 하였다.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어 수신(裊神)이라고 부르는데, 또한 10월에 이를 맞이하여 제사지냈다.”라고 말한다. 《양서(梁書)》는 “고구려는 사는 곳 왼쪽에 큰 집을 짓고 귀신에 제사지냈으며, 영성·사직에도 제사지냈다.”라고 말한다. 《당서(唐書)》는 “고구려는 풍속에 음사(淫祠)가 많고 영성 및 해(日)·기자(箕子)·가한(可汗)<sup>373)</sup> 등의 신에게 제사지냈다. 나라의 왼쪽에 큰 굴이 있어 이를 신수(神隧)라고 하며, 매년 10월에 왕이 모두에게 직접 제사지냈다.”라고 말한다.

高句麗百濟祀禮 不明 但考古記及中國史書所載者 以記云爾 後漢書云 高句麗好祠鬼神社稷零星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其國東有大穴 號裊神 亦以十月迎而祭之 (中略) 梁書云 高句麗於所居之左 立大屋 祭鬼神 又祠零星社稷 唐書云 高句麗俗多淫祠 祀靈星及日箕子可汗等神 國左有大穴 曰神隧 每十月 王皆自祭 (삼국사기 권32 잡지1)

### 직관(職官) 상(上) / 국학

국학(國學)<sup>374)</sup>은 예부(禮部)에 속하였는데 신문왕 2년(682)에 설치하였다. 산학박사(算學博士)<sup>375)</sup>나 조교 1명을 뽑아 절경(綴經)<sup>376)</sup>·삼개(三開)<sup>377)</sup>·구장(九章)<sup>378)</sup>·육장(六章)<sup>379)</sup>을 가르치게 하였다.

國學 屬禮部 神文王二年置 (中略) 差算學博士若助教一人 以綴經三開九章六章教授之 (삼국사기 권38 잡지7)

### 직관(職官) 상(上) / 누각전

누각전(漏刻典)<sup>380)</sup>은 성덕왕 17년(718년)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박사(博士) 6명, 사(史)<sup>381)</sup> 1명이다.

漏刻典 聖德王十七年始置 博士六人 史一人 (삼국사기 권38 잡지7)

### 직관(職官) 중(中) / 평진음전

평진음전(平珍音典)<sup>382)</sup>은 경덕왕이 소궁(掃宮)으로 고쳤으나 후에 옛 이름대로 하였다. 간옹(看翁) 1명, 연옹(筵翁) 1명, 전옹(典翁) 2명이다.

平珍音典 景德王改爲掃宮 後復故 看翁一人 筵翁一人 典翁二人 (삼국사기 권39 잡지8)



## 직관(職官) 중(中) / 천문박사

천문박사(天文博士)<sup>383</sup>는 후에 사천박사(司天博士)<sup>384</sup>로 고쳤다.

天文博士 後改爲司天博士 (삼국사기 권39 잡지8)

## 직관(職官) 중(中) / 빙고전

빙고전(氷庫典)<sup>385</sup>은 대사(大舍)<sup>386</sup> 1명, 사(史) 1명이다.

氷庫典 大舍一人 史一人 (삼국사기 권39 잡지8)

## 직관(職官) 중(中) / 공봉복사

공봉복사(供奉卜師)<sup>387</sup>의 (관원은) 정해진 수가 없다.

供奉卜師 無定數 (삼국사기 권39 잡지8)

## 직관(職官) 하(下) 무관 / 고구려와 백제의 관직

북사<sup>388</sup>에 이르기를 (백제에) “주부(綱部)<sup>389</sup>, 일관부(日官部)<sup>390</sup>, 시부(市部)<sup>391</sup>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北史云 外官有 (中略) 綱部 日官部 市部 (삼국사기 권40 잡지9)

## 김유신<sup>392</sup> 상(上)<sup>393</sup>

서현(舒玄: 김유신의 아버지)이 경진일(庚辰日) 밤에 형혹성(火星)과 진성(토성) 두 별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꿈을 꾸었다. 만명(萬明: 김유신의 어머니)도 신축일(辛丑日) 밤에 한 어린아이가 황금 갑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더니 곧바로 임신하여 20개월 만에 유신을 낳았다.

건복(建福)<sup>394</sup> 29년(진평왕 34년: 612년)에 이웃 나라 도적이 점점 닥쳐오자, (김유신) 공은 장한 마음을 더욱 불러일으켜 혼자서 보검(寶劍)을 가지고 열박산(咽薄山)<sup>395</sup>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갔다. 향을 피우며 하늘에 고하여 빌기를 중약에서 맹서한 것처럼 하였다. 이어서 “천관(天官)<sup>396</sup>께서는 빛을 드리워 보검에 신령을 내려 주소서!”라고 기도하였다. 3일째 되는 밤에 허성(虛星)<sup>397</sup>과 각성(角星)<sup>398</sup> 두 별의 빛줄기가 찬란히 내려오니 같이 마치 흔들리는 듯하였다.

(647년) 병야(丙夜)<sup>399</sup>에 큰 별이 월성에 떨어지니 비담 등은 사병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별이 떨어진 아래에는 반드시 피흘림이 있다.’고 하니, 이는 틀림없이 여왕이 패할 징조이다.”<sup>400</sup>

舒玄 庚辰之夜 夢燹惑鎮二星降於己 萬明亦以辛丑之夜 夢見童子衣金甲

378) 중국의 수학서로서, 저자는 알 수 없다. 263년에 위나라 학자인 유허(劉徽)가 주석을 붙였으며, 전답의 넓이를 언급한 방전(方田) 등 9개 장으로 구성되었다(유희 저, 김해경 역, 1998, 《구장산술》, 서해문집).

379) 중국의 수학서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구장산술을 원본으로 편찬한 산학책으로 보인다(김용운·김용국, 2001, 《한국수학사》, 한국학술정보).

380) 물시계를 관리하던 관청이다. 성덕왕 17년(718년)에 설치하였으며, 경덕왕 8년(749년)에 천문박사 1인과 함께 누각박사 6인을 두었다.

381) 신라 때에 각 관아에 둔 하급 벼슬이며, 경덕왕 때 일시적으로 낭(郎)으로 고쳤다.

382) 평진음전을 개칭한 소궁(婦宮)을 중국의 소대(婦臺)로 보는 견해가 있다. 중국의 소대(婦臺)가 축대를 관리하는 기관이므로, 평진음전은 하천 수위를 감시하는 관청으로 추론하기도 한다(三池賢, 1972, 《新羅內政官制考》下, 《朝鮮學報》 62).

383) 천문과 기상을 담당하던 최고실무관리이며, 경덕왕 8년(749년)에 천문박사를 두었다. 중국의 《대당육전(大唐六典)》에 따르면 천문박사는 “천문기색(天文氣色)의 교육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신라의 천문박사 역시 천문 기상의 업무 외에 교육의 업무도 맡았을 것이다(《역주 삼국사기》).

384) 천문박사를 개칭한 것이나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중국의 당(唐) 나라의 경우 사천대(司天臺)는 천문역수(天文曆數)와 풍운기색(風雲氣色)을 담당하였다(《역주 삼국사기》).

385)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얼음창고인 빙고(氷庫)를 관리하였다. 설치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삼국사기》〈신라본기〉에, “지증 마립간 6년(505년) 처음으로 담당 관청에 명하여 얼음을 저장하게 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386) 신라의 17관등 중의 12번째 관등이다. 대사는 관직과 관등을 부르는 말로 혼용되고 있어 관직과 관등이 구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387) 점을 쳐서 길흉을 살펴보는 점복(占卜)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388) 중국의 역사서로 당나라의 이연수(李延壽)가 북위~수나라 역사 242년 동안의 사실(史實)을 기록하였다.

389) 직물 제조 담당관서로 보인다.

390) 백제의 일반 서정을 담당하던 외관(外官) 10부 중의 하나로 천문·기상과 점복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391) 시장과 유통 업무를 관장한 관청으로 보인다.

392) 김유신(595년~673년)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운 명장이다. 증조부는 532년(법흥왕 19년) 신라에 투항한 금관가야의 구해왕이다. 아버지는 김서현(金舒玄)이며, 어머니는 만명부인(萬明夫人)이다.

393)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은 상(上: 권41), 중(中: 권42), 하(下: 권43)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394) 건복(建福)은 584년(진평왕 6년)부터 633년(선덕여왕 2년)까지 쓰인 연호이다.

395) 현재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과 두동면에 있는 열박재를 말한다.

396) 천관(天官)은 인간 세상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별들에게 높고 낮음을 정해 준 것이다. 본문에서는 가장 큰 별 혹은 도교 삼관신(三官神)의 하나인 천관(天官)을 의미한다.

397) 28수의 11번째 별자리 영역인 허수(虛宿) 혹은 허수에 있는 허(虛) 별자리를 가리킨다. 기준별은 물병자리의 베타(β) 별이다.

398) 28수의 첫째 별자리인 각수(角宿)를 말하기도 하고 각수 안의 각(角) 별자리를 말하기도 한다.

399)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이다.

400) 신라 귀족 비담(毗曇)의 정변을 그린 설화이다. 비담은 선덕여왕 16년(647년)에 반란을 일으켰으며, 이 반란에서 유신은 허수아비에 불을 놓고 연을 띄어보내,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소문을 내는 기지를 발휘했다. 정변은 결국 여왕과 김유신 측의 승리로 끝났다.

401) 백제 멸망 후인 661년 신라가 백제의 남은 세력을 물리치려 갈 때, 고구려가 틈을 노려 신라의 북한산성에 침입한 것을 신라의 도움으로 물리쳤다는 내용이다.



북한산성(서울 은평구, 경기 고양). 고구려는 661년에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 현재의 모습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이다.

乘雲入堂中 尋而有娠 二十月而生庾信 (中略) 建福二十九年 鄰賊轉迫 公愈激壯心 獨携寶劍 入咽薄山深壑之中 燒香告天祈祝 若在中嶽誓辭 仍禱天官垂光 降靈於寶劍 三日夜 虛角二星 光芒赫然下垂 劍若動搖然 (中略) 丙夜 大星落於月城 毗曇等謂士卒曰 吾聞落星之下 必有流血 此殆女主敗績之兆也 (삼국사기 권41 열전)

### 김유신 중(中)

용삭 원년(문무왕 원년: 661년) 봄에 갑자기 큰 별이 (고구려와 맞잡)적의 진영에 떨어졌고 천둥과 벼락이 치고 비가 내렸다. 도적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포위를 풀고 달아났다. 일전에 유신은 도적이 성(북한산성)을 포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사람의 힘을 다하였으니 이제 신령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유신이) 절에 나아가 제단을 마련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마침 하늘의 변괴(天變)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하였다.<sup>401)</sup>

(662년 2월) 장새(獐塞)의 험한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날씨가 매우 추웠고 사람과 말이 지치고 피곤하여 더러는 쓰러지기도 하였다.<sup>402)</sup>

龍朔元年春 忽有大星落於賊營 又雷雨震擊 賊等疑駭 解圍而遁 初庾信聞賊圍城曰 人力既竭 陰助可資 詣佛寺 設壇祈禱 會有天變 皆謂至誠所感也 (中略) 至障塞之險 會天寒烈 人馬疲憊 往往僵仆 (삼국사기 권42 열전2)

## 김유신 하(下)

인덕(麟德) 원년 갑자(664년) 3월에 백제의 남은 무리가 사비성(泗沘城)에 모여 반란을 일으켰다. 웅주도독(熊州都督)<sup>403</sup>이 자기 소관의 병사를 보내 공격하였지만, 여러 날 동안 안개가 끼어 사람과 물건을 분별하지 못해 싸울 수가 없었다.

함녕(咸寧) 4년 계유(673년)는 문무대왕 13년이다. 봄에 요상한 별(妖星)이 나타나고 지진이 있어 대왕이 걱정하였다. 유신이 나아가 아뢰기를, “지금의 변이는 재앙이 저에게 있는 것이지, 국가의 재앙이 아닙니다. 왕은 근심하지 마옵소서!”하였다. 대왕이 “이와 같다면 과인이 더욱 근심하는 바이다.”하고 담당 관서에 명하여 기도하여 물리치게 하였다. (김암<sup>404</sup>은) 대력(大曆) 연간에 귀국하여 사천대박사(司天大博士)<sup>405</sup>가 되었다. 일찍이 황충(蝗蟲)이 발생해 서쪽에서 패강(溟江: 현재의 대동강)의 경계로 들어와 우글우글하며 들판을 덮으니 백성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다. 김암이 산마루에 올라가 분향하고 하늘에 기도하였더니 갑자기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 황충을 모두 죽였다. 그해(혜공왕 15년: 779년) 여름 4월에 회오리바람(旋風)이 세차게 일어나 유신의 묘소에서 시조대왕의 능에까지 이르렀는데, 짙은 연기와 안개 때문에 어두워서 사람을 분간할 수 없었다.

麟德元年甲子三<sup>406</sup>月 百濟餘衆 又聚泗沘城反叛 熊州都督發所管兵士攻之 累日霧塞 不辨人物 是故不能戰 (中略) 咸寧四年癸酉 是文武大王十三年 春 妖星見 地震 大王憂之 庾信進曰 今之變異 厄在老臣 非國家之災也 王請勿憂 大王曰 若此則寡人所甚憂也 命有司祈禳之 (中略) 大曆中還國 爲司天大博士 (中略) 嘗有蝗蟲 自西入溟江之界 蠢然蔽野 百姓憂懼 巖登山頂 焚香祈天 忽風雨大作 蝗蟲盡死 (中略) 夏四月 旋風坌起 自庾信墓至始祖大王之陵 塵霧暗冥 不辨人物 (삼국사기 권43 열전3)

## 을지문덕(乙支文德)<sup>407</sup>

을지문덕이 우중문<sup>408</sup>에게 시를 지어 보냈다. “신통한 계책은 천문(天文)<sup>409</sup>을 꿰었고, 묘한 계산은 지리(地理)<sup>410</sup>를 다했도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족한 줄 알아서 그만둬야 어찌하리.”

文德遺仲文詩曰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既高 知足願云止 (삼국사기 권44 열전4)

402)662년 《삼국사기》〈신라본기〉에 나오며, 장사는 현재의 황해도 수안군 일대이다.

403)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웅주(충남 공주)에 세운 행정 구역의 최고 책임자이다.

404)김유신의 손자인 윤중(允中)의 서손(庶孫)이다. 당나라에서 천문·지리·역수와 관련된 음양술(陰陽術)을 배웠으며, 대력(大曆) 연간(766년~779년)에 귀국하여 사천대박사가 되었다.

405)사천박사(司天博士) 위에 둔 직책으로 추정된다.

406)원문에 ‘甲子三’은 보이지 않으나 《삼국사기》〈신라본기〉 문무왕 4년 기사를 참고하여 넣었다.

407)고구려의 장군으로 생물년은 알 수 없다. 중국의 《자치통감》에서는 위지문덕(尉支文德)이라고도 하였다. 612년(영양왕 23년) 중국 수(隋)나라의 군대를 살수(薩水: 지금의 청천강)에서 물리쳤다.

408)우중문(于仲文)은 중국 하남군(河南郡) 낙양(洛陽)사람으로, 수나라의 정치가 겸 장군이다. 을지문덕에게 패한 후 하옥되었다.

409)근대 이전에 동양과 서양에는 순수 천문학 장르는 없었다. 천문(天文)은 하늘의 무늬(紋)로 풀이할 수 있다. 천문을 인문(人文)과 대비하면 ‘하늘의 문법’이라 할 수 있으며, 지리(地理)와 함께 천지의 도(道)를 조율하는 역(易)의 하위 개념이다 (김일권, 2007,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410)어의적으로는 땅의 생긴 모양(機樣) 또는 형편(形便)이다. 천문(天文)과 대비하여 천문을 양(陽), 지리를 음(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역》〈계사전〉에 따르면 “우러러 천문을 살피고, 구부러 지리를 살핀다(仰以觀天文 俯以察地理).”고 하였다.





상서장(경주 인왕동) 최치원이 임금에게 글을 올린 곳으로 알려져 있다.

411) 김인문(629년~694년)은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며 문무왕의 아우이다. 삼국 통일기에 장군·외교관으로 활동했다.

412) 김인문이 평양을 포위한 당나라 군대에 식량을 전해주었으나, 싸우지 않고 돌아갔다는 기사이다. 본 열전에 날짜 언급이 없으나, 《삼국사기》〈신라본기〉에 662년(문무왕 2년) 2월로 되어 있다.

413) 김양(808년~857년)은 신라 하대의 귀족으로 838년 정변을 일으켜 김우징(金祐徵)을 도와 왕(신무왕)으로 추대했다. 시중 겸 병부령을 역임했다.

414) 최치원(857년~?)은 경주 사랑부 출신으로 신라 하대의 학자이다. 작품으로는 《계원필경》·《법장화상전》·《사산비명》이 지금까지 전한다.

415) 당황제의 요청으로 733년 신라는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였다. 《삼국사기》〈신라본기〉 733년 기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416) 신라 문무왕 때의 장수로 생몰년은 알 수 없다. 662년 장새(황해도 수안)에서 고구려를 공격하는 당나라 군에게 식량 지원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성공적으로 전했다. 《삼국사기》〈신라본기〉 662년 기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김인문(金仁問)<sup>411)</sup>

당나라 사람들은 식량을 얻었으나 큰 눈이 내렸기 때문에 (평양)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sup>412)</sup>

唐人得食 以大雪解圍還 (삼국사기 권44 열전4)

### 김양(金陽)<sup>413)</sup>

(838년) 겨울에 혜성(彗孛)이 서쪽에 나타났다. 꼬리(芒角)가 동쪽을 가리키니 여러 사람들이 하례하기를 “이것은 옛 것을 제거하고 새 것을 펴며, 원수를 갚고 수치를 씻을 상서이다.”라고 하였다.

冬 彗孛見西方 芒角指東 衆賀曰 此除舊布新 報冤雪恥之祥也

(삼국사기 권44 열전4)

### 최치원(崔致遠)<sup>414)</sup>

깊은 겨울 눈이 많이 쌓이고 양국 군대가 추위에 시달리므로 회군을 명하셨습니다.<sup>415)</sup>

以冬深雪厚 蕃漢苦寒 勅命廻軍 (삼국사기 권46 열전6)

### 열기(裂起)<sup>416)</sup>

장새(獐塞)에 이르러 바람과 눈이 몹시 차가워 사람과 말이 많이 얼어 죽었다.

到獐塞 風雪沍寒 人馬多凍死 (삼국사기 권47 열전7)



### 향덕(向德)<sup>417</sup>

천보(天寶) 14년 을미(경덕왕 14년: 755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는데 역병마저 돌았다.

天寶十四年乙未 年荒民饑 加之以疫癘 (삼국사기 권48 열전8)

### 검군(劍君)<sup>418</sup>

건복(建福) 44년 정해(진평왕 49년: 627년) 가을 8월에 서리가 내려 여러 곡식을 해쳤다. 다음 해 봄과 여름까지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자식을 팔아 끼니를 때웠다.

建福四十四年丁亥 秋八月 隕霜殺諸穀 明年春夏大飢 民賣子而食 (삼국사기 권48 열전8)

### 창조리(倉助利)<sup>419</sup>

창조리가 간하였다. “하늘의 재앙이 거듭 닥치고 흉년이 들어 백성이 살 길을 잃었습니다.”

倉助利諫曰 天災荐至 年穀不登 黎民失所 (삼국사기 권49 열전9)

### 궁예(弓裔)

(궁예는) 5월 5일에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지붕 위에 흰 빛이 있어 긴 무지개처럼 위로 하늘에까지 뻗었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이 아이는 중오일(重午日)에 출생하였고 나면서 이빨이 나고, 또 햇빛이 이상하니 아마 장차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이오니 마땅히 이 아이를 키우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창근<sup>420</sup>이 처음에는 (거울에) 글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이를 발견하고는 보통 것이 아니라 하여 왕(궁예)에게 이를 아뢰었다. 왕은 담당 관청에 명하여 창근과 더불어 그 원래 거울 주인을 찾으려 하였는데 찾지 못하였다. 오직 발삼사(教颯寺)<sup>421</sup> 불당에 있는 진성(鎭星: 토성)의 소상(塑像)<sup>422</sup>이 그 사람과 같았다.<sup>423</sup>

五月五日 生於外家 其時屋上有素光 若長虹 上屬天 日官奏曰 此兒以重午日生 生而有齒 且光焰異常 恐將來不利於國家 宜勿養之 (中略) 昌瑾初不知有文 及見之 謂非常 遂告于王 王命有司 與昌瑾 物色求其鏡主 不見 唯於教颯寺佛堂 有鎭星塑像 如其人焉 (삼국사기 권50 열전10)

417)신라 경덕왕 때의 효자로 흉년이 들자 부모에게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봉양했다고 한다.

418)신라 진평왕 때의 관리로 기근을 맞아 동료들이 곡식을 훔쳐서 나누었는데, 검군만은 받지 않았다. 후에 동료들의 술자리에 몇몇이 참석하여 독주를 마시고 죽었다.

419)고구려의 재상으로, 300년에 봉상왕(292년~300년)을 폐위시키고 미천왕(美川王)을 옹립하였다.

420)당나라 상인으로, 철원의 시장에서 왕건의 고려 건국을 예언한 거울을 어떤 거사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421)강원도 철원에 있던 절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422)발삼사에 있던 토성을 신격화하여 참혹으로 만든 형상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동주(東州: 강원도 철원) 발삼사의 치성광여래상(熾盛光如來像) 앞에 토성을 맡은 신의 옛날 소상이 도마와 거울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고려사>권1, 세가1, 태조).

423)궁예 열전에는 궁예의 연호 개칭 기사가 나오나 생략했다.

# 《삼국유사》

424)신라 17대 왕(재위: 356년~402년)으로 《삼국사기》에는 나물이사금(奈勿尼師今)으로 표기되어 있다. 왕릉은 경주시 교동계림 서쪽에 있는 능으로 추정된다.

425)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침성대(瞻星臺)를 말한다.



강화도 참성단.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쌓은 제단이라고 전한다.

426)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의 아버지이다.

427)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는 도교적 명칭으로 바람·비·구름을 주관하는 신. 주술사 등으로 이해된다(최병현, 1994,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 출판부).

428)신라의 제3대 왕인 노례왕(弩禮王, 24년~57년)은 《삼국사기》에서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으로 되어 있다.

429)《삼국사기》〈신라본기〉 지증마립간 6년(505년)에 “담당 관청에 명하여 얼음을 저장하게 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다.

430)신라 아달라왕 4년(157년)에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바위에 실려 일본으로 가자 신라에서 해와 달의 광채가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일본서기》에 신라 왕자 천일창(天日槍)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설화와 유사하다. 연오랑 세오녀 설화는 태양 이동설화로, 이 설화의 자연적 배경으로는 일식 현상을 상상할 수 있다(강현모, 1986, 〈연오랑·세오녀 설화 일고〉, 《한양어문연구》4).

## 나물마립간(奈勿麻立干)

제 17대 나물마립간<sup>424)</sup>. 능(陵)은 점성대(占星臺)<sup>425)</sup> 서남쪽에 있다.  
第十七 奈勿麻立干 (中略) 陵在占星臺西南 (삼국유사 권1 왕력1)

## 고조선(古朝鮮)

이분이 환웅<sup>426)</sup> 천왕이니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sup>427)</sup>를 거느리고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을 맡아서 다스렸다.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 雨師 雲師 而主穀 主命 主病 主刑 主善惡 (삼국유사 권1 기이2)

## 제3 노례왕(第三 弩禮王)

(노례왕<sup>428)</sup> 때) 비로소 보습과 얼음 창고(藏氷庫)<sup>429)</sup>와 수레를 만들었다.  
始製犁蝦及藏氷庫 作車乘 (삼국유사 권1 기이2)

## 연오랑 세오녀(延烏郎 細烏女)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에 광채가 사라졌다.<sup>430)</sup> 일자(日者)가 아뢰었다.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내려왔던 것이 지금 일본으로 가버렸으니 이러한 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是時 新羅日月無光 日者奏云 日月之精 降在我國 今去日本 故致斯怪 (삼국유사 권1 기이2)

## 지철로왕(智哲老王)

아슬리<sup>431)</sup>주[지금의 명주]<sup>432)</sup>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순풍(便風)으로 이를 걸리는 거리에 울릉도<sup>433)</sup>[지금은 우릉이라 한다]가 있다.  
阿瑟羅州[今溟州] 東海中 便風二日程 有弓陵島[今作羽陵] (삼국유사 권1 기이2)



감은사 터(경북 경주시 양북면). 만파식적 설화의 배경이 된 곳이다. 3층석탑 2기와 건물터가 남아 있다.

### 선덕왕 지기삼사(善德王 知幾三事)

별도의 기록에 따르면, 이 왕(선덕여왕) 때에 돌을 다듬어 침성대(瞻星臺)<sup>434</sup>를 쌓았다고 한다.

別記云 是王代 鍊石築瞻星臺 (삼국유사 권1 기이2)

### 김유신(金庾信)

유신공은 진평왕 17년 을묘년(595년)에 태어났다. 칠요(七曜)<sup>435</sup>의 정기를 타고났으므로 등에 칠성(七星)의 무늬가 있었고 신비한 일이 많았다.

庾信公 以眞平王十七年乙卯生 稟精七曜 故背有七星文 又多神異 (삼국유사 권1 기이2)

### 만파식적(萬波息笛)

동해바다에 작은 산이 떠서 감은사(感恩寺)<sup>436</sup>로 향해 오는데, 물결을 따라 왔다갔다 한다고 한다. 왕은 이를 이상히 여겨 일관(日官) 김춘질(金春質) [혹은 춘일(春日)이라고도 쓴다]에게 점을 치게 하였다. 왕(신문왕)이 감은사로 가서 머물렀다. 이튿날 오시(午時)에 대나무가 합쳐져 하나가 되고 천지가 진동하고 비바람이 일어 7일이나 어두웠다. 그달 16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바람이 잦아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sup>437</sup>

東海中有小山 浮來向感恩寺 隨波往來 王異之 命日官金春質[一作春日] 占之 (中略) 王御感恩寺宿 明日午時 竹合爲一 天地振動 風雨晦暗七日 至其月十六日 風霽波平 (삼국유사 권2 기이2)

431)하슬라(何瑟羅)라고도 하며, 현재의 강원도 강릉 지역이다. 757년(경덕왕 16년)에 명주(溟州)로 이름을 바꾸었다.

432) [ ]는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이 주석한 부분이며, ‘지금(今)’은 《삼국유사》를 편찬한 13세기 말을 뜻한다.

433)울릉도(烏陵島)는 지금의 울릉도(鬱陵島)이다. 512년(지증왕 13년)에 신라가 하슬라주(何瑟羅州) 군주 이사부(異斯夫)를 파견해 신라에 복속시켰다. 지철로왕(智哲老王)은 지증왕(智證王)을 말하며, 지도로(智度路)라고도 한다.

434)침성대(古星臺)이며, 경북 경주시 인왕동에 있다. 침성대의 기능과 외형에 대해서는 크게 천문대설, 제천단설, 상징물설로 나눌 수 있다. 천문대설은 기기를 사용하여 천체의 위치나 천문현상이 일어난 시각을 측정하였다는 주장과 육안으로 천변 관측만을 하였다는 주장, 그리고 침성대 자체가 규표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제천단설은 침성대가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이라는 것이며, 상징물설은 불교의 수미산이다. 중국의 수학책인 《주비산경》의 원리를 반영하였다는 주장이다. 천문대설을 주장한 박창범은 침성대가 천문대이기는 하지만 기능이나 외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천단설이나 상징물설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하였다(2009, <경주침성대>, 《한국의 전통 천문의기: 제2회 소남천문학사연구소 심포지움》).



경주 침성대



435)해, 달,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을 말한다. 칠정(七政, 칠성(七星)이라고도 하며, 고대 동양 사회에서 점성술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칠요는 때때로 북두칠성, 천지인(天地人) 삼재와 4계절(四時)을 가리키기도 한다.

436)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에 있던 절이며, 신라 31대 신문왕이 부왕 문무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하였다. 같은 사지에는 국보 제112호인 삼층석탑 2기가 남아 있다.

437)《삼국유사》〈만파식적〉에 따르면 작은 산 위에 대나무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하나가 되었다. 신문왕은 그 대나무로 피리(만파식적)를 만들었는데,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았다고 한다. 만파식적 설화는 역사적으로 신문왕의 왕권강화 정책과 관련지어 설명한다(김상현, 1981, 〈만파식적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 34).

438)《삼국사기》〈신라본기〉 성덕왕에도 같은 기록이 나온다.

439)《삼국사기》〈신라본기〉 혜공왕 2년(766년) 기사에 “강주(康州)에서 땅이 꺼져 못이 되었는데, 길이와 넓이가 50여 자였으며 물빛은 검푸른 색이었다.”고 나와 있다. 강주(康州)는 현재의 경남 진주이다.

440)연도의 차이는 있지만, 《삼국사기》〈신라본기〉 혜공왕 4년(768년) 기사에 “6월 경도에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려 풀과 나무들이 상하였다. 큰 별이 황룡사 남쪽에 떨어졌는데,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천동소리와 같았다.”라는 내용이 있다.

441)《삼국사기》〈신라본기〉 혜공왕 3년(767년)에 “7월에 별 세 개가 왕궁 뜰에 떨어져 서로 맞부딪쳤는데, 그 빛이 불꽃처럼 치솟았다가 흩어졌다.”라고 쓰여 있다.

442)병서(兵書)로 추정될 뿐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재이(災異)와 정치의 상관성을 보여 주고 있다.

443)조설(早雪)은 기상 기록인 강설(降雪)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이나 불교 중심의 《삼국유사》의 서술방식과 구별된다. 또한 이들 강설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는 점도 특이하다.

## 성덕왕(聖德王)

제33대 성덕왕 신룡(神龍) 2년 병오(706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굶주림이 심하였다. 정미(707년) 정월 초하루부터 7월 30일까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곡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 하루 3승(升)으로 하였다.<sup>438)</sup>

第三十三 聖德王 神龍二年丙午 歲禾不登 人民飢甚 丁未正月初一日 至七月三十日 救民給租 一口一日三升爲式 (삼국유사 권2 기이2)

## 혜공왕(惠恭王)

대력(大曆) 초년(766년, 혜공왕 2년)에 강주(康州) 관청의 대당(大堂) 동쪽 땅이 점점 꺼져서 연못이 되었는데[다른 책에는 대사(大寺) 동쪽의 조그만 연못이라 하였다], 세로가 13자이고 가로가 7자였다. 갑자기 잉어 5마리가 서로 계속해서 점점 커졌는데 (그에 따라) 연못도 넓어졌다.<sup>439)</sup> 대력 2년 정미(767년, 혜공왕 3년)에는 또 천구성(天狗星)이 동루(東樓) 남쪽에 떨어졌는데, 머리는 항아리만 하고 꼬리는 3척 가량 되었으며, 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하늘과 땅도 모두 흔들렸다.<sup>440)</sup> 또 이해(767년)에 금포현(今浦縣)의 5이랑(頃) 정도 되는 논에서 쌀알이 모두 이삭이 되었다. 이해 7월에는 북궁(北宮) 뜰에 먼저 별 두 개가 떨어지고 또 다시 별 하나가 떨어졌다. 세 별은 모두 땅으로 들어갔다.<sup>441)</sup> 안국병법(安國兵法)<sup>442)</sup> 하권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세상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대사령을 내리고 몸을 담고 반성하였다.

大曆之初 康州官署大堂之東地 漸陷成池[一本大寺東小池] 從十三尺 橫七尺 忽有鯉魚五六 相繼而漸大 淵亦隨大 至二年丁未 又天狗墜於東樓南頭如瓮 尾三尺許 色如烈火 天地亦振 又是年 今浦縣稻田五頃中 皆米顆成穗 是年七月 北宮庭中 先有二星墜地 又一星墜 三星皆沒入地 (中略) 據安國兵法下卷云 天下兵大亂 於是大赦修省 (삼국유사 권2 기이2)

## 조설(早雪)<sup>443)</sup>

이른 눈(早雪), 40대 애장왕(哀莊王) 말년 무자(戊子, 808년) 8월 15일에 눈이 내렸다.<sup>444)</sup> 41대 헌덕왕(憲德王) 원화(元和) 13년 무술(戊戌, 818년) 3월 14일에 많은 눈이 내렸다.<sup>445)</sup> [어떤 책에는 병인(丙寅)이라 했지만 잘못이다. 원화는 15년에 끝났기 때문에 병인이 없다].<sup>446)</sup> 46대 문성왕(文聖王) 기미(己未, 839년) 5월 19일에 많은 눈이 내렸다.<sup>447)</sup> 8월 1일에는 사방이 캄캄해졌다.<sup>448)</sup>



早雪 第四十 哀莊王 末年戊子八月十五日 有雪 第四十一 憲德王 元和十三年戊戌三月十四日 大雪[一本作丙寅 誤矣 元和盡十五 無丙寅] 第四十六 文聖王 己未五月十九日 大雪 八月一日 天地晦暗 (삼국유사 권2 기이2)

### 처용랑 망해사(處容郎 望海寺)

제49대 헌강대왕(憲康大王) 때는 경사(경주)에서 해내(海內)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연이어져 있었으며,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 길에 풍악과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철마다 순조로웠다.<sup>449)</sup>

第四十九 憲康大王之代 自京師至於海內 比屋連牆 無一草屋 笙歌不絕 道路 風雨調於四時 (삼국유사 권2 기이2)

### 효공왕(孝恭王)

신덕왕(神德王) 즉위 4년 을해(915년) 3월에 두 번이나 서리가 내렸고, 6월에는 참포(斬浦)의 물과 바다 물이 서로 사흘 동안이나 싸웠다.<sup>450)</sup>

神德王 即位四年乙亥 三月 再降霜 六月 斬浦水與海水波相鬪三日 (삼국유사 권2 기이2)

### 후백제 건원(後百濟 甄萱)

당나라 소종 경복(景福) 원년(892년)은 신라 진성왕 재위 6년이다. 이때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곁에 있어서 국권을 농간하니 기강이 어지러워지고 해이해졌다. 더구나 기근이 더해져 백성들은 떠돌아다니고 도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sup>451)</sup>

唐昭宗景福元年 是新羅眞聖王在位六年 嬖豎在側 竊弄國權 綱紀紊弛 加之以飢饉 百姓流移 群盜蜂起 (삼국유사 권2 기이2)

### 백률사(栢栗寺)

천수 4년[장수 2년] 계사(癸巳, 693년) 3월(暮春). 상서로운 구름이 천존고(天尊庫)를 덮었다. 6월 12일에 혜성(彗星)이 동쪽에 나타나더니, 17일에 혜성(彗)이 서쪽 하늘에 나타났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금적(琴笛: 거문고와 피리)의 상서로움을 보고 벼슬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신적(神笛)을 책호(冊號)하여 만만파파식(萬萬波波息)이라 했더니 혜성이 곧 사라졌다.<sup>452)</sup>

天授四年[長壽二年]癸巳暮春之月 (中略) 瑞雲覆天尊庫 (中略) 六月十二日 有彗星孛于東方 十七日 又孛于西方 日官奏曰 不封爵於琴笛之瑞 於是冊號神笛爲萬萬波波息 彗乃滅 (삼국유사 권3 탑상4)

444)《삼국사기》 애장왕 8년(807년, 정해년) “가을 8월에 큰눈이 내렸다.”는 기사와 1년의 차이가 있다. 《삼국유사》 저자 일연이 《삼국사기》를 참고한 것을 고려하면 807년~808년 2년 연속으로 8월에 눈이 온 사실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삼국시대 연력표》에 따르면 808년 8월 15일은 양력 9월 9일이다.

445)원화 13년(818년)은 헌덕왕 10년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신라본기〉 헌덕왕 10년 기사에는 강설(降雪) 기록이 없다. 《삼국시대 연력표》에 따르면 818년 3월 14일은 양력 4월 22일이다.

446)원화(元和)는 당나라 현종 때 15년간(806년~820년) 쓰인 연호이다. 일연이 구체적 인 책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어떤 책(一本)”에는 “원화 몇 년 병인(丙寅)”으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연이 말하였듯이 원화 연간에는 병인년이 있지 않다. 가장 가까운 병인년은 786년(신라 원성왕 2년)과 846년(신라 문성왕 8년)이다.

447)《삼국사기》에는 문성왕 기미년(839년)에 눈이 내렸다는 기록이 없다. 한편 839년 5월 19일은 양력 7월 3일이다. 기상학적인 관점에서 이 시기에 눈이 내렸다는 기록은 믿기 힘들다.

448)《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나오지 않는다.

449)헌강왕(재위: 875년~886년)때 신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다 하였지만,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시기였다. 879년에 신흥(言弘)의 반란이 있었으며, 당나라에서는 황소(黃巢)의 난이 전국을 휩쓸었다. 또한 왕 말기에 흑수말갈 세력이 신라를 침입하였다는 주장도 있다(이기동, 1980, 〈신라하대의 왕위계승과 정치과정〉, 《역사학보》 85).



백률사(경주 동천동) 신라 때 번창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재건되었다.

450)《삼국사기》〈신라본기〉 신덕왕 4년(915년)에는 3월에 서리가 내렸다는 기사가 없다.

451)진성왕(진성여왕, 재위 887년~897년) 때에는 상대등 위홍(魏弘)의 국권 농간, 원종(元宗)과 애노(哀奴)의 반란 등이 있었다. 견훤은 892년에 무진주(지금의 광주)에서 후백제를 세웠다.

452)《삼국사기》〈신라본기〉 효소왕 기사에는 없다. 천존고(天尊庫)는 왕실의 보물을 보관하던 창고로 이해된다.

453)신라는 독자적인 연호가 있었으나, 진덕왕 4년(650년)에 중국의 연호를 도입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신라본기〉에 전한다.

454)《삼국사기》〈신라본기〉 경덕왕 12년(753년) 기사에는 가뭄 기록이 없다.

455)중국 북량(北凉)의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한 대승 불교 경전으로 석가모니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광명경(金光明經)》이라고도 하며, 《인왕경(仁王經)》·《법화경(法華經)》과 함께 호국 3부경(三部經)으로 존송되던 호국경전이다.

456)《삼국사기》〈신라본기〉 경덕왕 19년(760년) 기사에는 없다. 다만 이듬해(761년) 봄 정월 초하루에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다는 기사가 있다.

457)부처님이 지나는 길에 꽃을 뿌려 그 발길을 영화롭게 한다는 불교의 전통의식이다. 일반적으로 산화(散花)에는 종이로 만든 연꽃을 사용한다.

458)《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진평왕 재위 시절에 혜성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다.

459)심수(心宿)의 큰 별로, 서양별자리로는 전갈자리의 일등성인 안타레스를 말한다.

### 자장정률(慈藏定律)

경술년(650년)에 (중국의) 정삭(正朔)을 받아 영휘(永徽) 연호를 쓰기 시작했다.<sup>453)</sup>

庚戌又奉正朔 始行永徽號 (삼국유사 권4 의해5)

### 현유가 해화엄(賢瑜珈 海華嚴)

경덕왕 천보(天寶) 12년 계사(753년) 여름에 크게 가뭄이 드니,<sup>454)</sup> 조서를 내려 (대현스님을) 궁궐로 들어오게 하였다. (스님에게) 《금광경(金光經)》<sup>455)</sup>을 강론하여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케 하였다.

景德王 天寶十二年癸巳 夏大旱 詔入內殿 講金光經 以祈甘霖 (삼국유사 권4 의해5)

### 월명사 도솔가(月明師 兜率歌)

경덕왕 19년 경자(760년) 4월 초하루에 해가 두 개나 나타나 열흘 동안이나 없어지지 않았다.<sup>456)</sup>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인연이 있는 중을 불러 산화공덕(散花功德)<sup>457)</sup>을 드리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월명이 도솔가를 지어 읊은 후에) 해의 괴변이 사라졌다.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並現 挾旬不滅 日官奏 請緣僧 作散花功德 則可禳 (中略) 既而日怪即滅 (삼국유사 권5 감통7)

### 융천사 혜성이 진평왕대(融天師 彗星歌 眞平王代)

세 화랑들이 풍악에 놀러 가려는데, 혜성(彗星)<sup>458)</sup>이 심대성(心大星)<sup>459)</sup>을 범하였다. 낭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가려던 것을 그만두려 하였다. 이때에 융천사가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별의 괴변이 사라지고 (신라를 침범하려던) 일본의 병사들이 제 나라로 돌아가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

三花之徒 欲遊楓岳 有彗星犯心大星 郎徒疑之 欲罷其行 時天師作歌 歌之星怪即滅 日本兵還國 反成福慶 (삼국유사 권5 감통7)

㉟ 주요 기록 횟수 - 시대 · 현상별 ㉟

기상기록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뭄	112 (26.4%)	1
눈	39 (9.2%)	3
서리	39 (9.2%)	1
비	38 (9%)	1
우박	37 (8.7%)	0
천둥	31 (7.3%)	0
큰물	30 (7.1%)	0
바람	29 (6.8%)	1
번개, 벼락	20 (4.7%)	0
무지개 관련(햇무리)	9	1
폭풍	9	0
안개	9	0
흄비	8	0
구름	7	0
오로라	7	0
합	424	8
<b>천문기록</b>		
일식	66 (30.3%)	0
혜성(때성, 장성, 요성 포함)	55 (25.2%)	3
유성	45 (20.6%)	2
금성(태백성)	23 (10.6%)	0
토성(鎮星)	10 (4.6%)	0
화성	7	0
객성(신성, 초신성)	5	0
항성(노인성 포함)	3	0
기타(필성, 오성)	2	0
세성(목성)	1	0
수성(辰星)	1	0
합	218	5
<b>지진기록</b>		
지진	88 (90.7%)	0
땅	갈라졌다	5
	진동, 흔들렸다	3
	꺼졌다	1
합	97	2

### ㉟ 연대별 주요 기록 횟수 ㉟

기록	시기 현상	기원전 54년 ~기원전 1년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901년 ~934년	합
기상	가뭄	1	<b>10</b>	<b>10</b>	<b>17</b>	<b>12</b>	<b>15</b>	<b>10</b>	<b>10</b>	<b>14</b>	<b>10</b>	3	112
	서리	0	4	7	4	3	4	3	3	2	3	5	38
	우박	0	6	4	6	1	6	3	2	7	1	1	37
	비	0	3	6	6	3	4	1	6	5	2	0	36
	눈	2	1	6	1	2	3	3	7	5	6	0	36
	큰물	0	4	4	2	1	6	4	3	2	4	0	30
	천동	1	3	5	4	2	2	3	5	2	3	0	30
	바람	0	3	1	3	2	6	2	5	3	2	1	28
	번개, 벼락	0	1	1	1	0	0	1	9	5	1	0	19
천문	일식	7	6	<b>19</b>	7	5	6	6	0	3	6	1	66
	혜성 (때성, 장성, 요성)	3	5	9	5	8	3	2	8	8	3	1	55
	유성	0	1	2	0	4	2	3	<b>10</b>	<b>15</b>	4	1	42
	금성(태백)	0	1	0	5	2	0	1	3	4	6	1	23
지진	지진	0	<b>10</b>	<b>10</b>	<b>10</b>	5	5	6	<b>12</b>	<b>19</b>	7	4	88

\*《삼국사기》〈잡지〉, 〈열전〉과 《삼국유사》의 기록은 연대가 불분명하여 본 표에 포함시킬 수 없었음.

\*10회 이상의 기록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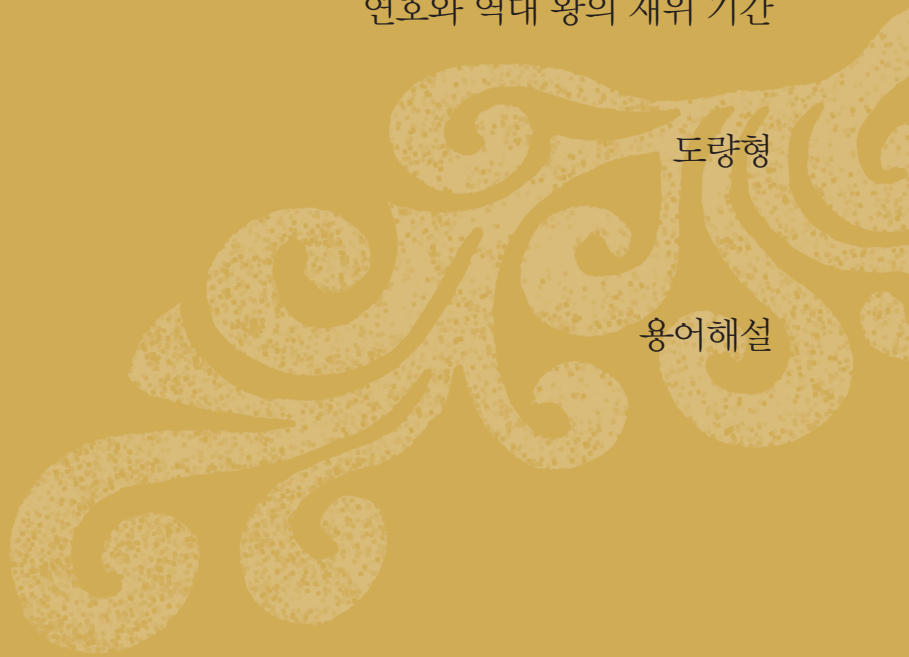


영토의 시대별 변화

연호와 역대 왕의 재위 기간

도량형

용어해설



## ㉟ 영토의 시대별 변화 ㉟

《삼국사기》 기상관련 자료에는 “봄 3월에 많은 눈이 내렸다.”와 같이 관측지점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많다. 이렇게 특별히 지명이 언급되지 않는 기록들은 당시 수도에서 관측한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sup>1)</sup> 또한 “4월에 나라 서쪽에 가뭄이 들었다.”와 같이 관측 지점이 모호한 기사도 있다. 그러므로 해당 국가의 수도를 중심으로 나라의 영역 전체 입장에서 방위를 이해해야 한다.

1)《삼국사기》〈신라본기〉 경순왕 2년(928년) 기사에 “6월에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지명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수도인 경주라고 추정하게 된다. 그런데, 《고려사》 태조 11년(928년) 조에는 “6월 벽진군(경북 성주)에서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두 기록을 비교하면 지명 언급이 없는 지진을 당시 수도에서 관측한 것으로만 추정하기도 어렵다.



4세기



5세기

## 고구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부여에서 남하한 주몽(동명성왕)이 세운 국가이다. 주몽은 중국의 요녕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 오녀산성 일대로 추정되는 졸본(卒本)에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유리(瑠璃)왕은 재위 22년(기원후 3년)에 수도를 국내성(國內城)으로 옮겼다. 국내성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국의 길림성(吉林省) 집안현(輯安縣) 지역으로 이해된다. 이후 고구려 수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지만, 대체로 장수왕 15년(427년)의 평양 천도 때까지 국내성 지역을 고구려의 수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구려는 427년 이후부터 멸망 때(668년)까지 평양에 수도를 두었다.



6세기



남북국 시대

고구려는 기원후 1세기부터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사방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태조왕은 1세기에 함흥 지방의 옥저(沃沮)를 복속시켰고 요동군과 현토군을 공격하면서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다. 미천왕은 313년에 낙랑군을, 314년에는 대방군을 정벌하여 고구려의 영토로 삼았다. 정복군주인 광개토왕(391년~413년)은 요동을 완전히 차지하여 만주 대륙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 아들 장수왕(413년~491년)은 475년, 백제의 개로왕을 몰아내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551년, 백제와 신라의 공격으로 한강을 빼앗긴 이후 한강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중국의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세력에 의해 668년에 망하였다.

## 백제

백제 시조 온조왕은 수도를 위례성(慰禮城)으로 정하였다. 위례성의 위치를 충남 천안시 직산(稷山)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대체로 한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廣州) 일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왕이 거주하던 왕성(王城)으로 주목받고 있다. 백제는 개로왕 21년(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을 받아 웅진(지금의 충남 공주)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리고 성왕 16년(538년)에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된 사비(지금의 충남 부여)로 천도하였다.

백제의 영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삼국사기》 기록을 그대로 따를 경우 온조왕 때 이미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예성강, 동쪽으로는 춘천 지방, 남쪽으로는 직산과 온양 방면까지 이른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당시 마한이나 한나라 군현과의 관계로 보아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4세기 근초고왕 때는 전라도 지방과 낙동강 서쪽의 가야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475년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 현재의 경기·충청·전라 3도와 낙동강 중류 지역, 강원·황해 2도의 일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는 웅진시대(475년~538년)와 마지막 사비시대(538년~660년)에 한강을 장기적으로 점유하지 못했다. 다만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성왕이 551년 고구려의 내분을 틈타 한강 하류지역을 일시 점거하였으나, 553년 신라 진흥왕의 침입으로 다시 빼앗겼다.



## 신라

신라는 건국 후 935년 멸망할 때까지 현재의 경상북도 경주에 수도를 두었다. 건국 당시(기원전 57년) 경주평야에 머물렀으나, 점차 주변의 여러 소국과 가야의 여러 나라를 병합하면서 세력을 키웠다. 오늘날 낙동강 동쪽 지역을 차지했던 신라는 진흥왕(540년~576년) 때 영역을 크게 확대하였다. 진흥왕은 백제와 협약한 대로 551년에 한강 상류 지역을 점거하였고, 553년에는 백제가 수복한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하였다. 또한 동북쪽으로는 함흥평야까지 진출했고, 남으로는 경남 고령지역의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신라는 7세기에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태종무열왕은 660년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으며, 문무왕은 668년에 당나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영역화하려는 당나라에 맞섰고, 676년에는 평양에 세운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으로 몰아냈다. 그 결과 신라는 나·당전쟁을 마치고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의 영토를 지배하면서 불완전하지만 삼국을 통일했다. 이후 신문왕(681년~692년) 때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구획하여 지방을 통치하였으며, 고구려 유민이 세운 발해(渤海)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이루었다.

☯ 연호<sup>1)</sup> ☯

고구려		신라		후고구려		발해	
연호	기간	연호	기간	연호	기간	연호	기간
영락(永樂) <sup>2)</sup>	391~413						
		건원(建元) <sup>3)</sup>	536~550				
		개국(開國)	551~567				
		태창(太昌)	568~571				
		홍제(鴻濟)	572~583				
		건복(建福)	584~633				
		인평(仁平)	634~646				
		태화(太和) <sup>4)</sup>	647~650				
		영휘(永徽) <sup>5)</sup>	650~655				
		현경(顯慶)	656~660				
		용삭(龍朔)	661~663				
		인덕(麟德)	664~665				
		건봉(乾封)	666~668				
		총장(總章)	668~669				
		함형(咸亨)	670~673				
		상원(上元)	674~676				
		의봉(儀鳳)	676~679				
		조로(調露)	679~680				
		영웅(永隆)	680~681				
		개요(開耀)	681~682				
		영순(永淳)	682~683				
		홍도(弘道)	683				
		사성(嗣聖)	684~704				
		문명(文明)	684				
		수공(垂拱)	685~688				
		영창(永昌)	689				
		재초(載初)	690				
		천수(天授)	690~692				
		여의(如意)	692				
		장수(長壽)	692~693				
		연재(延載)	694				
		증성(證聖)	695				
		만세통천(萬歲通天)	696~697				
		신공(神功)	697				
		성력(聖曆)	698~700				
		구시(久視)	700				
		대족(大足)	701				
		장안(長安)	701~705				
		신룡(神龍)	705~707				
		경룡(景龍)	707~710				
		당릉(唐隆)	710				
		경운(景雲)	710~711				
		태극(太極)	712				
		연화(延和)	712				
		선천(先天)	712~713				
		개원(開元)	713~741			인안(仁安)	719~737
		천보(天寶) <sup>6)</sup>	742~756				
		건원(乾元)	758~760			대흥(大興)	737~793
		상원(上元)	760~762				
		보응(寶應) <sup>7)</sup>	762~763				

\* 우리 고유연호는 굵은 글자로 표시함.

고구려		신라		후고구려		발해	
연호	기간	연호	기간	연호	기간	연호	기간
		영태(永泰)	765				
		대력(大曆)	766~779				
		건중(建中)	780~783				
		흥원(興元)	784				
		정원(貞元)	785~805			중흥(中興)	793~794
		영정(永貞)	805			정력(正曆)	794~809
						영덕(永德)	809~812
		원화(元和)	806~820			주적(朱雀)	812~817
						태시(太始)	817~818
		장경(長慶)	821~824			건흥(建興)	818~830
		보력(寶曆)	825~827				
		태화(太和)	827~835				
		개성(開成)	836~840			함화(咸和)	830~857
		회창(會昌)	841~846				
		대중(大中)	847~860				
		함통(咸通)	860~873				
		건부(乾符) 8)	874~879				
		광명(廣明)	880~881				
		중화(中和) 9)	881~884				
		광계(光啓) 10)	885~888				
		문덕(文德)	888				
		용기(龍紀)	889				
		대순(大順)	890~891				
		경복(景福) 11)	892~893				
		건녕(乾寧)	894~898				
		광화(光化)	898~901				
		천복(天復)	901~903				
		천우(天祐)	904~907	무태(武泰)	904		
		개평(開平)	907~911	성책(聖冊)	905~910		
		건화(乾化)	911~915	수덕만세(水德萬歲)	911~914		
		정명(貞明)	915~921	정개(政開)	914~918		
		용덕(龍德)	921~923				
		동광(同光)	923~926				
		천성(天成)	926~929				
		장흥(長興)	930~933				
		응순(應順)	934				
		청태(淸泰)	934~935				

1)이 표는 신라 중심으로 연호를 정리한 것이다. 백제가 연호를 사용했는지는 확실치 않고, 고구려는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하나가 확인된다. 또한 후고구려와 발해의 경우, 건국에서 멸망에 이르는 기간 내내 독자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고구려는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영락(永樂) 이외에 연수(延壽), 연가(延嘉) 등의 연호가 있던 것으로 추정되나, 시기가 불분명하다(정운용, 1998,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의 연호>, 《한국사학보》5).

3)신라에서 536년(법흥왕 23년)에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하였다.

4)건원부터 태화까지는 신라 고유의 연호이다.

5)영휘(永徽)는 신라에서 최초로 사용한 중국 연호이다.

6)756년~757년 사이에 중국에서 지덕(至德) 연호가 사용되었으나, 신라에서는 개정 사실을 모르고 천보(天寶) 연호를 계속 사용하였다.

7)763년~764년 사이에 중국에서 광덕(廣德)연호가 사용되었으나, 신라에서는 개정 사실을 모르고 보응(寶應) 연호를 계속 사용하였다.

8)875년 2월 22일에 중국에서 연호를 고쳤음을 알고 건부(乾符) 2년으로 고쳤다.

9)882년 5월 25일에 중국에서 연호를 고쳤음을 알고 중화(中和) 2년으로 고쳤다.

10)886년 6월에 중국에서 연호를 고쳤음을 알고 광계(光啓) 2년으로 고쳤다.

11)893년에 중국에서 연호를 고쳤음을 알고 경복(景福) 2년으로 고쳤다.

## ㉞ 역대 왕의 재위기간 ㉞

대(代)	고구려	백제	신라	대(代)	통일신라
1	동명(BC37~BC19)	온조(BC18~AD28)	혁거세(BC57~AD4)	29	무열(654~661)
2	<b>유리琉璃(BC19~AD18)</b>	다루(28~77)	남해(4~24)	30	문무(661~681)
3	대무신(18~44)	기루(77~128)	<b>유리儒理(24~57)</b>	31	신문(681~692)
4	민중(44~48)	개루(128~166)	탈해(57~80)	32	효소(692~702)
5	모본(48~53)	초고(166~214)	파사(80~112)	33	성덕(702~737)
6	태조(53~146)	구수(214~234)	지마(112~134)	34	효성(737~742)
7	차대(146~165)	사반(234)	일성(134~154)	35	경덕(742~765)
8	신대(165~179)	고이(234~286)	아달라(154~184)	36	해공(765~780)
9	고국천(179~197)	책계(286~298)	벌휴(184~196)	37	<b>선덕宣德(780~785)</b>
10	산상(197~227)	분서(298~304)	나해(196~230)	38	원성(785~798)
11	동천(227~248)	비류(304~344)	조분(230~247)	39	소성(799~800)
12	중천(248~270)	계(344~346)	첨해(247~261)	40	애장(800~809)
13	서천(270~292)	근초고(346~375)	미추(262~284)	41	헌덕(809~826)
14	봉상(292~300)	근구수(375~384)	유례(284~298)	42	흥덕(826~836)
15	미천(300~331)	침류(384~385)	기림(298~310)	43	희강(836~838)
16	고국원(331~371)	진사(385~392)	흘해(310~356)	44	민애(838~839)
17	소수림(371~384)	아신(392~405)	나물(356~402)	45	신무(839)
18	고국양(384~391)	전지(405~420)	실성(402~417)	46	문성(839~857)
19	광개토(391~413)	구이신(420~427)	눌지(417~458)	47	헌안(857~861)
20	장수(413~491)	비유(427~455)	자비(458~479)	48	경문(861~875)
21	문자명(491~519)	개로(455~475)	소지(479~500)	49	헌강(875~886)
22	안장(519~531)	문주(475~477)	지증(500~514)	50	정강(886~887)
23	안원(531~545)	삼근(477~479)	법흥(514~540)	51	진성(887~897)
24	양원(545~559)	동성(479~501)	진흥(540~576)	52	효공(897~912)
25	평원(559~590)	무령(501~523)	진지(576~579)	53	신덕(912~917)
26	영양(590~618)	성(523~554)	진평(579~632)	54	경명(917~924)
27	영류(618~642)	위덕(554~598)	<b>선덕善德(632~647)</b>	55	경애(924~927)
28	보장(642~668)	혜(598~599)	진덕(647~654)	56	경순(927~935)
29	*고구려 멸망(668년)	법(599~600)	*신라 멸망(935년)		
30		무(600~641)			
31		의자(641~660)			
		*백제 멸망(660년)			

\*이 표는 《삼국사기》에 따르며, 한글 이름이 같은 왕은 한자로 쓰고 굵게 표시함.



## ㉞ 도량형 ㉞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도량형을 나타내는 촌(寸, 치), 척(尺, 자), 장(丈, 길), 보(步), 필(匹), 승(升, 되) 등의 여러 단위가 보인다. 현재 고대국가의 도량형 제도가 명확히 밝혀진 상태가 아니지만 기상관련 자료의 이해를 위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sup>1)</sup>

### 1. 촌(寸) · 척 서는 모두 한척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당대척(唐大尺)

당대척은 남북조 시대의 위(魏, 386년~534년)나라 때 형성되어 당나라 때 많이 쓰인 자이며 보통 길이가 29.3~29.7cm 가량 되었다. 당대척은 삼국시대부터 신라와 백제에서 사용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

#### 다) 고구려척(高句麗尺)

고구려척은 문헌에만 전할 뿐 실제 유물이 전하지는 않는다. 길이는 35.6~36cm로 추정된다.

### 2. 보(步) · 필(匹)

신라는 6척을 1보로 삼았다.<sup>3)</sup> 신라에서 쓰인 당대척의 길이를 29.8cm로 보면 1보는 약 178.8cm가 된다. 필(匹)은 포백(布帛)의 길이 단위로 신라 문무왕(661년~681년) 이전에는 80척이었으며 그 이후는 42척이었다.

### 3. 승(升)

승은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1970~80년대에 경주 안압지 발굴 결과 통일신라 말기 1승의 부피는 340ml 정도로 추정된다. 그 이전에 1승의 부피가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

1)삼국의 도량형은 이우태의 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이우태, 2002, <고대 도량형제의 발달>, 《강좌 한국고대사》6, 가락국사적개발원). 도량형역사에 관한 책은 다음이 있다. 박홍수, 1999, 《한·중도량형제도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종봉, 2001, 《한국중세도량형제연구》, 해안: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의 도량형》(도록).

2)전상운은 29.7cm의 자를 당(대)척이 아닌 신라척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2000, <석굴사원의 과학과 기술>, 《한국과학사》, 사이언스북스).

3)박찬홍, 1995, <고구려척에 대한 연구>, 《사총》44.

## 용어해설

### ㄱ

#### 각[角]

각성(角星). 28수의 첫 번째 별자리 영역인 각수(角宿)를 가리키기도 하고, 각수에 있는 각(角) 별자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각수의 기준별은 처녀자리 알파(α) 별이다.

#### 각도[關道]

28수 중 규수(奎宿)에 속한 별 6개로 구성된 별자리이며, 왕량성이 옆에 있다.

#### 감은사[感恩寺]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에 있던 절이다.

#### 강주[康州]

현재의 경남 진주시이다.

#### 객성[客星]

신성(新星)이나 초신성(超新星)과 같이 갑자기 하늘에 보이는 천체. 꼬리가 없고 위치 변화가 불분명한 혜성에도 붙여진다.

#### 골령[鶴嶺]

동명성왕(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수도로 삼은 졸본(卒本) 부근으로 추정된다.

#### 구곡[臼谷]

강원도 춘천 혹은 경기도 양주 지역으로 추정된다.

#### 구장[九章]

중국의 수학서. 저자는 알 수 없으나, 263년에 위나라 학자인 유휘(劉徽)가 주석을 붙였다.

#### 규[奎]

28수 중 15번째 별자리 영역인 규수(奎宿) 혹은 규수에 있는 규(奎) 별자리를 가리킨다. 기준별은 안드로메다 제타(ζ) 별이다.

#### 금마군[金馬郡]

현재의 전북 익산시 일대로 이 부근에는 백제의 미륵사지가 있다.

#### 금성[金城]

신라 왕도(현재의 경주)에 쌓은 왕이 거주하던 왕성이다.

### ㄴ

#### 남두[南斗]

남두육성(南斗六星). 28수 중 8번째 영역인 두수(斗宿)에 속하며 6개의 별로 구성되었다. 서양의 궁수자리에 해당한다.

#### 낭산[狼山]

경북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산으로 선덕여왕릉과 사천왕사 터가 있다.

#### 노인성[老人星]

28수 중 22번째 영역인 정수(井宿)에 속하는 별. 한반도에서는 제주도 남단에서만 볼 수 있는 별이다. 이 별을 보면 장수한다고 믿었고, 나라에는 길조(吉兆)로 받아들여졌다. 서양 이름은 카노푸스이다.

#### 누[婁]

28수의 16번째 별자리 영역인 누수(婁宿) 혹은 누수에 있는 누(婁) 별자리를 가리킨다. 기준별은 양자리 베타(β) 별이다.

#### 누각박사[漏刻博士]

물시계를 담당하는 전문기술자. 정원은 6인이다. 신라는 33대 성덕왕 17년(718)에 누각전(漏刻典)을 설치하였으며, 35대 경덕왕 8년(749)에 박사를 두었다.

#### 누각전[漏刻典]

신라에서 물시계를 관리하던 관청이다.

### ㄷ

#### 당은현[唐恩縣]

현재의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일대이다.

#### 대관사[大官寺]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에 있었던 절이다.

#### 동정[東井]

28수의 22번째 별자리인 정수(井宿)를 말한다. 기준별은 쌍둥이자리의 뮤(μ) 별이다.

#### 등주[登州]

현재의 중국 산둥성(山東省) 등주(登州)이다.

### ㄹ

#### 마미지현[馬彌知縣]

무진주(현재의 광주광역시)의 주변 지역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 망덕사[望德寺]

경주시 배반동에 있으며, 현재는 절터와 당간지주만 남아 있다.

#### 명활성[明活城]

경주시 천문동 명활산에 있는 산성이다.

#### 모지악[毛只嶽]

현재의 경북 경주 시내 또는 경북 포항시 갈탄지역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 묘[昴]

묘성(昴星). 28수의 18번째 별자리 영역인 묘수(昴宿) 혹은 묘수에 있는 묘(昴) 별자리를 가리킨다. 황소자리의 플레이아데스성단을 구성하는 희미한 7개의 별이다. 기준별은 황소자리 17번째 별이다.

### ㅂ

#### 발삼사[教興寺]

강원도 철원에 있던 절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 발착수[渤澇水]

중국 요하(遼河) 서쪽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 백홍[白虹]

실제 무지개라기보다는 태양 둘레에 생기는 햇무리의 일종이며 백색의 호(弧)로 이해된다.

### 벽골지[碧骨池]

벽골제(碧骨堤)를 말한다. 전북 김제시 부량면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이다.

### 북하[北河]

28수 중 22번째 영역인 정수(井宿)에 속하는 3개의 별. 서양의 쌍둥이자리의 머리에 해당하는 별이다.

### 비황[飛蝗]

대륙의 초원지대에서 발생하여 하늘을 가릴 만큼 떼를 이루어 집단이동을 하는 메뚜기 무리이다.

### 빙고전[氷庫典]

신라 내성(內省)에 소속되어 얼음창고인 빙고(氷庫)를 관리하는 관청이다.

## 人

### 사벌국[沙伐郡]

사벌국(沙伐國)이 있던 현재의 경북 상주 지역으로 추정된다.

### 사비[泗水]

백제의 세 번째 수도로, 현재의 충남 부여이다.

### 사비하[泗水河]

백제의 수도인 사비(부여)를 흐르는 강으로 현재의 금강(錦江)이다.

### 사천대박사[司天大博士]

사천박사 위의 직책이다.

### 사천박사[司天博士]

신라의 천문박사(天文博士)를 개칭한 것으로 그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중국의 경우 사천대(司天臺)는 천문역수(天文曆數)와 풍운기색(風雲氣色)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 산학박사[算學博士]

산박사(算博士). 산술교육을 담당한 직책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성덕왕 16년(717)에 설치하였다고 한다.

### 삼[參]

28수 중 21번째 별자리 영역인 삼수(參宿) 혹은 삼수에 있는 삼(參) 별자리를 가리킨다. 기준별은 오리온자리 제타(ζ) 별이다.

### 삼개[三開]

중국의 수학서이나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개(開)는 승근(乘根)을 구하는 방법을 뜻한다.

### 삼대성[參大星]

삼수 안에 동서로 나란히 배치된 밝은 별 셋을 부를 때 쓰는 말이다. 서양에서는 오리온의 허리띠를 상징한다.

### 삼랑사[三郎寺]

경주시 성건동 서천가에 있던 절. 현재 당간지주 하나만 남아 있다.

### 서원경[西原京]

신라 5소경의 하나로 지금의 충북 청주 지역이다.

### 서자성[庶子星]

자미원에 있는 북극오성(北極五星)의 3번째 별. 북극오성 중 넷은 서양의 작은곰자리에 해당한다.

### 선농[先農]

농사법을 가르친 중국의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에 대한 제사이다.

### 세성[歲星]

목성. 《사기》에 따르면 동방, 나무, 봄, 갑을(甲乙)을 상징한다.

### 소부리군[所夫里郡]

현재의 충남 부여군 부여읍이다.

### 송례전[崇禮殿]

신라 왕도(경주)에 있던 왕궁 건축물로 사신의 집견이나 연회 장소로 이용되었다.

### 신궁[神宮]

신라 시조가 박혁거세가 탄생한 곳에 세워진 제의(祭儀) 장소이다.

### 신성[新城]

경주의 남산성(南山城)이다.

### 심[心]

심성(心星). 28수 중 5번째 별자리 영역인 심수(心宿) 혹은 심수에 있는 심(心) 별자리를 가리킨다. 심수의 기준별은 전갈자리의 시그마(σ) 별이다.

### 심대성[心大星]

심수(心宿)의 큰 별로 서양에서는 전갈자리의 일등성인 안타레스를 말한다.

## 〇

### 안시성[安市城]

중국 요녕성(遼寧省) 해성시(海城市) 동남쪽의 영성자산성(英城子山城)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 일천[關川]

현재의 경주시 북천(北川) 혹은 남천(南川)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압록[鴨綠]

압록강, 압록수라고도 한다.

### 양산[楊山]

현재의 경주 남산(南山)으로 추측된다.

### 역병[疫癘]

보통 돌림병, 유행병으로 풀이되며, 어떤 인구집단에서 예견되는 빈도 이상으로 일어나는 질병을 의미한다.

### 연호[年號]

왕이 나라를 다스린 해의 차례를 나타내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중국에서 유래했다. 신라 최초의 연호는 건원(建元)이다.

### 열박산[咽薄山]

현재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과 두동면에 있는 열박재를 말한다.

### 영묘사[靈廟寺]

현재의 경주시 성건동에 있던 절이다.

### 오거[五車]

28수 중 19번째 영역인 필수(畢宿)에 속하는 별. 서양의 마차부자리의 일부가 해당한다.

### 오성[五星]

세성(歲星: 목성) · 형혹(熒惑: 화성) · 태백(太白: 금성) · 진성(辰星: 수성) · 진성(鎭星: 토성)의 5개 행성이며, 오행성이라고 자주 쓰인다.

### 왕량[王良]

28수 중 15번째 영역인 규수(奎宿)에 속하는 별. W 모양의 서양의 카시오페아 자리 일부에 해당한다.

### 왕흥사[王興寺]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있던 절이다. 577년에 백제 위덕왕이 자신의 죽은 왕자를 위하여 창건하였다.

### 요성[妖星]

재해의 징조를 나타낸다는 혜성 · 패성. 특히 큰 유성을 나타낸다.

### 우두군[牛頭郡]

선덕여왕 6년(637)에 우수주(牛首州)가 되었으며, 지금의 강원도 춘천지방이다.

### 우림[羽林]

28수 중 13번째 영역인 실수(室宿)에 속하는 별. 천군(天軍)을 다스린다는 별자리로 서양의 물병자리 일부에 해당한다.

### 우사[雨師]

비를 관장하는 신 혹은 주술사로 풀이된다.

### 우토[雨土]

몽골 · 중국의 건조 지역에서 불어오는 황사(黃砂)이다. 흙비는 황사의 우리 옛 이름이다.

### 운사[雲師]

구름을 관장하는 신 혹은 주술사로 풀이된다.

### 웅진[熊津]

백제의 두 번째 수도로 현재의 충남 공주이다.

### 웅천주[熊川州]

지금의 충남 공주이다.

### 월성[月城]

경북 경주 인왕동에 있는 월성으로 이해된다. 101년(파사왕 22)에 쌓았다고 전한다.

### 육장[六章]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구장산술》을 원본으로 하여 편찬한 산학책으로 보인다.

### 이십팔수[28宿]

고대 동양에서는 달의 위치를 기준으로 별자리를 28개로 나누어 28수(宿)라 하였다. 28수는 달(月)이 28일쯤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28수는 4방위(4계절)에 7개씩 배분된다. 28수를 방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동방칠사(東方七舍): 각(角) · 항(亢) · 지(氏) · 방(房) · 심(心) · 미(尾) · 기(箕)/북방칠사(北方七舍): 두(斗) · 우(牛) · 여(女) · 허(虛) · 위(危) · 실(室) · 벽(壁)/서방칠사(西方七舍): 규(奎) · 누(婁) · 위(胃) · 묘(卯) · 필(畢) · 자(室) · 삼(參)/남방칠사(南方七舍): 정(井) · 귀(鬼) · 류(柳) · 성(星) · 장(張) · 익(翼) · 진(軫). 한편, 28수 구역 안에 있는 별들은 작은 별자리들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면, 28수의 첫째인 각수(角宿)라는 별자리 집단 안에는 45개의 별들이 있으며, 그중 밝은 별 2개로 된 별자리가 각수라는 지역의 대표 이름(角: 각)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28수 별자리들은 개개 별자리의 이름이면서 그 구역의 이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 익[翼]

익성(翼星). 28수의 27번째 별자리 영역인 익수(翼宿) 혹은 익수에 있는 익(翼) 별자리를 가리킨다. 기준별은 컵자리의 알파(a) 별이다.

### 인월[寅月]

음력 정월로, 중국 하(夏)나라의 정월이다.

### 일관[日官]

일자(日者). 천문을 관측하고 별들의 동정(動靜)에 따라 인간사의 길흉(吉凶)을 판단 하던 관리이다.

### 일관부[日官部]

백제의 외관(外官) 10부 중의 하나로 천문 · 기상과 점복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 일선군[一善郡]

현재의 경북 구미시 선산 지역이다.

### 일식[日食]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으로, 삼국시대를 포함한 전통사회에서 천견(天譴: 하늘의 꾸짖음)의 상징으로서 통치자의 권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 일월제[日月祭]

해와 달을 받드는 신라의 국가제사이다.

### 임유관[臨渝關]

중국 허북성(河北省) 동쪽 발해만(渤海灣)에 있는 산해관(山海關)의 옛 명칭 혹은 산해관 서남에 있던 관문이라고도 한다.

### 임천사[林泉寺]

경주시 동천동에 있던 절로 추정된다.

### ㅈ

### 지궁[紫宮]

자미원(紫微垣). 3원 중 중원으로 하늘의 북극을 중심으로 한 넓은 구역을 말하며, 혹은 그 주체가 되는 별자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서양 별자리 큰곰자리의 일부가 해당되며, 작은곰자리, 용자리를 포함한다.

### 자운[紫雲]

자춧빛 구름, 덕이 후한 왕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는 상서로운 구름이다.

### 자월[子月]

음력 11월로,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이 초저녁에 자방(子方) 즉 북쪽을 가리키는 달이다.



### 장새 [獐塞]

현재의 황해도 수안군 일대이다.

### 장성 [長星]

빛의 꼬리가 특별히 긴 혜성으로, 접성에 서는 불갈한 징조로 여겼다.

### 재성 [在城]

왕궁을 둘러싼 성으로 경주의 월성(月城)을 가리킨다.

### 재이 [災異]

재앙이 되는 괴이한 일로 천재(天災)와 지이(地異)를 아울러 이른다.

### 적수 [積水]

28수 중 서방의 위수(胃宿) 또는 남방의 정수(井宿)에 속하는 별자리이다. 남방의 정수에 있는 북하자리(서양의 쌍둥이자리 머리)와 함께 쓰일 때는 정수의 적수로 이해된다.

### 점성대 [古星臺]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점성대(瞻星臺)를 말한다.

### 정삭 [正朔]

정월 초하루를 의미하며 나아가 책력(冊曆, 역서, 달력)의 뜻도 있다.

### 제좌 [帝座]

천시원(天市垣) 중앙에 있는 별 하나로 구성된 별자리. 서양의 헤르쿨레스자리 알파(α) 별이다.

### 졸본 [卒本]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주몽)이 도읍한 곳으로, 중국의 요녕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 북쪽에 있는 오녀산성(五女山城) 일대로 추정된다.

### 직녀성 [織女星]

28수 중 9번째 영역인 우수(牛宿)에 속하는 별, 서양 별자리인 거문고자리 알파(α) 별이다.

### 진 [軫]

진성(軫星). 28수의 28번째 별자리 영역인 진수(軫宿) 혹은 진수에 있는 진(軫) 별 자리를 가리킨다. 기준별은 까마귀자리의 감마(γ) 별이다.

### 진성 [辰星]

수성. 《사기》에 따르면 북방, 물, 겨울, 임계(壬癸)를 상징한다.

### 진성 [鎭星]

토성. 《사기》에 따르면 중앙, 흙, 계하(季夏), 무기(戊己)를 상징한다.

### 진평왕릉 [眞平王陵]

현재 경주시 보문동에 진평왕릉으로 전하는 무덤이 사적 제180호로 지정되어 있다.

## ㄷ

### 참포 [槲浦]

현재의 경북 포항시 흥해읍의 포구로 추정된다.

### 천관 [天官]

인간 세상과 같이 하늘의 별들의 지위를 정한 것이다.

### 천구 [天狗]

천구성(天狗星). 땅에 떨어진 운석을 나타낸다.

### 천문박사 [天文博士]

신라에서 천문과 기상을 담당하던 최고실무관리. 경덕왕 8년(749)에 설치하였다. 후에 사천박사(司天博士)로 바뀌었다.

### 천선 [天船]

28수 중 17번째 영역인 위수(胃宿)에 속하는 별, 서양의 페르세우스 자리에 있는 배 모양의 별자리이다.

### 천시 [天市]

천시원(天市垣). 방수, 심수, 미수, 기수, 두수의 북쪽 구역이며, 자미원(紫微垣)·태미원(太微垣)과 함께 삼원(三垣)을 이룬다. 서양의 뱀주인자리와 뱀자리 등이 포함되는 영역이다.

### 천창 [天倉, 天槍]

자미원에 속하는 별자리로, 북두칠성의 자루 끝 부근에 있다. 서양의 목동자리와 상응한다.

### 철경 [綴經]

중국 남북조 시대 송(宋)나라의 조충지(祖沖之)가 지은 천문 계산에 관한 책으로 철술(綴術)로도 불린다.

### 점성대 [瞻星臺]

점성대(占星臺).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신라의 천문대로, 선덕여왕대에 건축되었다.

### 청목령 [靑木嶺]

현재 북한의 황해도 개성시 부근으로 추정된다.

### 치악현 [雉岳縣]

황해도 연백군 은천면(銀川面)지역으로 추정된다.

### 치우기 [蚩尤旗]

혜성과 비슷하나 뒤쪽이 깃발 모양으로 굽은 것을 말한다.

### 칠악사 [漆岳寺]

사비(충남 부여)에 있던 절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 칠요 [七曜]

해, 달, 금성(金星), 목성(木星), 수성(水星), 화성(火星), 토성(土星)을 말한다. 칠정(七政), 칠성(七星)이라고도 한다. 때론 북두칠성, 천지인(天地人) 삼재와 4계절(四時)을 가리키기도 한다.

### 칠중성 [七重城]

현재의 임진강 남쪽인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지역에 있던 성이다.

## E

### 태미 [太微]

태미원(太微垣). 삼원(三垣) 중 상원으로 북두칠성보다 남쪽이고, 성수, 장수, 익수, 진수보다 북쪽 구역이다. 서양의 처녀자리, 사자자리, 큰곰자리의 일부가 해당된다.

## 태백[太白]

금성. 《사기》에 따르면 서방, 쇠, 가을, 경신(庚辛)을 상징한다. 이 별이 저녁에 보이면 태백성이라 했고, 새벽에 보이면 계명성(啓明星)이라 했다.

## 토함산[吐含山]

경북 경주시 불국동과 양북면 사이에 있는 산. 불국사, 석굴암이 있다.

## ㅍ

## 패강[溟江]

압록강, 대동강, 임진강 등 여러 지역의 강이름으로 사용되었다.

## 평진음전[平珍音典]

신라의 관청으로 경덕왕이 소궁(婦宮)으로 고쳤다고 한다. 축대를 관리하던 중국의 소대(婦臺)와 관련하여 하천수위를 감시하는 관청으로 추론하기도 한다.

## 포구[蒲溝]

중국 요하(遼河) 서쪽으로 추정될 뿐 구체적 위치는 알 수 없다.

## 풍백[風伯]

바람을 관장하는 신 혹은 주술사로 풀이된다. 신라에서는 우사, 운사, 풍백 등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제사를 지냈다.

## 필[畢]

필성(畢星). 28수의 19번째 별자리인 필수(畢宿) 혹은 필수에 있는 필(畢) 별자리를 가리킨다. 기준별은 황소자리의 엡실론(ε) 별이다.

## ㅎ

## 하고[河鼓]

28수 중 9번째 영역인 우수(牛宿)에 속하며 3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 세 별 가운데 큰 별이 서양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르이다.

## 하서주[河西州]

현재의 강원도 강릉 지역으로, 신라 태종 무열왕 5년(658)에 설치하였다. 경덕왕 16년(757)에 명주(溟州)로 고쳤다.

## 하슬라[何瑟羅]

현재의 강원도 강릉 지역이다.

## 한산주[漢山州]

통일신라 9주(九州)의 하나로 주의 중심지는 현재의 경기도 광주(廣州)이다.

## 한성[漢城]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慰禮城)이 있던 지역 혹은 위례성과 같은 말로 이해된다.

## 한수[漢水]

현재 서울을 통과하는 한강이다.

## 항[亢]

28수의 둘째 별자리 영역인 항수(亢宿) 혹은 항수에 있는 항(亢) 별자리를 가리킨다. 기준별은 처녀자리 카파(κ) 별이다.

## 허[虛]

허성(虛星). 28수의 11번째 별자리 영역인 허수(虛宿) 혹은 허수에 있는 허(虛) 별자리를 가리킨다. 기준별은 물병자리의 베타(β) 별이다.

## 현원대성[軒輊大星]

28수 중 25번째 영역인 성수(星宿)에 속한다. 현원은 17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가장 밝은 별을 현원대성이라 한다. 서양별자리로는 사자자리의 레굴루스에 해당한다.

## 형혹[熒惑]

화성. 《사기》에 따르면 남방, 불, 여름, 병정(丙丁)을 상징한다.

## 환도[丸都]

현재의 중국 길림성 집안현 지역이다.

## 황[蝗]

우리말로는 메뚜기의 일종인 '누리'이지만 정확히 어떤 해충인지 판명하기는 힘들다.

## 황룡사[皇龍寺]

경주시 구황동에 있던 신라 최대의 절이다.

## 황룡사탑[皇龍寺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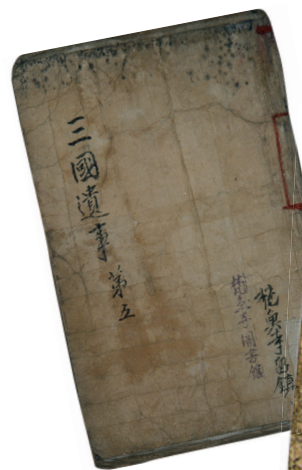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에 있던 9층목탑. 신라 선덕여왕 때 지어졌으나, 고려 고종 25년(1238)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 횡악[橫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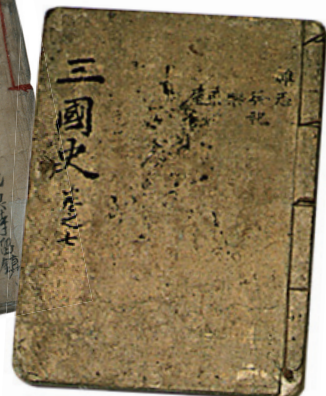
서울에 있는 삼각산(三角山)으로 추정된다.

## 흥륜사[興輪寺]

현재의 경북 경주시 사정동(沙正洞)에 있던 절이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용오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2009년 기상사진전 입선작)

강한 상승기류로 생긴 소용돌이가 용이 승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 기상기록집 ❶

삼국사기·삼국유사로 본 기상·천문·지진기록

三國史記·三國遺事로 본 氣象·天文·地震記錄

Meteorological Records from Ancient Korea including Astronomical and Seismological Records  
from 《SAMGU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펴낸 곳 | 기상청

기획 | 국립기상연구소

역주 및 편집 | 황사연구과 기상역사팀

사진제공 | 기상청, 문화재청, 한국천문연구원

디자인 | 디자인 여는

인쇄 | 예일정판

발행일 |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초판)

2013년 8월 23일 금요일 (재판- 전자책)

발간등록번호 | 11-1360395-000227-01



기상청

<http://www.kma.go.kr>

※ 이 책에 실린 내용과 사진은 황사연구과와 사전 협의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 (156-72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 전화 070-7850-6752 | 팩스 (02)-831-4930 | 이메일 hwangsa@korea.kr